

SGRA REPORT

SGRAレポート No. 108

NO.108

ISSN 1346-0382

第22回日韓アジア未来フォーラム・2024 現代日本学会春季国際学術大会

ジェットコースターの 日韓関係

—何が正常で何が蜚気楼なのか

제 22 회 한일아시아미래포럼 · 2024 현대일본학회 춘계국제학술대회

‘롤러코스터’ 한일관계,
무엇이 신기루인가?

‘롤러코스터’ 한일관계, 무엇이 신기루인가?

■ 포럼의 취지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이후 해빙기를 맞이한 한일관계는, 이후 부침을 반복하면서 최악의 한일관계라고 일컬어지는 ‘잃어버린 10 년’ 을 경험하기도 했다. 한국 정부의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제3자 변제 해법을 계기로 2023년 7차례의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한일관계는 정상화 궤도에 올라섰다. 한일관계에 있어 무엇이 정상이고, 무엇이 신기루인가? 이번 회의에서는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해법 제시 1년 후 성과와 문제점, 그리고 한일협력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한일동시통역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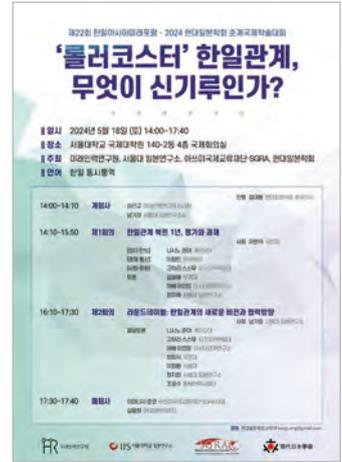
SGRA는

세키구치 글로벌연구회 (Sekiguchi Global Research Association/SGRA)는 선량한 지구시민 실현에 대한 공헌을 목표로 하여 2000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아쓰미국제교류재단 소재지인 도쿄도 분쿄구 ‘세키구치’에서 이름을 따왔습니다. SGRA는 일본 내 대학원에서 박사학위 취득을 위해 연구하고 아쓰미 장학생으로 함께 시간을 보낸 외국인 및 일본인 연구자가 중심이 돼, 현대 사회의 과제에 대처하는 연구와 제언을 포럼 및 보고서 등을 통해 사회에 발신하고 있습니다. 폭 넓은 연구영역을 포괄한 국제적, 학제적 활동을 펼치는 것을 목적으로, 다국적 연구자가 광범위한 지혜와 네트워크를 결집해 다면적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과 고찰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SGRA 소식

SGRA 포럼 등의 공지와 세계각지의 SGRA 회원이 에세이를 매주 목요일에 전자메일로 발신하고 있습니다. SGRA 소식은 누구나 무료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을 희망하시는 분은 홈페이지 (http://www.aisf.or.jp/sgra/entry/registration_form/)에서 자동등록 하시면 됩니다.

‘롤러코스터’ 한일관계, 무엇이 신기루인가?



일시	2024년 5월 18일 (토) 14:00~17:40
장소	서울대 국제대학원 140-2동 4층 국제회의실 및 온라인
주최	재단법인 미래인력연구원 서울대 일본연구소 공익재단법인 아쓰미국제교류재단 세키구치글로벌연구회 (SGRA) 사단법인 현대일본학회
사회	엄 태봉 (현대일본학회)
개회사	이 진규 (미래인력연구원) 83 남 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84

[제1부 발표 및 지정토론] 한일관계 복원 1년, 평가와 과제

시작하며 좌장: 이 원덕 (국민대)	86
[발표 1] 한일관계 복원 1년, 평가와 과제: 정치·안보	88
니시노 준야 (게이오기주쿠대)	
[발표 2] 한일관계 복원 1년, 평가와 과제: 경제·통상	94
이 창민 (한국외대)	
[발표 3] 한일관계 복원 1년, 평가와 과제: 사회·문화	108
고하리 스스무 (시즈오카현립대)	

[토론 1] 니시노 준야 선생님 발표에 대해	116
김 송배 (국립부경대)	
[토론 2] 이창민 선생님 발표에 대해	119
아베 마코토 (아시아경제연구소)	
[토론 3] 고하리 스스무 선생님 발표에 대해	123
정 미애 (서울대 일본연구소)	
[질의응답]	126

[제2부 패널토론] 한일관계의 새로운 비전과 협력방향 132

좌 장 : 남 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패널리스트 : 니시노 준야 (게이오기주쿠대)
 고하리 스스무 (시즈오카현립대)
 아베 마코토 (아시아경제연구소)
 최 희식 (국민대)
 이 정환 (서울대)
 정 지희 (서울대 일본연구소)
 조 윤수 (동북아역사재단)

폐회사 | 이마니시 준코 (아쓰미국제교류재단 · SGRA) 151

김 응희 (현대일본학회) 153

발표자 약력 154

후기를 대신하여 155

동시통역
 한국어⇄일본어: 이 혜리 (한국외대) 안 영희 (한국외대)

※소속은 본 포럼 개최 시점

개회사

이진규

미래인력연구원



안녕하십니까, 미래인력연구원 이사장을 맡고 있는 이진규 교수입니다. 저도 7년 전 교수였습니다. 정년 퇴임을 해 지금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새벽 비행기를 타고 여기까지 연구 활동을 위해 참가해 주신 여러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한국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마침 날씨가 아주 화창하고, 서울대학교 캠퍼스가 자연에 둘러싸여 있어 아름답습니다. 이런 캠퍼스로 여러분들을 모시게 돼 대단히 기쁩니다.

오늘 저희와 공동 연구를 하는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남기정 교수님, 그리고 현대일본학회 김응희 교수님,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제목을 보고 “왜 이렇게 제목이 어렵냐” 고 했습니다. ‘롤러코스터 한일관계’, 또 ‘신기루’ 이해하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깊은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놀랄지도 모르겠지만, 아쓰미재단과 미래인력연구원은 25년 정도 관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한 번은 일본에 가서 저희가 발표를 하고, 또 한 번은 한국에 와서 일본 분들이 발표를 한 게, 벌써 22~23년으로, 코로나 시대 한 2년 못했지만, 굉장히 오랜 기간 두 재단은 우정의 관계를 깊이 하고 있었습니다.

한일관계가 롤러코스터라는 말은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게 역사적으로 많이 있었다는 조금 부정적 표현인데, 아쓰미재단하고 저희는 롤러코스터가 아니라 쪽 일목요연하게 잘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관계는 절대로 롤러코스터가 아니라 무난하게 잘 가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22회까지 됐으니 앞으로 50회까지 가고, 50회 되면 이마니시상이 몇 살이 됩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좋은 우정을 나누면서 연구를 계속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한일, 일본에 관련된 모든 학자 여러분들, 또 관계자 여러분들 오셔서 좋은 발표와 토론, 연구를 해주시고 좋은 시간 갖기를 희망합니다. 앞으로 아쓰미재단과 미래인력연구원은 22년 동안 그래왔듯, 앞으로 50년 동안 롤러코스터가 아닌 KTX, 신칸센처럼 쪽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개회사

남 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에서 소장 역할을 하고 있는 남기정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모시고 좋은 학술회의를 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연두색 앞들이 조금씩 더 색깔이 짙어지는 계절입니다. 5월에는 서울대 축제도 있습니다. 서울대학교가 주말에는 서울대공원이 됩니다. 롤러코스터는 없지만요. '롤러코스터 한일관계, 무엇이 신기루인가' 라는 주제는 한일관계를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평소 많은 고민들을 안겨주는 제목으로, 유사한 고민들을 안고 왔던 것 같습니다.

롤러코스터는 아니지만 제목을 들으면서 생각났던 게 있어서 경험을 좀 말씀드리면, 지난 2월 쓰시마에 쾌속선을 타고 가면서 '한일관계의 험난함' 을 직접 몸으로 체험했습니다. 그날따라 높은 파도여서 출항한 지 5분도 안 돼 화장실에 들어가기 시작해, 30여 분을 고통 속에서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굉장히 심한 배멀미를 해 다음 날 일정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때 제가 화장실을 들락날락하면서 보니 편안한 얼굴로 앉아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가운데 딱 자리 잡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서 무엇을 알았냐고 하면, 탈 것을 타면 다들 앞자리나 창가에 앉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자리에 앉았다가 크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갖게 됐는데, 그렇게 극단적인 자리에 앉으면 파도의 높낮이로 직격탄을 맞는 것 같습니다. 가운데 딱 균형 잡고 앉아 있는 게 험난한 파고를 견뎌내는 굉장히 중요한 지혜인 것 같다는 걸 느꼈습니다.

또 하나는 화장실에서 조금 정리하고 나오자마자 '빨리 도착했으면 좋겠다' 는 심정으로 바깥을 바라보게 되는데, 제가 몇 번 '신기루' 를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육지 같아 보여서 '저기까지만 가면 이제 편안해지겠지' 하는데, 근처에 가보면 육지가 아니라 파도였다는 것을 보며 체념도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안달이 나거나 빨리 정리되기를 바라거나, 육지에 빨리 달기를 바라는 마음은, 마음 속에 신기루를 만들어내는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견디는 마음도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한일관계에 대해 고민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경험과 오버랩돼 생각나는

제목이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너무 빨리 육지에 다다를 것이 아니면, 육지에 다다른 것처럼 생각하지 않는 것도 한일관계를 견디는 힘일 수 있겠다고 생각해봅니다.

저는 최근 ‘화해’ 라는 화두를 쭉 붙잡고 살고 있습니다. 물론 한일관계이기에 화해라는 문제가 굉장히 저에게는 큰 주제로 다가옵니다만, 화해를 생각해 볼 때 화해가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내 기억을, 내 삶의 에너지 혹은 삶의 의욕으로 바꾸고, 성찰이 같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기억과 성찰이 같이 따라가야 하고, 화해는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화해를 이루어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것, 공감하는 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제까지 공부했던 것이 오늘 생각해 보니 잘못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경험들을 몇 번 겪으면서 여전히 어렵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일관계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정말 몇 번씩이나 생각이 바뀌고, 또 새로운 주제를 접하면서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경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스스로를 경계하며 ‘아직 네가 알고 있는 것은 한일관계의 전부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가르침을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좋은 발제, 충실한 발제를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이 회의를 조직해 주신 아쓰미국제교류재단, 미래인력연구원, 현대일본학회 관계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저도 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공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1 부】 시작하며

이 원덕 국민대



제1부 사회를 맡은 이원덕입니다. 오늘 회의는 크게 두 파트로 구성되어 있고, 제1부에서는 한일관계의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생각할 때, 주로 과거와 근과거, 현재를 점검해보는 과제가 되겠고, 제2부에서는 미래 비전, 한일관계의 미래 방향에 대해 검토해 보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은 약 100분입니다. 등단하시는 분이 여섯 분이냐 되시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해서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 배분은 발표자에게 15분 정도 드리는 게 적당할 것 같습니다. 15분 플러스 알파 정도 사용해서 발표해 주시고 토론은 5분에서 7분 정도로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발표에 들어가기 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아시다시피 이 회의는 4개 기관이 공동 주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현대일본학회 춘계학술회의 형식을 취하고 있고, 또 하나의 기둥은 여러분 모두에게 익숙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한일아시아미래포럼’이라는 한일대화채널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조금 전 인사 말씀하셨던 이진규 이사장님이 이끄시는 미래인력연구원이 맡고 있고, 일본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 장학사업을 하는 아쓰미재단입니다. 이 두 재단이 힘을 합쳐 2001년, 지금으로부터 23년 전 이와 같은 한일학술포럼을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22년이 흘러 올해가 22번째입니다. 왜 23회가 아니고 22회인가 했더니, 코로나 때 이동이 금지되어 있을 시기에 한 번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22회째 회의를 맞이했고, 제가 한일관계에 걸쳐 있는 여러 채널이나 포럼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민간재단이 중심이 돼 지속적으로 20여 년 동안 포럼을 유지해 왔다는 것은 대단히 역사적인 것 같습니다. 이 포럼이 지속될 수 있기 위해서는 두 재단 리더들의 남다른 열정과 노력이 뒷받침되었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김웅희 현대일본학회 회장님이 이 채널을 지속가능하도록 하는 아주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분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한일관계 복원 1년, 평가와 과제’ 라 타이틀이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한일관계 근 10년간은 최악의 상황에 있었죠. 혹자에 따르면 ‘잃어버린 10년’ 이라고 할 정도로

정치, 경제, 안보, 문화, 모든 면에서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던 것이 그 동안의 한일관계였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윤 대통령 출범 이후라 생각되는데, 한일관계의 가장 갈등 사안이었던 징용 문제를 윤 대통령 리더십으로 해결책이 제시됨에 따라 잃어버린 10년의 한일관계가 다시 변곡점을 맞이하게 되었고, 그로부터 상당히 극적으로 개선되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2023년 3월을 계기로 회복되었고, 개선되고 있는 한일관계의 오늘날까지 전개 상황을 한번 검토해 보고 문제는 없는지, 또 그런 상황을 1년 지난 시점에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를 진단해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파트로 나눠서 진단을 하는데요, 첫 번째가 정치, 두 번째가 경제, 세 번째가 사회·문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한일관계 복원의 1년을 평가하고 진단하는 주제가 되겠는데, 정치 파트는 니시노 준야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니시노 선생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제 1 부]
발표
1



한일관계 복원 1년, 평가와 과제 : 정치·안보

니시노 준야 게이오기주쿠대

[원문은 일본어. 번역 윤재언 (릿쿄대)]

먼저 주최자, 공동 주최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초대해 주신 데 대해 감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날씨도 좋고, 밖이 내다보이는 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매우 즐겁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 과제는 일한관계 복원, 특히 안보와 정치 분야 성과입니다. 주요제가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관계복원 1년의 성과’와 ‘관계복원 후의 과제’입니다. 관계복원을 위한 움직임에 대해서는 과거 1년간, 주로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가에 대해 썼습니다.

1. 관계복원을 위한 움직임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난 1년 급속한 관계개선에서 큰 힘이 된 것은 한국의 윤석열 정권 등장이었고, 윤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이었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여러 발언에 밑줄을 그어 제시했습니다(슬라이드 1).

관계복원을 위한 움직임

- 2022/4 윤정부, 정책협의 대표단 파견
- 2022/5 하야시 외무상 방한, 윤 대통령 취임식 참석
- 2022/7 박진 장관 방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
- 2022/8 취임 100일 회견
“일본이 우려하는 주권 문제와 충돌하지 않는 형태의 해결 방법을 강구하겠다”
- 2022/8 광복절 연설
“양국의 미래와 시대적 사명을 향하여 나아갈 때 역사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 2022/9 한·일 정상 ‘간담’ (뉴욕)
- 2022/11 아소 부총재 방한, 윤 대통령과 회담
- 2022/11 국제관함식 참가 결정
- 2022/11 한일 정상회담 (프놈펜)
- 2023/3 ‘3·1절’ 연설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지구 규모의 과제에 협력하는 파트너”

슬라이드 1

2. 관계복원 1년의 성과 (정치 · 안보 분야)

관계복원 1년간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가 오늘 제 이야기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역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일본과 한국이 함께 협력해 나갈 수 있는 파트너십이 다시 한번 확인된 점입니다(슬라이드 2).

관계복원 1년의 성과(정치·안보 분야)

- 협력 파트너십을 재확인
- 지도자간 신뢰관계 구축(정상회담 7회 등)
- 정부 당국간 대화·협치 채널 복원 및 신설
- 정치인 간 네트워크 활성화(이런, 젊은 교류)
- 부정적인 스파이럴 탈피(수출관리, GSOMIA 정상화)
- 양국민 간의 왕래 활발화(지방편의 재개 등)
- 한·미·일 협력의 진전(캠프 데이비드 합의와 그 이행)

슬라이드 2

예를 들어, 윤 대통령이 2023년 3월 16, 17일 일본을 방문하셨을 때, 게이오기주쿠대학에도 오셔서, 일본인 학생과 한국인 유학생들 앞에서 연설을 했고, 학생들과의 대화도 성사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 혹은 그 이후 반복해 말씀하시는 내용은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슬라이드 3). 일본과 한국은 영어로 말하자면, ‘내추럴 파트너스’ 이자, 본래 협력해야 할 상대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역사 문제를 비롯한 현안이 있었기에 10년 동안 협력을 하지 못했다. 이 점에 관해 다시 한번 협력할 수 있는 파트너 관계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고, 그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대통령이 거듭 발언하셨습니다.

윤대통령 '3.1절' 연설 일본관련 부분 발췌

지금 한일 양국은 아픈 과거를 딛고 '새 세상'을 향해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유, 인권,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며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양국의 안보 협력이 한층 더 강화되었습니다. 산업과 금융, 첨단 기술 분야에서 두텁게 협력하고 있고, 지난해 양국을 오간 국민은 928만명에 달합니다.

무력 충돌이 벌어졌던 중동과 아프리카에서는 양국이 서로의 국민을 구출하고 도움을 주고받았습니다.

이처럼 한일 양국이 교류와 협력을 통해 신뢰를 쌓아가고, 역사가 남긴 어려운 과제들을 함께 풀어나간다면, 한일관계의 더 밝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 수 있을 것입니다.

내년 한일 수교 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보다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양국 관계 도약시켜 나가기 기대합니다.

슬라이드 3

기본적 가치의 공유나 미국과의 동맹관계 등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역시 향후 일한관계를 짚어질 젊은 세대(윤 대통령은 미래 세대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가, 편견 없이 자연스럽게 협력할 수 있는 파트너 관계를 다시 한번 만들어 가야 한다고 대통령 스스로 확인했고, 그것을 기시다 총리가 받아들인 것이 큰 성과 중 하나 아닐까 합니다.

그러한 두 지도자 혹은 양국 정부의 인식을 바탕으로 관계가 급속히 개선되어, 관계복원 1년만에 7차례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있고, 이와 함께 당국 간 대화, 협의 채널이 복원돼 새로운 협의틀도 만들어졌습니다.

2023년 3월 윤 대통령 방일 때, 일한정상 기자회견에서 여러 약속이 발표되었는데(슬라이드4), 매우 놀랍게도 그 후 1년 만에 약속들을 모두 실현한 것은 특기할 만한 일입니다.

한일 정상회담·공동기자회견 내용(2023/3)

- 한국의 전 징용공 문제 해결방안을 일본이 평가
-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을 전체적으로 계승이라 표명
- 한일 셔틀외교, 안보대화, 차관 전략대화 재개
- 한일간에 경제안보협의 구성
- 대한 수출관리 운용의 재검토(3품목)
- GSOMIA(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의 완전 정상화
- 경제계 '미래 파트너십 기금' 창설
- 한일, 한미일 안보협력 추진

슬라이드 4

이에 맞춰 정치인 간 네트워크, 예를 들어 일한·한일의원연맹이나, 젊은 의원들의 교류도 활성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양국 정부, 그리고 양국 정치인의 네트워크가 지난 1년 동안 복원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그럼에도 아직 과제가 남아 있다는 것은 유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난 10년간 일한관계는 정치관계 악화로 외교관계, 방위협력, 경제협력, 나아가 국민 교류까지 굉장히 넓은 영역이 악영향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일한 간 인적 왕래는 코로나 이전 상태로 회복되었고, 그 숫자는 1000만 명에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지난 1년간 일한관계 개선과 함께 안보 협력 측면에서의 일미한 협력이 2023년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 이후 급속히 실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정치외교와 안보 분야에서의 지난 1년 성과입니다.

3. 관계복원 후의 과제

한편으로 과제도 당연히 있습니다. 슬라이드5를 봐주십시오. 양국 정부, 그리고 정치인 간 신뢰관계는 급속히 복원되었지만, 이러한 급속한 개선에 대한 국민적 이해 혹은 공감대는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관계복원 후의 과제(정치·안보 분야)

- 협력 파트너로서의 국민적 이해·컨센서스 양성
- 이에 이바지하는 제도적 조치의 실시(유럽의 경험 일부 참조)
- 국내 정치(당파적 분극화 등)로부터의 악영향의 관리·저감
- 복원한 당국간 채널을 통한 성과 및 실적 도출
- 한일 양국 안보협력 정체/미국 의존에서 한일 주도로
- 한·미·일 협력 군사분야와 평화구축 분야의 균형 실현
- 한·미·일 '협약/중·대만 문제 대응
- 상호 정책·전략에 대한 이해와 조정을 위한 틀

슬라이드 5

특히 한국 측 여론조사를 보면, 이른바 징용공 문제 해결 방법으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한 제3자 변제에 대해 찬성은 35%이지만, 반대가 약 60%에 달합니다. 또 2023년 5월 기사다 총리 방한 후의 여론조사(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542호: 2023년 5월 둘째주)에서도 한국 응답자 절반은 “성과가 없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40대 중 “성과가 있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14%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아직 일한관계 개선에 대한 양국 국민의 지지, 특히 한국인들의 지지는 미흡한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 4월 총선에서 현정권이 대패했음에도 임기가 3년 더 남아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윤 정권은 물론, 관계 개선을 추진해 온 일본 측도 향후 3년간 어떤 형태로 양국 국민, 특히 한국인들의 일한관계 개선에 대한 지지를 얻을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적 이해와 지지를 얻는 노력과 더불어, 관계 개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일이 중요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만, 예를 들어 유럽 통합의 경험에서, 우리들도 몇 가지 지혜를 차용해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윤덕민 주일한국대사는 ‘엘리제 조약’ (역주: 1963년 독일과 프랑스 사이 맺어진 우호조약)에 대해 언급하셨고, 지난번 재외공관장 회의 때 일한 버전의 ‘셴겐 협약’, 즉 출입국 관리 간소화를 말씀하셨습니다. 윤 정권 출범 초기부터 일한 버전 ‘에라스무스 프로젝트’ (역주: 유럽의 학생 교류 프로그램)라는 아이디어도 한국 측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한 간 인적 교류 촉진은 양국 국민 지지를 얻는데에도 기여하는 제도적 조치일 것입니다. 2025년 일한국교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할 때도, 국민의 교류를 보다 간편화,

간소화하는 조치가 우선 실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일한관계가 크게 진전된 것은, 양국민이 자유롭게 왕래하고, 그로 인해 일한이 서로 잘 알 수 있게 된 점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김포·하네다 항공편 실현은 하나의 큰 계기였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로 인해 적어도 양국 수도만이라도 교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경우에 따라 입국 수속에 1시간이 걸립니다. 2시간이면 올 수 있음에도, 입국에 1시간 걸리는 상황은 개선해야 합니다. 이것이 실현되면 일한관계는 국민 차원뿐 아니라, 체감적으로도 더욱 가까워질 것입니다.

윤 정권의 남은 임기 3년 동안 일한 국내정치 악영향을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가 하는 과제도 있습니다. 슬라이드5에 ‘국내 정치(당파적 분극화 등)로부터의 악영향 관리·저감’ 이라 썼지만, 당파적 분극화가 매우 심한 것이 한국 국내정치입니다. 하지만 일본 측에서도, 정치인 혹은 정당, 정부가 주장하는 것과 국민이 느끼는 것 사이에 온도차가 있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일본 국민도 자국 정치인이 주장하는 만큼 한국에 대해 나쁜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일본 여론도, 한국 여론도 상대국에 대한 인식은 어느 쪽이나 하면, 좌우 대립의 한 가운데쯤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특히 현재 야당이 일본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파적으로 분극화된 국내정치 속에서, 국민 여론도 결과적으로 그에 끌려가는 현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일본 여당에서도 한국에 대해 강경한 목소리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민 여론도 결국 그쪽으로 휩쓸려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양국관계 악화에 상당히 큰 요소로 작용하고 있기에, 이러한 부분을 가능한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 당국 간 채널은 복원됐는데, 앞으로 복원한 채널을 사용해 어떻게 성과를 내느냐, 실적을 내느냐가 중요해집니다. 지난 1년 동안은 관계복원을 위한 1년이었습니다. 다행히 채널은 복원했지만, 실적을 어떻게 낼 것인가 하는 점이 앞으로 적어도 3년, 더 나아가 그 앞을 넘어선 과제가 될 것입니다.

일한통화스와프협정 등 분명하게 몇 가지 실적이 나오기 시작했지만, 정치 그리고 안보, 외교 분야에서는 아직 성과가 충분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회복된 채널을 사용해 앞으로 협의를 활성화하고, 성과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 관점에서 하나의 중요한 지표가 일한 양국의 안전보장협력을 어디까지 추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미한 3국 안전보장협력은 캠프 데이비드 합의 이후 급속히 실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한 양국 간 안전보장협력에 대해서는 아직 양국 국민 여론도 그렇고, 정부 당국 사이에서도 추진하려는 분위기가 충분하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본 측에는 2018년 12월, 이른바 ‘일한 레이더 갈등’ 이 여전히 협력 추진에 큰 심리적 장애가 됐다는 배경이 있고, 한국의 불행한 역사적 경위를 감안하면 ‘3국은 좋지만, 일한 양국 간 협력은 아직 갈 길이 멀다’ 는 인식을 여론조사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일미한 3국 협력에 대해, 캠프 데이비드 이후 움직임을 보면, 군사, 안전보장

영역에서의 협력이 눈에 띕니다(슬라이드 6). 앞으로는 ‘인도태평양전략’ 이라는 더 큰 문맥 속에서 평화구축 측면의 일미한 협력을 실시해 나갈 것이다, 그에 따라 일미한 협력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이 지역을 불안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스 빌딩’ 과 ‘피스 메이킹’ 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갖게 해, 그 성과를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직 일한 간 서로가 생각하는 것, 특히 정치 · 외교 차원에서는 상대방 정책이나 전략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깊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한·미·일 협력의 추진 요인

- 1) 한·윤석열 정권의 등장과 한일관계 복원 추진
- 2) 국제정세 (특히 북한, 중국, 러시아 동향)
 - 역지력 강화, 대처력 구축, 법에 근거한 국제질서 유지, 경제안보, 글로벌 사우스 대응
- 3) 각국정권의 외교안보전략
 - 기사다 정권: 국가안보전략(22.12), FOIP 새로운 플랜(23.3)
 - 바이든 행정부: ‘통합억지’, 미·중 전략경쟁 대응
인도태평양전략(22.2), 국가안보전략(22.10)
 - 윤정부: 보편적 가치와 힘 중시 외교
인도태평양전략(22.12), 국가안보전략(23.6)

슬라이드 6

일한공동여론조사(요미우리신문 · 한국일보) 등을 보더라도, 특히 일본의 안전보장정책에 대해 한국에는 매우 비판적 평가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자신의 입장이나 정책을 설명하고, 가능한 한 이해를 촉진하는 노력이 앞으로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나머지는 추후 토론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제 1 부]
발표
2한일관계 복원 1년, 평가와 과제 :
경제·통상

이 창민 한국외대

1. 무역

한국의 대일수입과 대일수출은 2011년을 정점으로 감소경향에 있고, 대일무역적자도 감소세에 접어들었다. 그 배경으로 ①한국의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국산화 성공, ②일본기업의 대한투자 증가, ③한국기업의 대외투자 증가가 원인으로 꼽힌다. 2019년 이후 2023년까지도 감소 내지 횡보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슬라이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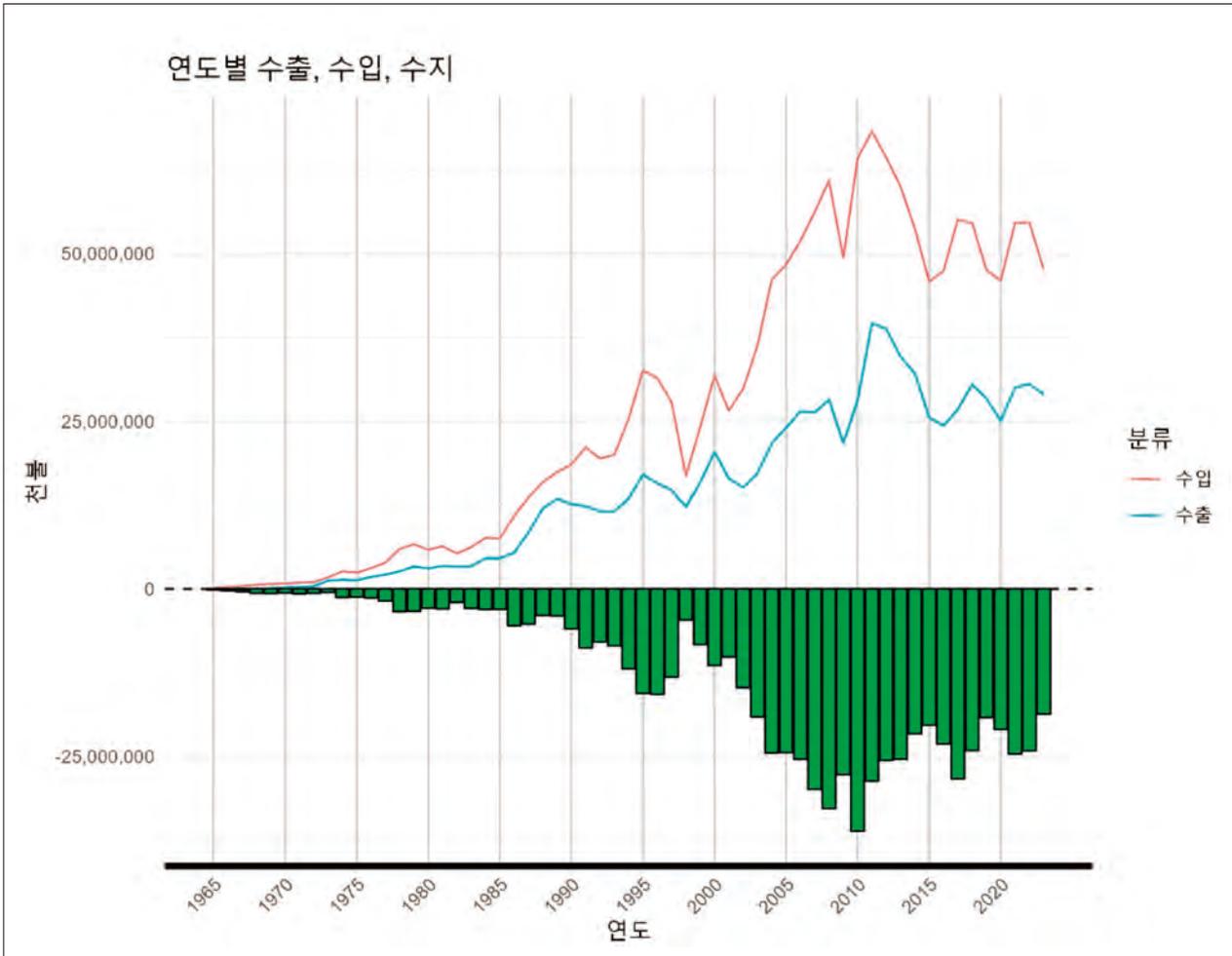
수출규제(2019년) 이후 가공단계별 전년대비 대일 수입증감액의 추이를 살펴보면, 2019년에는 자본재와 중간재의 전년대비 수입감소가, 2020년에는 중간재의 수입감소가 전체 수입 감소로 이어졌다. 2021년에는 자본재와 중간재의 수입이 늘면서 전체 대일 수입의 증가를 이끌었으나 2023년에는 소비재를 제외한 모든 가공단계별 수입이 감소하면서 2022년 대비 약 70억달러의 대일수입이 감소하였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2023년에 전년대비 수입액이 가장 많이 감소했던 품목은 HS8486(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 등의 제조장치), HS7204(철의 스크랩, 잉곳)으로 전년대비 각각 약 15억달러와 4.7억달러가 감소했다. HS8486은 2023년에 두번째로 많이 수입된 품목이지만, 위에서 언급했듯 반도체 관련 중간재의 대일의존도가 낮아지면서 HS8486의 대일의존도 역시 2011년 이후 감소추세에 있다. 또한 HS8486과 HS7204 모두 수요변동에 따른 수입증감의 폭이 큰 품목들이다. 세번째로 많이 감소한 품목인 HS7110(백금)은 전년대비 약 4억달러 감소했는데, 2022년 수입이 급증하였다가 2023년에 이전의 추세를 회복한 데에 따른 감소폭으로 보인다.

품목별로 살펴보았을 때 한국의 대일 수입은 한일 정부 간 관계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다는 이전부터 진행된 소부장의 국산화 경향이나 경기변동에 따라 증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대일 수입에 한일 양국 간의 관계 악화나 코로나 사태가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 수출규제 (반도체 관련) 3 품목

수출규제 3품목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PR), 불화수소) 중



슬라이드 1

일본의 수입비중이 가장 급격하게 줄어든 품목은 불화수소였다(슬라이드2). 수출규제 이전 한국 기업들은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순도가 높은 일본산을 사용했으나 수출규제를 전후로 중국산 불화수소도 품질테스트를 거쳐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중국 수입비중이 확대되었고, 줄어든 대일 수입비중을 중국산이나 대만산이 대체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러나 2023년 이후 일본산 불화수소의 수입비중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 2022년 수입금액기준 7.7%까지 떨어진 일본산 불화수소의 수입비중은

(단위: 천달러, %)

년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HS 3920999010			포도레지스트 HS 3707901010			불화수소(에칭가스) HS 2811111000		
	대세계	대일본	일본 세어	대세계	대일본	일본 세어	대세계	대일본	일본 세어
2017	43,355	20,050	46.2	269,178	244,556	90.9	91,548	43,164	47.1
2018	23,336	19,726	84.5	320,692	298,891	93.2	159,512	66,857	41.9
2019	33,824	31,456	93.0	304,100	268,422	88.3	112,927	36,335	32.2
2020	37,710	35,368	93.8	379,398	328,295	86.5	72,895	9,376	12.9
2021	33,572	31,300	93.2	463,276	367,231	79.3	93,556	12,520	13.4
2022	18,173	16,337	89.9	423,942	327,983	77.4	108,042	8,302	7.7
2023	14,461	13,198	91.3	340,983	254,770	74.7	82,116	22,005	26.8

슬라이드 2

2023년 26.8%까지 상승했고, 일본산 불화수소의 수입액(2200만달러)이 대만산(830만달러)을 제치고 중국산(4900만달러)에 이어 2위로 상승했다. 24년 3월 기준으로 2024년에는 중국산(460만달러)보다도 많은 일본산 불화수소(670만달러)가 수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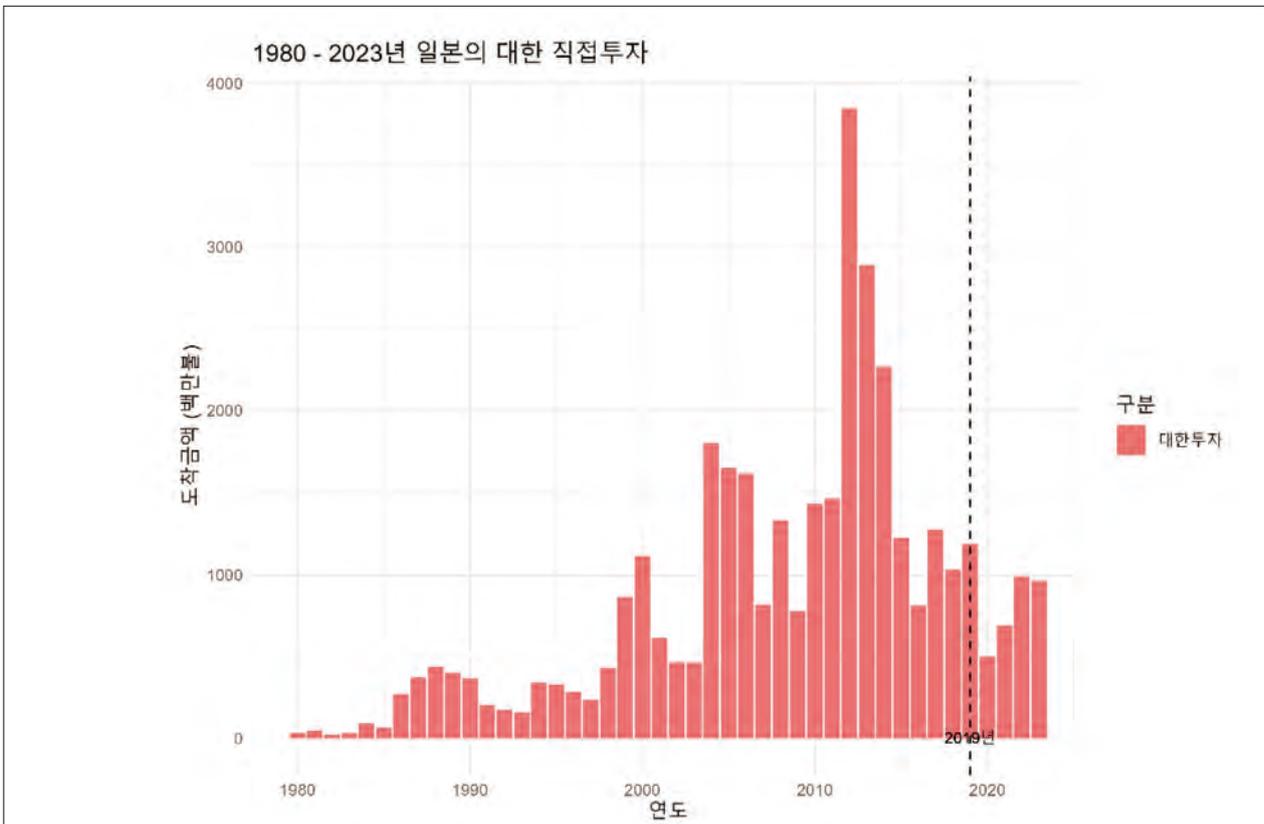
2. 투자

① 일본의 대한 직접투자

2012년 일본의 대한 직접투자는 38억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액 경신했다(슬라이드3). 2010년대 초반 일본 기업들의 한국 진출이 액정 디스플레이, 반도체, 유기 EL 디스플레이, 차재용 전지 등의 분야로 폭넓게 확대된 결과였다. 이후 일본의 대한 직접투자는 감소추세에 있는데, 2020년에 5억 9천만달러로 2004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이후 2022년에는 11억 3천만달러, 2023년에는 9억 6천만달러 기록하며 2019년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2012년 일본의 대한 직접투자는 38억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액 경신했다. 2010년대 초반 일본 기업들의 한국 진출이 액정 디스플레이, 반도체, 유기 EL 디스플레이, 차재용 전지 등의 분야로 폭넓게 확대된 결과였다. 이후 일본의 대한 직접투자는 감소추세에 있는데, 2020년에 5억 9천만달러로 2004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이후 2022년에는 11억 3천만달러, 2023년에는 9억 6천만달러 기록하며 2019년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2020년 일본의 대한투자가 급감한 데에는 복합적인 배경이 작용한 것으로



슬라이드 3

보인다¹. 2019년 7월 한일 무역 분쟁 발발 이후 한국 정부가 ‘탈일본’ 을 목표로 하는 소부장의 경쟁력 강화 대책을 내세우기 시작하자 일본의 소부장 기업들이 투자 규모를 축소시킨 것이 원인 중 하나로 보인다. 또한 코로나 사태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전세계에서 한국으로의 외국인직접투자금액의 추이를 살펴보면 2019년에는 135억달러, 2020년에는 114억달러, 2021년에는 183억달러로 일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2020년에 투자규모가 축소했다.

2019년 이후 산업별로 일본의 대한투자형태를 살펴보면, 제조업 분야에서 2023년에 2019년의 투자 수준을 회복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투자액은 2019년 4억 6천만달러에서 2020년 1억 5천만달러로 급감했다가, 2021년 3억 2천만달러, 2022년 4억 6천만달러, 2023년 5억 3천만달러로 2019년 수준을 회복했다. 전체 투자액 중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봐도, 전체 대한투자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0년 26%까지 떨어졌다가 2023년에 55%로 상승하며 2019년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항공 부문이 제조업 투자의 상승 추세를 견인했다. 2023년 2억 5천만달러 규모의 투자가 발생하면서, 2014년 이후 항공 부문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2차전지, 디스플레이 등의 분야에서 확대되는 한국 기업의 수요를 일본 기업들이 따라잡기 위해 한국에서의 생산·판매능력의 확장이나 R&D 센터 구축에 나선 추세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2023년 3월 이후 일본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대한 투자 사례를 살펴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앵커기업으로 있는 경기도 남부권의 반도체 클러스터²에 투자한 사례들이 관찰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고객 기업으로 둔 일본의 소부장 기업들이 투자한 것으로, 알박(アルバック), 도쿄일렉트론, TOK, 아데카(ADEKA), 스미토모화학(住友化学)의 사례가 이에 해당된다.

발표시점	기업명	개요
2023년 4월	아데카(ADEKA)	• 화성시에 연구소 사옥 매입 ³
2023년 5월	알박(アルバック)	• 경기도와 반도체 장비 기술개발 연구소 설립에 대한 투자협약 체결
2023년 5월	TOK	• 경기도와 포토리지스트 공장 설립에 대한 투자협약 체결
2023년 11월	스미토모화학(住友化学)	• 판교시에 반도체 재료 관련 연구시설을 신설. 2024년 하반기 가동 예정 ⁴
2024년 1월	도쿄일렉트론	• 용인시에 연구시설 건립을 위한 토지 매입

1 한편, 2019년과 2020년에 한일 롯데 그룹 간의 주주 이동에 따라 각각 4억 823만달러, 1억 4343만 달러 규모의 단건 투자가 발생했는데, 이 투자들이 없었다면 2019년과 2020년의 투자규모는 더욱 감소했을 것으로 보인다. (JETRO)

2 2023년 3월 윤석열 정부는 미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전국에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산단)’를 조성을 발표했고, 그 중 경기도 용인에는 신규 지정된 첨단산단을 중심으로 2042년까지 300조원이 투입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한다고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의 소부장 기업들을 대거 유치하겠다고 언급했다.

3 이외에도 아데카는 생산거점인 완주군에 반도체 소재 공장을 신설하기로 했다. (24년 3월 발표)

4 스미토모화학은 24년부터 평택공장에서 디스플레이용 소재인 편광판 생산라인을 감축하기로 하고, 컬러필터 공장은 일부 폐쇄하기로 했다. 한편 익산에 반도체용 세정약품 공장을 신설하기로 했다. (24년 4월)

EV, 2차전지와 관련해서 오릭스(オリックス), 아사히카세이(旭化成), 더블스코프(ダブルスコープ) 등의 투자사례가 있었다.

발표시점	기업명	개요
2023년 7월	오릭스(オリックス)	• 한국의 EV 충전 솔루션기업 「EVAR」에 출자
2023년 10월	아사히카세이(旭化成)	•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일본 미야자키현 휴가, 한국의 평택 등 한미일 3국에 위치한 분리막 공장 증설
2024년 4월	더블스코프(ダブルスコープ)	• 충청북도 - 음성군과 이온교환막 생산공장 건설에 대한 투자협약을 체결

이외의 제조업 부문에서 미쓰비시전기(三菱電機), 도레이(東レ)의 투자사례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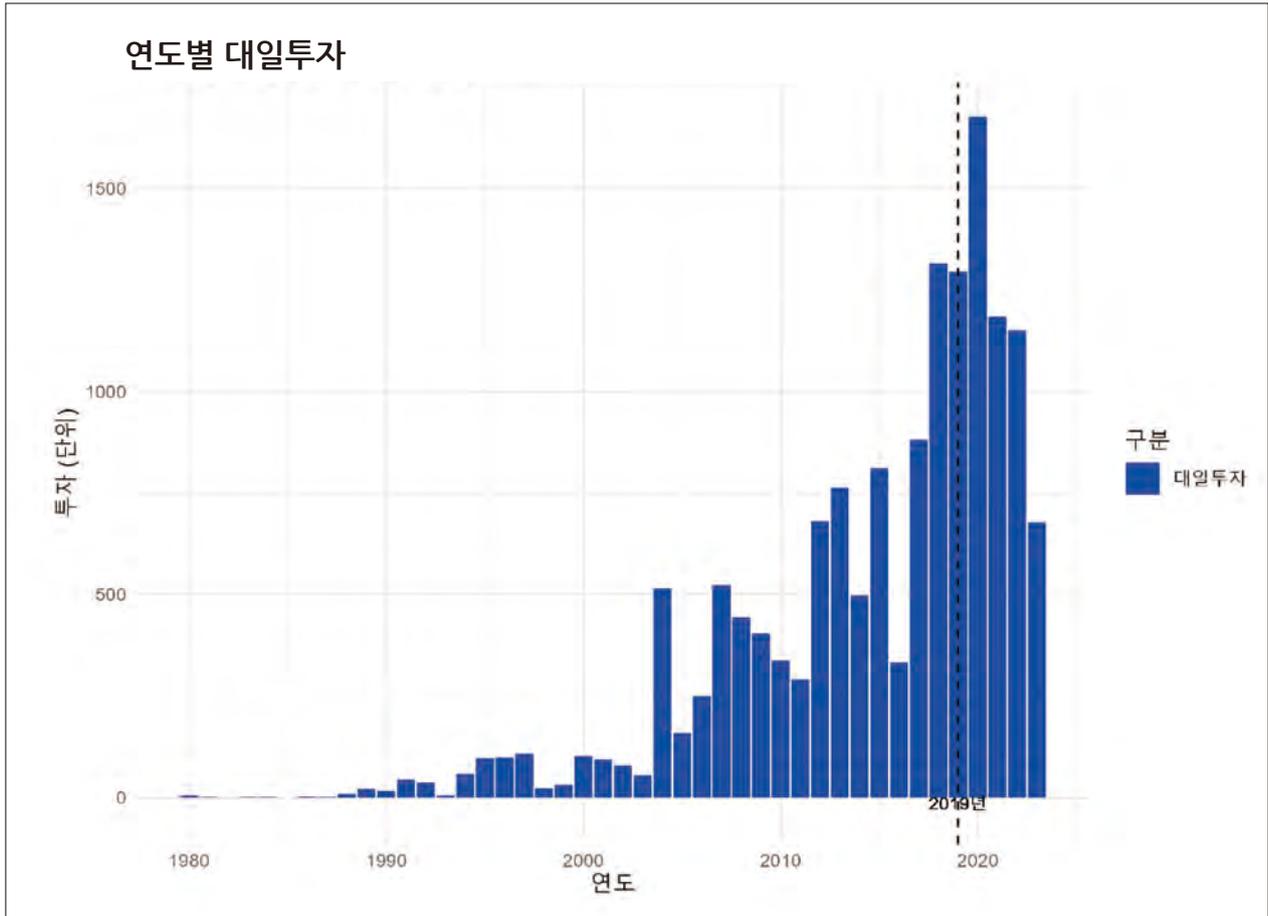
발표시점	기업명	개요
2023년 5월	미쓰비시전기(三菱電機)	• 한국 소프트웨어 기반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자부품 장비 모션제어 기술회사 「모벤시스」에 전략적 투자
2023년 7월	도레이(東レ)	• 경북 구미공장에 탄소섬유 생산설비를 증설
2024년 2월	도레이(東レ)	• 현대자동차와 전기차 신소재 관련 협력 계약을 체결하고, 구미 공장에 전기차의 구동모터에 활용되는 아라미드섬유 생산 라인을 증설

② 한국의 대일직접투자

2019년 이후 한국의 대일 직접투자 추이를 살펴보면, 2020년에 대일직접투자가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슬라이드 4). 2020년 부동산업에서 9억 4천만달러의 투자가 발생했는데, 이 시기 대기업에 의한 8억 9천만달러 규모의 투자가 발생했다. 이후 부동산업 투자가 다시 예년 수준으로 회복하면서 대일직접투자 규모도 이전 수준으로 돌아왔다.

2023년 한국의 대일직접투자는 6억 7천만달러로 2022년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는데, 업종별로 살펴보면 금융 및 보험업,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분야에서 감소세가 나타났다. 다만 신규법인의 진출이 역대 두번째로 많은 266건을 기록했는데(2017년이 268건으로 최대, 2022년에는 159건), 이는 스타트업 분야에서 한일 간 협조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한국 스타트업 기업의 일본진출이 활성화된 결과로 보인다.

한일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스타트업 분야에서 협력을 약속한 이후 중소벤처기업부와 일본 경제산업성 간 한·일 '벤처·스타트업 공동투자 펀드'를 추진중에 있다. 신한금융그룹이 한국과 일본의 스타트업에 투자하기 위해 500억원 규모의 투자펀드 조성에 나서고, 한일미래파트너십재단이 2024년 4월 도쿄에서 '한일 스타트업 협력포럼'을 공동개최 하면서, 재계에서도 스타트업 기업의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일본이 2022년을 '스타트업 창출의 원년'으로 선언하고 '스타트업 육성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해외 기업 유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가운데



슬라이드 4

양국 정재계의 지원이 이어지면서 한국 스타트업의 일본 진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3년 3월 이후 한국 스타트업의 일본 진출 사례는 다음과 같다.

발표시점	기업명	개요
2023년 7월	알리콘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 알리콘, 일본의 이동통신사인 라쿠텐 모바일과 협업
2023년 11월	뤼튼테크놀로지스 (AI)	• 일본 법인을 설립, 2024년 5월에 일본어 버전 생성형 AI 서비스 앱을 출시 예정
2024년 1월	EVAR(EV 충전 솔루션)	• EVAR, 일본 제조업 지원 서비스 기업 WILLTEC 과 현지 PoC(Proof of Concept)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2024년 4월	업스테이지 (AI)	• 자사의 경량 언어모델 (sLLM) 의 일본어 버전 개발을 완료하고, 상반기 내 출시 예정

스타트업 진출 사례 이외에도, 2023년 4월 SK는 일본의 소부장 기업 투자를 위한 1,100억원 규모의 펀드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2023년 12월 삼성전자는 요코하마에 400억엔 규모의 차세대 반도체 R&D 거점 신설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삼성전자의 투자건은 2023년 5월 한일정상회담에 따른 결과로, 일본정부가 200억엔을 보조하기로 했다.

3. 공급망, 첨단과학분야, IPEF, CPTPP 등

3-1. 공급망

①반도체공급망

위의 일본의 대한직접투자 사례에서 보이듯 한일간 반도체 공급망은 일본의 소부장기업들에 의해 주도되었다. 2023년 이후 이러한 투자증가에는 한일 정부간의 관계개선 또한 영향을 끼쳤다고 보인다.

다만 일본 기업의 투자를 이끈 한일 정부간 관계 개선을 경제안보라는 시대적 배경과 분리해서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경제안보 시대 속 첨단 반도체 제조를 둘러싸고 미-중 디커플링이 발생하면서, 한일 기업들 입장에서는 한미일 협력체계 안에서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할 메리트가 증대되었다. 2022년 미국의 CHIPS 법,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제정과 대중(對中) 반도체 수출규제 강화는 한국 반도체기업(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게 미국과 중국 중 '양자택일' 을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포함한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대미 투자 확대 계획을 보면 한일 반도체 관련 기업 간 산업협력은 '협력무대' 가 한·중에서 한·미·일로 급선회할 것으로 전망된다⁵. 결국 한일 정부 간 관계개선도 경제안보 시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흐름에 따라 증대되는 한미일 협력체계의 필요성을 절감해 추진된 결과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위에서 소개한 양국 기업간 협력사례 이외에도 반도체 시장을 둘러싸고 경쟁구도가 전개되는 사례도 관찰된다⁶. 낸드플래시 시장에서는 2023년에 시장점유율 3, 4위 업체인 미국 웨스턴디지털(WD)과 일본 키옥시아와 간의 합병이 키옥시아의 주요 투자자인 SK하이닉스의 반대에 의해 무산되었다. 양사의 합병은 경제안보의 관점에서 미일 양국의 개입 하에 진행되었지만, 낸드 시장 내 입지약화를 우려한 SK하이닉스는 합병에 동의하지 않았다⁷.

일본의 반도체 정책에 따른 추진정책이 한국 내 반도체기업에게 위협요인으로 작용되는 사례들도 관찰된다. 일본의 반도체 정책은 2023년 6월 개정된 일본의 반도체 정책 “반도체 디지털산업 전략(이하 반도체 전략)”을 중심으로 전개되는데, 반도체 전략의 STEP1: “국내 반도체 공급망 기반 강화” 관련정책에 따라 「5G 촉진법」 및 「NEDO법」을 개정하고, 반도체기금을 활용한 첨단반도체의 제조기반 확충에 나서고 있다⁸. 이 보조금 정책에 따라 한국 반도체 기업의 경쟁자라 할 수 있는 TSMC의 구마모토 공장, 마이크론의 히로시마 공장, 키옥시아의 윗카이치 공장에 2023~24년에 걸쳐 각각 최대

5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 (연구보고서) 한일 반도체 전략 및 협력방안

6 반도체 시장 이외에 EV 관련 시장에서도 한일 기업 간 경쟁 사례가 관찰된다. 테슬라가 채택한 전기차 배터리 규격인 4680 원통형 배터리 개발을 둘러싸고 파나소닉과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간 주도권 싸움이 진행중이고, 차세대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개발을 둘러싸고 도요타와 삼성SDI 간 경쟁이 진행중이다.

7 2023년 3분기 NAND 시장점유율은 삼성전자(31.4%), SK하이닉스(20.2%), WD(16.9%), 키옥시아(14.5%), 마이크론(12.5%) 순이었다. 키옥시아와 WD가 합병된다면 SK하이닉스의 입지가 축소되는 상황이다.

8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 (연구보고서) 한일 반도체 전략 및 협력방안

7320억엔, 1670억엔, 1500억엔 규모의 보조금이 승인되었다.⁹

또한 일본은 반도체 전략 STEP 2: “미·일 협력을 통한 차세대 반도체 기술기반 확립” 관련 정책으로 LSTC와 Rapidus를 중심으로 하는 “차세대반도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차세대 반도체(2nm 이상)의 짧은(短) TAT(Turn Around Time) 양산기반체제의 구축실현을 위해 ①첨단설계, 첨단장치·소재의 요소기술과 관련된 개방적인 연구개발거점으로서 LSTC를, ②미래 양산체제 구축을 염두에 둔 양산제조거점으로서 라피더스(Rapidus)를 설립하는 것이 프로젝트의 내용이다.¹⁰ 향후 2nm이상의 차세대 반도체 시장에서 일본의 LSTC/Rapidus와 한국의 삼성전자의 경쟁이 예고되는 상황이다.

한편 일본의 정부계 펀드인 산업혁신투자기구(JIC)가 반도체 소재인 포토레지스트 점유율 1위 기업 JSR을 매수하면서, 일본 정부가 반도체 소재시장을 재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024년 4월에 JIC의 자회사 JIC 캐피탈을 통한 JSR의 9천억엔 규모의 TOB(주식공개매수)가 성립되었다. 일본 기업간 서로 점유율을 빼앗는 반도체 소재 업계를 재편하면서 수익성을 끌어올릴 필요성이 있다는 일본 정부의 인식이 매수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계 펀드인 JIC(산업혁신투자기구)가 유일한 주주가 되는 JSR에 다른 소재업체가 통합될 경우, 자칫 한국과 중국의 고객기업들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일본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②수소·암모니아 공급망

수소·암모니아 공급망 부문에서도 한일 간 협력이 확대되고 있다. 한일 정부는 모두 수소를 친환경적 에너지원으로 간주하고, 성장전략 및 에너지 안보의 관점에서 수소 산업을 중시하고 있다. 한일 양국은 다른 나라와 송전망이나 파이프라인 등 에너지 인프라가 연계되지 않아 화석연료와 수입 에너지에 대해 높은 의존도를 지니고 있고, 국내에서 저탄소화 연료의 생산비용이 높아 해외에서 수소를 대량으로 조달해서 국내로 운송하는 글로벌 수소 공급망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¹¹.

수소·암모니아와 관련한 에너지 안보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정부간 공감대도 형성되는 분위기이다. 2023년 11월 APEC 정상회담 중 열린 한일 정상 간 좌담회에서 기시다 총리는 “일한이 중심이 되는 ‘수소·암모니아 글로벌 가치사슬’의 구축을 제창하고 싶다.”고 발언하면서 한일 간 수소·암모니아 공급망을 구축할 뜻을 밝혔다. 2024년 4월 한국과 일본 산업통상장관이 6년만에 정식 회담을 갖고 한일 공급망 안정화 협력 강화와 경제 교류 확대에 합의했다. 이 자리에서 국장급 한·일 수소협력 대화를 통해 청정수소와 암모니아 분야 현안 논의를 지속하기로 합의했다.

9 2022년에도 각각 4760억엔, 465억엔, 929억엔의 보조금이 승인되었다. (경제산업성 半導体に關する 最近の政策動向について)

10 경제산업성, 半導体・デジタル産業戰略の現状と今後

11 한일수소경제 산업전략 및 협력방안

수소 · 암모니아 공급망 관련 한일 정부 간 주요 협력 사례는 다음과 같다.

날짜	개요
2023년 5월	•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제산업성, 6년만에 '제 2차 한일 에너지 협력 대화' 재개
2023년 7월	• 한국가스공사와 일본의 에너지 주식회사 JERA, LNG 밸류체인에서 메탄 배출을 줄이기 위한 "Clean" 이니셔티브 출범
2023년 11월	• APEC 정상회담 참석 계기 스탠퍼드대학교에서 한일 정상 좌담회 개최
2024년 4월	• 한일 산업장관, 6년만에 정식 회담

2023년 3월 이후 한일 기업 간 수소 · 암모니아 제조, 수송 등 공급망 관련 협력 사례는 다음과 같은데, 일본의 종합상사와 한국 기업이 협력하는 경우가 관찰되고 있다.

날짜	기업	개요
2023년 12월	마루베니(丸紅) - 삼성물산	• OQ(오만 에너지 공기업), Dutco(UAE 복합기업) 등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오만에서 그린 암모니아 사업 개발 계약 및 토지 사용권 계약을 체결
2023년 12월	미쯔비시상사(三菱商事) - SK Innovation	• 양사가 투자한 미국기업 아모지의 암모니아 분해 기술을 활용한 대규모 수소 수송 사업에 관한 협업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공동 조사를 실시
2024년 2월	상선미쓰이(商船三井) - HD 한국조선해양, 현대글로벌비스	• 상선미쓰이는 HD 한국조선해양, 현대글로벌비스, 호주 Woodside Energy사와 양해각서를 체결해 3사가 먼저 2022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액화수소 운송 밸류체인 개발협력에 참여

날짜	기업	개요
2023년 4월	이데미츠코산(出光興産) - 한국전력공사	• 일본 및 한국에서 블루, 카본프리 암모니아 공급망 구축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
2023년 4월	치요다화학(千代田化工) - 삼성물산	• 수소 수송 사업에 관해 MOU를 체결

수소 시장에서 한일기업의 경쟁사례 또한 관찰되고 있다. 액화수소 운반선 시장에서, HD 한국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이 액화 수소 운반선 관련 기술개발을 가속화하면서 업계 선두인 가와사키중공업을 추격하고 있다.

3-2. 첨단과학분야 협력

한미일 연대 속 3국 간 첨단과학기술 분야의 협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2023년 8월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는 한미일 3국 간 인공지능(AI), 양자, 바이오, 차세대 정보통신, 우주 등의 분야에서 국가연구기관 간 공동 연구개발과 인적교류 확대에 나서기로 했다. 2023년 11월 한일 정상 간 좌담회에서는 기시다 총리는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제휴는 변화하는 일한 관계를 상징하는 영역이 되었다. 일한, 일미한이 연계해 세계를 바꿔 나갈 것" 이라고 강조했다.

2023년 6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부과학성은 2019년 이후 처음으로 국장급 회담을 진행해 양자, 우주, 바이오,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기술 분야에서 구체적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2023년 8월 한미일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로 ① 2023년 1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국 국가핵안보청, 일본 내각부 과학기술혁신회의와 함께 3국의 연구기관 간 협력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체결, 국책연구기관 간 공동연구와 인력교류를 강화하는데 합의했고, ② 2024년 3월에 반도체, AI, 바이오 등의 기술 보호를 위한 한미일 혁신 기술 보호 네트워크가 출범했다.

① 양자

2023년 8월 한미일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로 2024년 1월 시카고대, 서울대, 도쿄대 등 3국 대학 간의 ‘양자 협력’ (Quantum Partnership) 합의를 발표되었다. 세 대학은 양자과학 및 공학 분야에서의 학술 교류와 공동 연구를 위한 상호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2024년 3월,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이 일본 산업기술종합연구소(AIST)와 양자 분야 협력 확대를 포함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23년 11월 한일 정상 간 좌담회에 따른 후속 조치였다.

② 우주

2023년 12월 과기정통부 1차관이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를 방문해 대학, 연구소간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등 우주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후 한미일 전략기술 공동연구 협력 논의를 위해 일본 내각부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CSTI)와 동경대를 방문했다.

③ 바이오

2023년 4월 한-미 클러스터 라운드 테이블에서 송도에 구축중인 ‘K-바이오 랩허브’와 미국 클러스터의 운영주체인 ‘보스턴 랩센트럴’ 간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23년 5월, 중소벤처기업부와 일본의 바이오 클러스터인 아이파크 인스티튜트(iPark Institute)는 한일 양국의 바이오 클러스터 협력 추진에 합의, 2023년 11월에 ‘첨단바이오 벤처, 스타트업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④ 보건

2023년 7월 코이카(한국국제협력단) - 미국국제개발처(USAID) - 자이카(JICA, 일본국제협력기구) 등 3국의 공여기관이 가나 정부의 2030 보편적 건강보장(UHC) 목표 달성과 글로벌 보건안보를 위해 3자 협력하겠다는 업무협약체약을 체결했다.

3-3. IPEF, CPTPP

① IPEF

2022년 5월 23일,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도쿄에서 개최된 미일 정상

회담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협력과 안정, 번영, 발전, 평화’ 를 추구한다는 목표 아래 IPEF를 공식적으로 출범했다¹².

IPEF는 기존 상품과 서비스 시장 개방 및 무역 확대를 주목표로 하는 전통적인 무역협정과 달리 공급망의 안정화, 첨단기술·산업과 디지털 무역, 에너지 분야 등 신통상 의제 중심의 협력을 추구하는 새로운 형태의 경제협력체다. ①무역, ②공급망, ③청정경제, ④공정경제의 4개의 필라(pillar)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① 필라별 선택적 참여가 가능하고, ② 기존 FTA의 핵심인 시장접근권(market access)이 없고, ③ 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협정인 것이 특징이다.

2023년 5월에 필라2(공급망)에 관한 협정이 타결되었다. 2023년 11월 APEC 정상회의 기간에 필라3(청정경제), 필라4(공정경제) 협정 타결에 합의하면서 4개의 필라 중 무역 부문을 제외하고 모든 부문에서 협정이 타결되었고, 참여국들의 핵심 광물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핵심 광물 대화체(Critical Mineral Dialogue)를 발족했다. 2023년 5월 타결된 필라2 공급망 부문의 경우, 일본을 시작으로 미국, 싱가포르, 피지, 인도가 비준서를 미국 상무부에 기탁하면서 2024년 2월 24일 정식으로 발효되었다. 한국에서도 2024년 4월 17일에 공식 발효되었다.

일본은 IPEF 협상 초기 과정보터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주도적 역할을 맡고 있고, 역내 가치사슬의 구축 과정을 이끌고 있다. 특히 필라3 청정경제 부문에서 신흥국들의 탈탄소 정책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2000만 달러 규모의 기금설치를 약속하는 등 탈탄소 관련 자원들의 공급망 구축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다. 일본이 국내적으로 수소를 미래의 필수 불가결한 에너지원으로 인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일본이 역내 핵심 자원 공급망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인태지역 전략인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규범과 규칙에 기반한 인도·태평양지역 질서 구축을 인태전략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유사입장국(like-minded states)들과의 연대와 협력에 전략적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 특히 한미일 3자 협력이 한국의 인태협력 추진을 위한 핵심적 메커니즘으로 제시되고 있는 만큼, 한일 협력이 IPEF 내 한미일 협력의 메커니즘 속에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IPEF가 필라별 선택적 가입을 허용하고 있고, 구속력 있는 협약이 아닌 만큼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특히 기존의 FTA와는 달리 관세 인하나 시장 접근에 대한 조항이 없어, 메가 FTA인 CPTPP나 RCEP에 비해 가입에 따른 실질적인 이점이 애매모호하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이에 더해 2023년 APEC 정상회의는 IPEF의 장래의 불확실성이 명백하게 노출되는場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2023년 11월 미국이 개최하는 APEC 정상회의에서 IPEF의 모든 부문에 대한 실질적인 합의와 진전이 발표될 것으로 기대되었지만, 미국 민주당 내 일부 의원의 반대로 인해 필라1 무역 부문에

12 IPEF의 가입국은 미국, 일본, 인도, 한국, 호주,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뉴질랜드, 브루나이, 피지다.

대한 협정안 발표가 연기되었다.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내 정치적 요인을 더 우선순위에 두는 모습을 보이며 아태지역에 대한 미국의 지지가 의문시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또한 유력 미국 대선 후보인 트럼프가 자신이 당선되면 IPEF를 탈퇴하겠다고 선언하면서 IPEF를 둘러싼 전망은 더욱 불투명해졌다.

② CPTPP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은 무역을 포함한 경제전반에 기준이 높은 규범을 제정한 것이 특징으로 2018년 12월 발효했다. 11개 가입국으로 구성되어 있다가 2023년 7월 영국이 가입하게 되며 가입국은 12개국이 되었다¹³.

한국은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CPTPP 가입을 추진했다가 무산되어 CPTPP 가입이 윤석열 정권의 과제로 넘어온 상태이다. 다자간 FTA인 CPTPP는 시장 개방 수준이 거의 100%에 달해 국내 농어업권에서 반대가 컸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 임기말 CPTPP 가입을 추진했다가 무산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IPEF, CPTPP, RCEP을 아우르는 ‘중추국 전략’을 수립하며 정권 출범 이전부터 CPTPP 가입을 추진했다. 다만 농어민들이 결사 반대한 데다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해제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잠정 보류되었다가 한일재계회의(한경협, 경단련)가 한국의 CPTPP 가입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공표하면서 2024년이 되어서야 한국의 CPTPP 가입이 다시 추진력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 정권시절에는 한일 정부 간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으며 일본은 은연중에 한국의 CPTPP 가입을 반대했다. 그러나 최근 일본이 한국의 CPTPP 가입을 다시 희망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¹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일 관계가 크게 개선되면서 양국의 경제협력도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에 대비해 한국을 포섭해 CPTPP의 규모를 키우고 싶어 한다는 분석도 있다. 다만 최근 한국의 총선에서 야당인 민주당이 압승을 거둔 정치적 상황에서 CPTPP의 가입 추진은 다시 어려운 국면을 맞이했다.

4. 전망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한일관계는 자금협력, 기술협력, 통화협력, 잃어버린 10년을 거쳐, 2023년을 기점으로 새로운 stage에 진입했다고 생각됨.

-경제관계에 있어서 한일간 직접교역(무역, 투자) 규모는 줄어들거나 회복하고 있지만, 공급망, 첨단분야, 새로운 통상질서의 구축에 있어서의 새로운 관계설정의 공간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음.

-다만 과거와 같이 일본이 한국에 호혜를 베푸는 방식(자금협력, 기술협력, 통화협력), 또는 국가가 주도하는 협력의 형태는 감소하고, 산업구조와 기업간

13 일본, 멕시코,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베트남, 페루, 말레이시아, 칠레, 브루나이, 영국

14 <https://www.seoul.co.kr/news/international/japan/2024/04/24/20240424006004>

관계에 따라 협력과 경쟁이 중층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경제안보 시대자체는 '큰 정부 시대' 가 도래했음을 의미하지만, 한일 모두 기업의 모티베이션과 인센티브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정책적 연대가 쉽지 않을 수 있음.

-한일 경제 협력의 의제를 생각할 때, 총선이후 한국의 여소야대 상황, 일본의 리더십 교체 이후의 상황, 미 대선에서 트럼프가 귀환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협력의 시나리오가 필요함.

* * *

당일 보충 의견: '라인야후 문제' 에 대해

그 다음으로 첨단 과학 분야 협력에 대해 보충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디지털이나, 우주, 바이오, AI입니다만 워낙 최근에 라인 사태 관련해 몇 주 사이 핫 이슈가 돼 자료에 없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부분은 협력이 굉장히 어렵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라인 사태를 보면서 느낀 두 가지 문제점 중 하나는, 지금 기업의 입장, 즉 네이버, 소프트뱅크 입장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업의 복잡한 경영 전략과 셈법이 블랙박스라 돼 있기 때문에, 각종 억측이 난무하고 해석의 영역에서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어 가짜 뉴스가 양산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 가지 문제점입니다.

두 번째로 정보 유출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인식 차이가 너무나 큼니다. 한국 언론들은 2023년 11월 정보 유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네이버라인 측 정보 유출이 몇 차례 더 있었고, 더 중요한 게 2021년 3월 정보 유출입니다. 그때 중국 다렌 네이버 데이터센터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중국인 직원 네 명이 일본인 유저들 정보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이 문제가 됐습니다. 2017년 중국에서는 국가정보법이 제정됐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영토 내 모든 기업 데이터를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점이 일본에서 굉장히 문제가 됐고, 정보 유출을 대하는 민감도에서 한일이 굉장히 다르다는 점도 문제인데, 이번 사태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본질적인 축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경제안전보장이슈입니다. 일본은 2022년 5월 '경제안전보장추진법' 이 통과되고, 2023년 11월 '특정사회기반사업자' 를 선정했습니다. 거기에 라인야후가 선정됩니다. 라인야후는 경제안전보장 담당 대신이 특정 시설을 들여오거나 위탁할 때 사전 보고해야 되고 심사를 받아야 하는 상태입니다. 다만 6개월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그 유예기간이 5월 17일 끝났습니다. 2023년 11월 17일 라인야후가 지정됐기 때문에 2024년 5월 16일에 유예기간이 끝나서, 5월 17일부터 총무성이 아니라 경제안전보장 대신 다카이치 사나에씨가 직접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총무성이 이례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지분 조정 뉘앙스를 풍긴 것은, 새로 바뀌는 프로토콜에 대한 경고가 있지 않음에 생각해봅니다.

또 한 가지는, 사실 이 부분이 더 중요한데, 한국과 일본은 디지털 우방이

아닙니다. 일본은 지금 전세계에서 가장 디지털 자유무역도가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CPTPP에 ‘디지털 3원칙’ 이 있습니다. ‘미일 디지털협정’ 도 맺었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 사이에서는 디지털 월경이 가능합니다. 국경을 넘어 데이터 이동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일본에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고, 구글이나 오라클, 아마존 등이 한국에서 총선이 있었던 4월 10일 미일정상회담에서 데이터와 같은 첨단 분야에 미국이 투자를 하겠다고 이야기했고, 실제 34조 원 이상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가운데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원래 협력을 한 이유가, 두 회사의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소프트뱅크 입장에서 네이버가 개발하고 있는 AI에 투자하지 않고 독자 개발을 하기로 했습니다. 손정의 사장이 10조 원을 투입한다고 했고, 일본 정부도 보조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데이터 주권이라는 측면에서, 미국과 일본은 서로 데이터 센터를 지을 수 있고, 일본은 독자적으로 AI를 개발하기 때문에 네이버하고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헤어질 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것을 돌파하려면 ‘한일 디지털협정’ 을 맺거나 한국이 CPTPP에 가입을 해서 결국에는 디지털 데이터 월경을 할 수 있는 ‘디지털 우방’ 이 되어 합니다. 그런데 이 사태를 불러온 가장 큰 원인은 지난 4년 동안 한일관계가 악화된 속에서, 일본은 경제안전보장을 추진하고, 그 법 위에서 라인야후가 특정사회기반사업자로 선정돼 가는 과정에서, 급격하게 한일관계가 개선되는 바람에 말뿐인 안보 협력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말로는 안보 협력을 했는데 시스템은 전혀 돼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즉 이혼하기로 얘기해서 지금 재판 중이나, 둘이 만나 갑자기 사이가 좋아진 것으로, 지금 재판은 진행되고 있는데, 심정적으로는 좋아진 상태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괴리를 어떻게 메우느냐가 앞으로의 관건입니다. 현재 이 시스템에서는 협력이 쉽지 않다는 게 핵심입니다. CPTPP 같은 소다자협력도 보호주의 경향이 강화되는 속에서 제대로 기능할 것인가 좀 의문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이후 한일 관계는 자금협력, 기술협력, 통화협력, 이렇게 거쳐오고, 2012년 8월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에 상륙한 이후 저는 ‘잃어버린 10년’ 이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2023년 새로운 스테이지에 진입했는데, 한일협력보다 협력의 주체가 한미일이 됐고, 경제안보시대를 맞이해 다양한 협력 의제들이 생겨나 오히려 협력할 수 있는 공간은 넓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과거와 같이 일본이 한국에 호혜를 베푸는 방식, 즉 자금협력, 기술협력처럼 일방적으로 호혜를 베푸는 방식이나 국가가 주도하는 협력의 형태는 감소하고, 산업 구조, 기업 간 관계에 따라 협력과 경쟁이 중층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경제안보시대 자체가 ‘큰 정부’ 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의미합니다만, 한일 모두 기업의 모티베이션, 그리고 인센티브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정책적 연대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제 1 부]
발표
3

한일관계 복원 1년, 평가와 과제 : 사회 · 문화



고하리 스스무 시즈오카현립대

[원문은 일본어. 번역 윤재언(릿쿄대)]

1. 레이와(令和)와 일한관계

오늘 제가 담당하는 부분은 사회와 문화입니다. 비교적 단순화해 알기 쉽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평가를 어떻게 봐야 할지 먼저 말씀드리고, 향후 과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레이와와 일한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은 지난주(2024년 5월 1일) 일본은 '레이와'로 연호가 바뀐 지 정확히 5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어떠한 문화적 변화가 있었는지, 각 언론이 모두 특집 보도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5년간 음악 동향을 정리한 '오리콘 레이와 랭킹' (4월 19일)에 따르면, 음악 소프트웨어와 디지털 작품 총 매출액을 집계한 '아티스트별 세일즈 부문' 종합 순위에서 일본 아티스트를 제치고 481.5억엔을 기록한 BTS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 5년을 생각하면, 일본에서는 처음 1년반이 아베 정권, 그 다음 1년이

韓国に対する「眺め」は？(2022年10月、大学生) 한국에 대한 '바라보기'는? (2022년 10월, 대학생)

㉑ 近くて遠い国(3) / 近い面と遠い面がある / 近くてこじれる国 / 近いけど知らない国 / 隣国だが仲が悪い国 / 日本と似ている国 / 日本と通じるところが多い

㉑ 가깝고도 먼 나라(3) / 가까운 측면과 먼 측면이 있다 / 가깝고 잘 안 통하는 나라 / 가깝지만 잘 모르는 나라 / 이웃나라지만 사이가 나쁜 나라 / 일본과 닮은 나라 / 일본과 통하는 점이 많다

㉒ 文化が発展している / 文化的交流は盛ん / 大衆文化流入 / 大衆文化が充実 / 韓ドラやK-POP / 令和の流行の発信地 / ドラマの中の世界 / 若者文化の発信地 / 文化最高、政治微妙 / 日本の若者の憧れ / 若者の流行の源泉 / 日本の流行の取入れ先 / 若者文化の発信地 / 新文化の創造 / 若者に人気 / K-POP、韓ドラ / 若者文化の最先端 / K-POPによる世界進出 / 文化大国

㉒ 문화가 발전되어 있다 / 문화적 교류는 활발 / 대중문화 유입 / 대중문화가 중심 / 한국 드라마나 K-POP / 레이와 시대 유행의 발산지 / 드라마 속의 세계 / 젊은 세대 문화의 발산지 / 문화는 최동경 / 정치는 미묘 / 일본 젊은 세대의 유행의 원천 / 일본이 유행의 원천을 만들어주는 곳 / 젊은 세대 문화의 발산지 / 새로운 문화 창조 / 젊은 세대에 인기 / K-POP 한국 드라마 / 젊은 세대의 문화의 최첨단 / K-POP을 통한 세계 진출 / 문화대국

㉓ 韓国語の音可愛い / おしゃれ、クール / 美容大国、韓国料理

㉓ 한국어의 소리가 귀엽다 / 멋있다, 쿨하다 / 미용대국, 한국 요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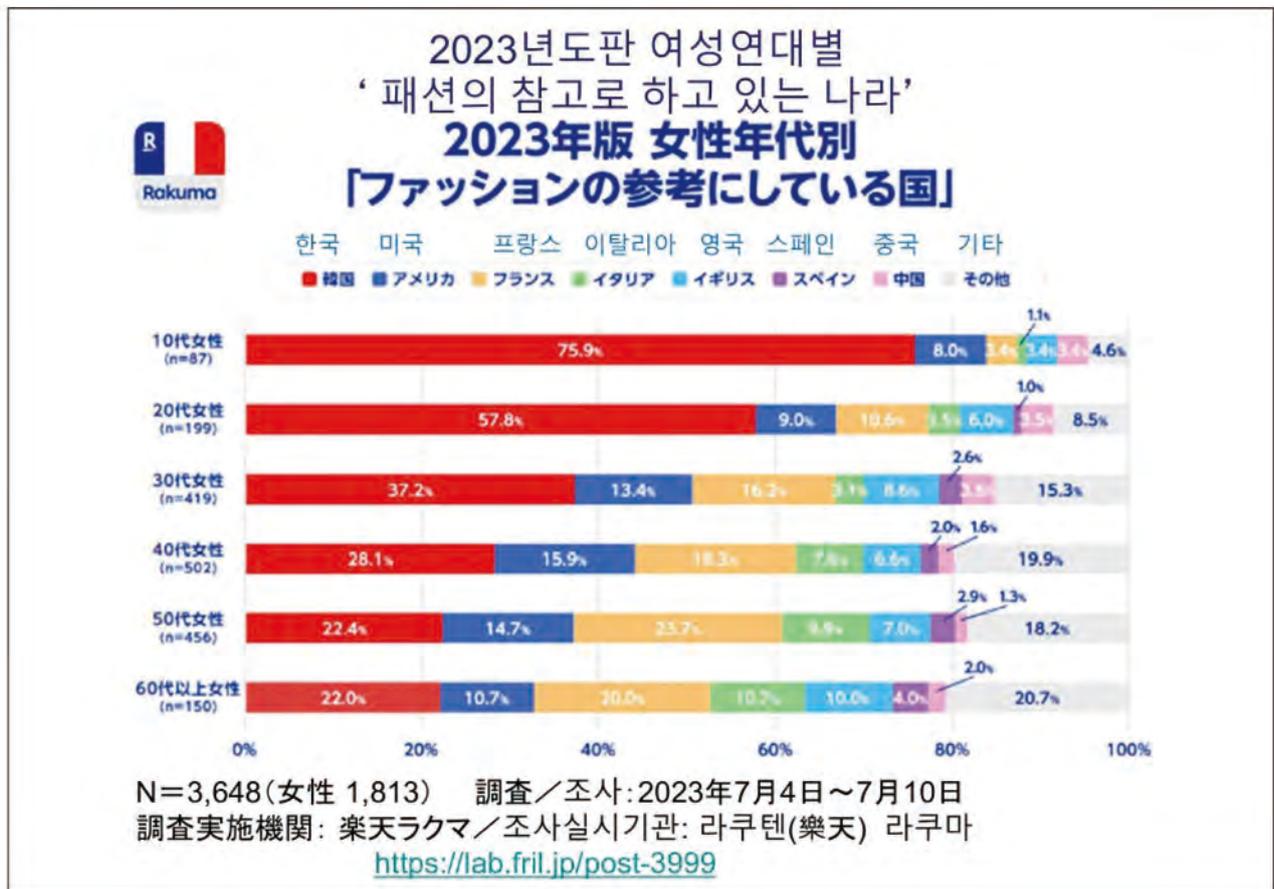
슬라이드 1

스가 정권, 그 후 2년 반이 기시다 정권입니다. 일한관계가 기시다 정권 중반 회복되었다고 하면, 레이와 5년 대부분이 소위 최악의 일한관계였던 셈입니다. 한국 측도 3년간 문재인 정권이었고, 윤 정권이 지난 2년간이었으니, 레이와 5년간은 ‘복원 전’ 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면 일본 사람들 인식 속에서 레이와는 어떤 시대인가. 한국을 향한 ‘바라보기’ 로만 좁혀보겠습니다. 레이와 시대 대학생들에게 한국에 대한 시각을 물어본 것이 슬라이드1입니다.

긍정적 부분도, 부정적 부분도 있지만, 흥미로웠던 것은 한국에 대해 ‘레이와 유행의 발신지’ 라는 이미지가 거론된 점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레이와 유행의 발신지’ 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매우 놀랐습니다. 물론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대답을 한 대학생도 있었다는 것이지만, 그렇다면 이러한 인식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일본과 한국의 정치·외교관계를 고려할 때, 2019년은 하나의 기점입니다. 그 이후 2022년까지는 아직 일한관계가 복원되지 않은 시기였는데, 2022년 일본에서의 수입 화장품 수입처 1위가 한국입니다. 2위는 프랑스입니다. 외교관계가 최악이었음에도 반비례하는 형태로 수입량이 증가했습니다. 게다가 2023년까지 대부분 시기는 일본에서 보자면 ‘코로나 시대’ 입니다. 이 시기에는 화장을 많이 하지 않았을 텐데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자국 화장품 수출처로서 일본이 높은 순위에 있었던 매우 특징적 상황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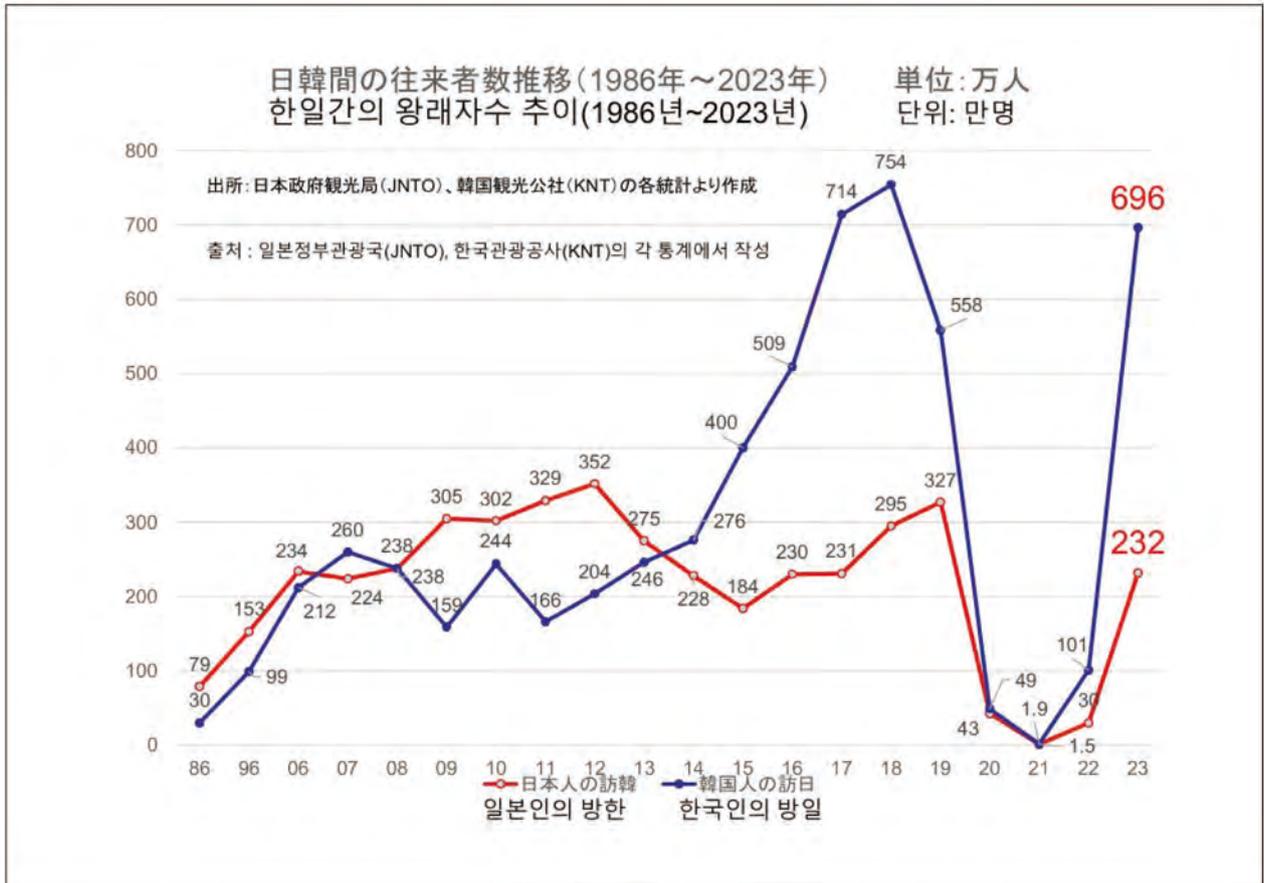


슬라이드 2

그리고 작년(2023년) ‘패션과 관련해 참고하는 나라’가 어디냐는 라쿠텐라쿠마(역주: 일본 온라인쇼핑몰)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10대부터 60대까지 일본 여성 어느 세대든 한국이 1위입니다(슬라이드2). 10대만 보면 2016년부터 2023년까지 8년 연속 한국이 1위입니다. 일본과 한국의 외교관계와 전혀 관계없이, 한국 상품을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교관계가 나쁠 때 화장품과 패션만 예외였냐 하면, 그렇지 않고 문화 측면에서 여러 긍정적 현상이 있었습니다. 물론 부정적인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을 혐오하는 책이 많이 출판되거나, 인터넷 댓글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기시다 총리와 윤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외교관계가 복원됐지만, 그 덕분에 이러한 문화 부문에서 좋아지고 있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지난 1년 급속하게 복원된 것이 아니라, 최악의 시기에 정치·외교관계와 별개로, 긍정적 현상이 다수 있었다는 점을 우선 평가의 하나로써 인식해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역시나 정치·외교관계 복원이 뒷받침되면서 문화 측면과 사회 측면도 좋아졌다, 거기에 인적 교류도 좋아졌다는 점도 적지 않게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스즈메의 문단속’이라는 애니메이션이 한국에서 히트를 쳤습니다. ‘THE FIRST SLAM DUNK’도 그렇고, 스튜디오 지브리의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도 굉장히 인기를 끌었습니다. 정치·외교관계가 나빴을 경우, 과연 일본영화를 보러 갈 것인가 가정하면 사람들 사이에 ‘꺼려진다’는 의식이 작용했을 것이지만, 이러한 의식이 없어졌기에 아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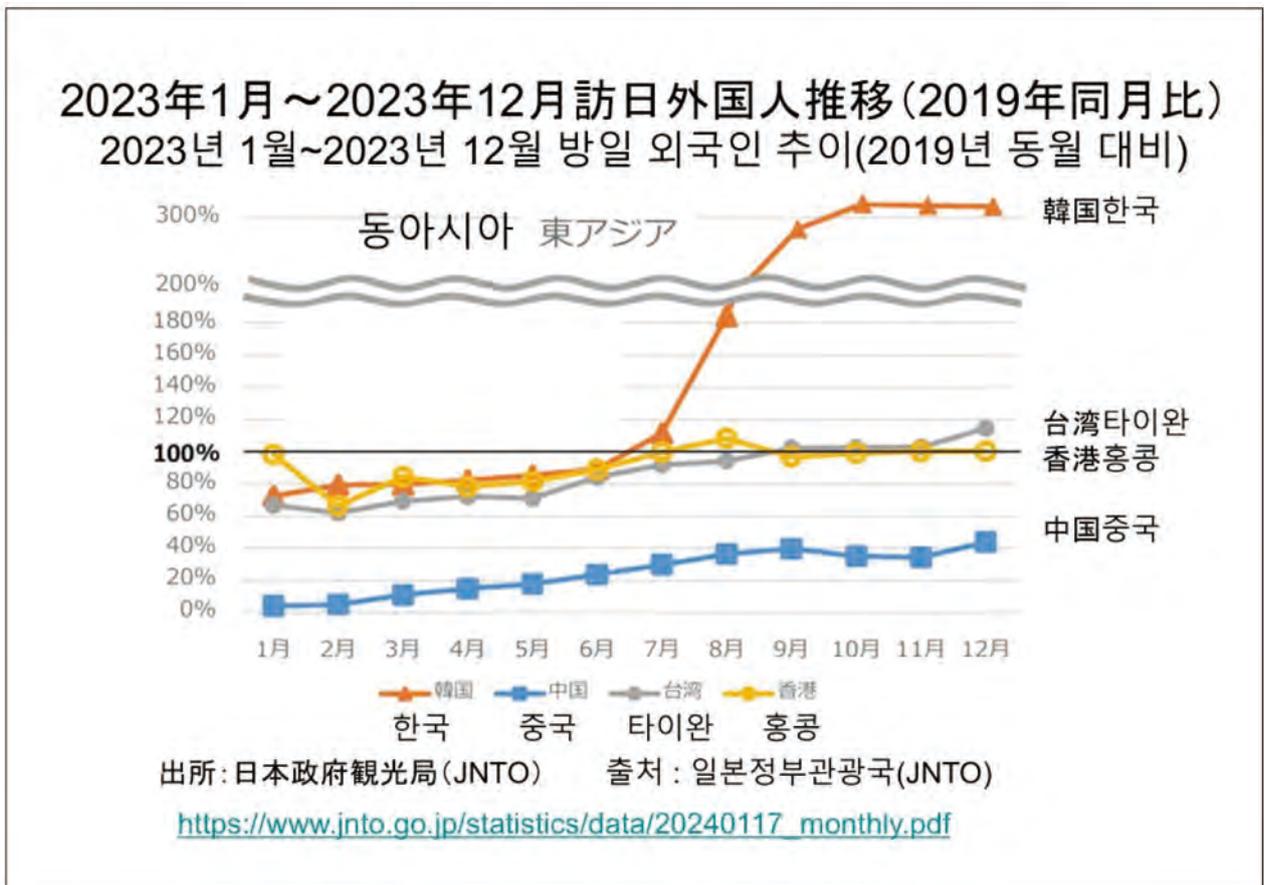


슬라이드 3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음으로 사람들의 이동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슬라이드3). 파란선이 한국인이 일본에 간 숫자입니다. 1986년부터의 흐름을 보면, 2014년까지는 2007년을 제외하고 일관되게 일본인의 한국행이 더 많았습니다. 인구 대비로 보면 당연한 일이지만, 2014년 이후 한국인의 일본행이 더 많아집니다. 2012년에 아베 정권이 출범했는데(박근혜 정권도 있었지만), 이 시기 일본 여러 곳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하면 ‘한국이 싫다’ 는 혐한 감정이 굉장히 고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일본으로 향하는 사람들의 흐름과는 완전히 반비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일본에서의 혐한)과 전혀 관계없이 한국 사람이 왔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2019년 똑 떨어집니다. 이는 수출규제 문제로 양국이 외교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했던 2019년 여름 ‘No Japan’ 운동이 컸는데, 분명히 이는 정치 · 외교관계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현재는 회복되어 작년 2023년 한국인의 일본 방문은 700만명 정도(일본인의 한국 방문은 230만명)가 되었습니다. 역시 정치 · 외교 관계가 좋아졌기에 오고 가기 쉬워졌다는 부분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에서 오는 일본 방문자와 비교해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일본측 통계인데(슬라이드4), 2019년 코로나 전과 2023년 1월부터 12월을, 2019년 각각 월별로 비교해 어느 정도 증가했는지를 나타낸 표입니다. 수출관리규제가 있었던 2019년 7월 이후 급격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비교하면 2023년 한국인만 300% 정도 올랐다고 하니 사람의 흐름만 단순화하면 역시



슬라이드 4

정치·외교 복원이 플러스 벡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여행을 간다고 할 때 “왜 일본에 가냐”고 묻는 사람은 아마 한국에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거부감이 없어진 것은 역시 정치·외교관계 복원의 영향이 컸다고 봅니다.

아래는 작년(2023년) 5월 조사로 윤 대통령을 신뢰할 수 있다는 수치가 일본에서는 43% 나왔습니다(슬라이드5). 2019년 11%와 비교하면 4배 가까이 높습니다. 한국인의 기시다 총리에 대한 수치도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한국인의 감정이라는 수치도 있었지만 여기에는 쓰지 않았습니다.

読売新聞・韓国日報 日韓共同世論調査 / 한국일보·요미우리신문 한일 공동 여론조사

	信頼できる 신뢰할 수 있다	信頼できない 신뢰할 수 없다
2023년 5월 조사 日本人が尹錫悦大統領に対して 일본인이 윤석열대통령에 대해서	43	40
2019년 5월 조사 日本人が文在寅大統領に対して 일본인이 문재인대통령에 대해서	11	75
2023년 5월 조사 韓国人が岸田総理に対して 한국인이 기시다총리에 대해서	25	69
2019년 5월 조사 韓国人が安倍総理に対して 한국인이 아베총리에 대해서	5	92

(2023년 5월 조사~N=日本1017, 韓国1000, 2019년 5월 조사~N=日本1028, 韓国1000)
(2023년 5월 조사~N=일본 1017, 한국 1000, 2019년 5월 조사~N=일본 1028, 한국 1000)

読売新聞 / 요미우리신문 2023년 6월 15일, 2019년 6월 11일

슬라이드 5

韓国に対する「親しみ」(%) / 한국에 대한 「친근감」(%)
外交に関する世論調査 (内閣府) / 외교에 관한 여론 조사 (내각부)
(2023년 9월~10월 조사 / 조사, N=1,649, 2019년 10월 조사 / 조사, N=1,608)

	全体 전체	全体 전체	男性 남성	女性 여성		
	2023	2019	2023	2019	2023	2019
	52.8	26.7	47.2	22.3	58.1	30.5
18~29歳	66.2	45.7	55.7	N.A.	74.1	N.A.
※20~29歳	66.1	N.A.	51.9	N.A.	76.4	N.A.
30~39歳	52.6	32.5	41.1	N.A.	62.7	N.A.
40~49歳	49.6	27.1	43.6	N.A.	56.5	N.A.
50~59歳	50.5	28.9	39.7	N.A.	60.8	N.A.
60~69歳	49.3	24.7	47.9	N.A.	50.6	N.A.
70歳以上	54.3	17.4	53.8	N.A.	54.7	N.A.

<https://survey.gov-online.go.jp/r05/r05-gaiko/#tablelist>
<https://survey.gov-online.go.jp/r01/r01-gaiko/>

슬라이드 6

**日本に「好感が持てる」と答えた人の割合
일본에 "호감이 있다"고 대답한 사람의 비율**

	2023年調査 2023년 조사	2019年調査 2019년 조사
タイ 태국	91.1%	95.7%
米国 미국	80.4%	82.6%
フランス 프랑스	81.5%	74.9%
英国 영국	71.1%	68.1%
韓国 한국	44.0%	22.7%
中国 중국	N.A. 調査不可 / 조사 불가	33.5%

出所: 公益財団法人新聞通信調査会調査(2020年2月7日発表、2024年2月17日発表)
출처: 공익재단법인신문통신조사회 조사(2020년 2월 7일 발표, 2024년 2월 17일 발표)

슬라이드 7

그리고 일본인의 한국에 대한 ‘친근감’ 을 조사한 일본 내 각부 여론조사(슬라이드6)에서는 전체를 보면 2023년 52.8%, 즉 과반수가 한국에 친근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2019년은 26.7%이기 때문에 2배 이상 증가한 셈입니다.

그런데 2023년 데이터만 보면 친근감을 많이 느끼는 세대는 20세에서 29세 사이 여성입니다. 76.4%로, 4명 중 3명이 한국을 좋아한다고 답했습니다. 아마 이들은 문화라는 관점으로 한국을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다. 반면 한국에 대해 가장 부정적인 사람들이라고 해야 할까요, 친근감이 낮은 이들은 50세에서 59세 사이 남성입니다. 친근감이 있는 응답자가 39.7%이니, 절반 가까이는 여전히 한국에 친근감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치·외교라는 관점으로 한국을 바라보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해 사람들의 의식이 바뀌려면, 상당히 여러 부분에서 정치·외교의 극적인 상황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좀처럼 어려울 듯싶고, 외교적 대립이 있던 시기의 영향이 굉장히 커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은 상당히 한국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집에 오면 아버지에게 “왜 고하리 선생한테 한국 같은 나라에 대해 배우느냐” 는 말을 듣는 가정이 있기도 합니다. 이것도 세대 대립이라는 측면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한편, 한국은 어떠한 상황인가 하면, 이것은 일본 기관이 조사한 자료입니다. 이를 보면 다른 나라에서 이뤄진 조사와 비교할 때, 한국인에 대한 조사에서 일본에 대한 친근감, 호감이 있다고 대답한 사람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슬라이드7). 그런데 2019년 22.7%와 비교할 때 2023년은 2배 정도 됩니다. 44%가 일본에 호감을 가지고 있는 나라를 두고 제가 ‘반일’ 이라 할 수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러한 변화가 나타난 것을 돌이켜보면, 지난 1년간 복원으로 인한 성과가 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 앞으로의 과제

먼저 한국 장미란 씨의 예를 살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씨는 운동 선수로 일본에서도 존경을 받는 분입니다. 이분이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입장에 서서, 일본 학생들의 수학여행 유지에 노력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는 매우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개인 여행은 특별히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수학여행이 좋은지 말씀드리면, 2012년까지만 해도 일본의 해외 수학여행지는 한국이 줄곧 1위였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고, 이어진 문재인 정권 하에서 수학여행지로 한국을 택하는 학교가 점점 없어졌습니다. 2019년 시점에서는 불과 1.2%입니다. 한국을 대신해 대만이나 싱가포르가 많아졌습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학생의 아버지들과 반드시 관련이 있지는 않겠지만, 수학여행은 아이들의 의사만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 같은 나라에 보내고 싶지 않다는 부모가 많아지면, 수학여행지에 대한 반대가 나와 갈 수 없게 됩니다.

이상과 같은 말씀을 실마리로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의 과제①: 정치·외교관계가 안정되지 않으면 문화 교류가 유지되어도, 인적 교류와 국민 의식에 막대한 부정적 영향이 있어 전체적으로 양호한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앞으로의 과제는 ‘개인’ 뿐만 아니라, ‘관’ 이나 ‘공’ 이 관련되거나 한국을 싫어하는 사람이 관여하는 것에 관해서도 역시 노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이 지금 일본 학생들의 수학여행을 다시 부활시키려 하는 것은 매우 좋은 움직임이라 생각합니다.

정치·외교에 관계없이 문화교류가 유지된다고 해도, 수학여행으로 대표되는 것처럼 정치·외교 악화가 인적 교류 등에 역시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지자체 간 교류 등도 많이 중단되었습니다. 이런 일은 있어서 안 되니,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문화 분야 관계가 좋아져도 정치·외교에는 별 영향이 없지만, 정치·외교 분야에서 좋아지면 문화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이 부분을 기본으로 삼는 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과제②: 새로운 일한공동선언은 필요한가. 그리고 새로운 비전(젠더, 저출산 고령화, 환경, 재해, 국제협력, 대북...)이란 무엇인가. 애초 선언을 내놓을 수 있는 정치환경인가.

새로운 ‘일한공동선언’ 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2부에서 이야기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한국 김대중 정권은 단순히 진보 정권이기보다 김종필로 대표되는 보수 세력과 함께 창출된 정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정치적 분극화가 진행되고 있는 한국에서 같은 일을 도모할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일본 내 ‘동아시아 공동체’ 라는 유화적인 논의 속에서 추진됐던 시기와의 상당히 다르고, 매우 현실주의적 감정을 가진 사람이 많아 좀처럼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과제③: 정치 · 외교 관계의 불안정기와 코로나로 놓치게 된 일들을 검증하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복원’ 또는 ‘발전’ 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

문제가 많았던 시기를 어떻게 검증하고 복원,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제대로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방금 이창민 선생님 말씀에 나온 라인야후 문제, 저도 이를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한국만큼 그렇게 시끄럽지 않습니다. 한국은 지금 굉장히 예민해져 있지만, 한국에서 네이버의 존재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제가 악화된다면 2019년보다 젊은 층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라인 은 95% 일본인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의 생명선(라이프라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지금 시험대에 올라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는 언론 보도 방식에도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도 언론에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검증해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태를 잘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슬라이드 8을 봐 주십시오. 2022년 9월 기사다 총리의 표정과 2023년 표정이 다른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2022년 시점에는 아직 한국에 대해 친근감을 느끼는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반년이 지나니 표정이 매우 밝아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별반 다르지 않지만, 다시 일본의 총리 표정이 2022년처럼 되지 않도록, 그리고 한국의 대통령이 더 웃어줄 수 있도록 사회문화적으로도 안정적인 모습을 이어가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p>일한정상간의 간담 日韓首脳間の懇談</p> <p>https://www.mofa.go.jp/mofaj/a_o/na/kr/page6_000746.html</p> <p>2022年9月21日</p>  <p>尹錫悅(ユン・ソンニョル)大韓民國大統領と握手する岸田総理 (写真提供: 内閣広報室)</p>	<p>일한정상회담 日韓首脳会談</p> <p>https://www.mofa.go.jp/mofaj/a_o/na/kr/page1_001529.html</p> <p>2023年3月16日</p>  <p>日韓首脳会談(少数人会合) (写真提供: 内閣広報室)</p>
<p>外務省ホームページ</p>	<p>일본 외무성 홈페이지</p> <p>(了/끝)</p>

슬라이드 8

[제 1 부]
토론
1

니시노 준야 선생님 발표에 대해

김 승배 국립부경대

[원문은 일본어. 번역 윤재언(릿쿄대)]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승배입니다. 니시노 선생님 발표를 듣고 코멘트하고자 합니다. 니시노 선생님은 ‘관계복원을 위한 움직임에 대해’, ‘관계복원 1년 성과에 대해’, 그리고 ‘과제’와 한일관계 복원에 관한 시기를 세 가지로 나누어 말씀하셨습니다. 발표에 대해 나름대로의 관점을 더해 코멘트하겠습니다.

1. 관계복원을 위한 움직임에 대해

관계복원을 위한 움직임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윤 대통령의 결단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최악의 한일관계’라는 교착 상태는 한국 측 정치적 결단에 따라 변화가 생겼습니다. 한일관계 개선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거의 체감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한일관계는 항상 유동적이기에, 지금 어떤 상태냐 하면 문제의 ‘전면적인 표면화’가 아니라 ‘일시적인 잠재화’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한일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볼 것인가를 생각할 때 수평적인 ‘한일관계론’으로 한일 양국을 보기보다 아마도 ‘일본이 보는 한일관계’가 있고, ‘한국이 보는 한일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2. 관계복원 1년의 성과에 대해

- 정치 분야, 정치안보 분야에 대한 포괄적 평가: 이와 관련해 니시노 선생님 슬라이드2 ‘관계복원 1년의 성과(정치·안보 분야)’나 슬라이드4 ‘한일정상회담·공동기자회견 내용(2023/3)’에서 지적된 바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 공공외교(public diplomacy): 윤 대통령의 게이오대 방문도 공공외교 일환으로 매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일본 정치지도자의 직접적 공공외교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현직 일본 총리가 한국에 가서 어떤 형태로든 학생들을 상대로 강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궁극적으로 공공외교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협동적 공공외교’가 바람직합니다. 이는 타국과의 협력을 통한 상호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고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외교적 노력을 의미합니다. 양국 관계를 강화하고 상호협력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 **국가적 행사와 정체성:** 한국에서는 적어도 일본에 대한 코멘트가 1년에 두 번 나옵니다. 그것이 니시노 선생님 슬라이드3 ‘윤 대통령 3.1절 연설, 일본 관련 부분 발췌’ 에서 예로 든 ‘3.1절’ 과 ‘광복절’ 입니다. 한국의 중요한 역사적 계기마다 일본에 대한 언급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 리더의 대일감정, 일본에 대해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나타납니다.

반면 일본에서는 일본인 전몰자 추모, 원폭과 평화 관련 담론 등 국가적 행사는 있지만, 한국을 의식하는 담론의 기회는 거의 없습니다. 일본헌법 전문의 ‘다시는 전쟁의 참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 ‘항구적인 평화’ 등 구절에서도 알 수 있듯, 일본의 경우는 ‘전쟁과 평화’ 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1948년 제헌헌법 전문에는 ‘기미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고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 , 현행 헌법에서도 ‘한국 국민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 이라는 문장과 같이 통일은 물론이고, ‘독립(주권)과 평화’ 를 의식하고 있습니다. 내셔널 아이덴티티에서도 이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보편적 외교 가치와 국내적 가치:** 윤 대통령 연설에도 있었지만, ‘민주주의’, ‘기본적 인권’ , ‘법의 지배’ 라는 세 가지는 매우 아름다운 말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이 용어는 이른바 ‘가치외교’ 를 내세우는 것이었고, 원래 지정학적 고려나 권위주의 국가의 부상을 의식한 민주 국가의 외교적 대의에 중점을 둔 것이었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말들이 양국 국내에서 어떻게 작용해 왔는지에 대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국내 문제를 성찰하거나 자국의 정치 상황에 대한 관점으로는 거의 작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3. 관계복원 후의 과제에 대해

니시노 선생님 슬라이드5 ‘관계복원의 과제(정치·안보 분야)’ 에 관해서는, 매우 중요한 여러 과제를 거론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다만 ‘한일 양국 간 안보협력 정체/미국 의존에서 한일 주도로’ 라는 부분에 대해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은 가능한데, ‘미국 의존에서 한일 주도’ 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과거에 있었던 유사동맹은 1969년 이후부터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포기하려고 할 때 작동했습니다. 다만 그 이론은 특정 시대에만 적용할 수 있는 설명 이론이었습니다. 앞으로 미국이 쇠퇴할 것이라는 전망 아래, 지금은 오히려 미국이 일본과 한국을 필요로 할지도 모릅니다. 일본 외교는 미국 없이 성립되지 않으며, 한국은 정권의 성격에 따라 미국과 거리감이 변화합니다. 한일 양국에게 미중관계가 한일관계의 변수가 되는 동시에, 미국의 지위 자체가 한일 간 변수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미일 ‘협약 공약’ /중국·대만 문제 대응’ 에 관해서입니다만, 한미일 간에는 대만 문제에 대한 온도차가 있습니다. 일본은 1972년 대만과 단교했지만 지속적인 관계망을 구축하고 있어 양국에는 친근감이 있습니다. 반면 1992년 대만과 단교한 한국은 일본이 보는 대만과는 다른 상황에 있습니다. 대만을 둘러싸고 미중이 충돌할 때는 한국이 더 신중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한미일 관계에서 상세한 조정이 요구됩니다.

징용공 문제는 여전히 역사 문제로 커다란 과제입니다. 한국은 일본에 성의 있는 호응을 원하지만, 일본이 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한국에 응답해야 한다는 일본의 딜레마보다, 한국이 일본에 대해 호응을 원한다는 딜레마가 상대적으로 크다고 생각합니다. 기억하는 것이 한국이라면, 망각하는 것이 일본이고, 실제로 망각이 쉽습니다. 본래 망각은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유럽에서는 나쁜 의미로 사용되지 않았습니니다. 1945년 이후 서독은 나치와 비나치 독일인을 구별했고, 이탈리아는 파시스트를 심판하지 않았습니니다. 1970년대 내전으로 분열된 스페인이 민주화로 이행했을 때, 과거 독재를 따지지 않음으로써 국민을 통합했습니다. 망각은 복원에 기여합니다. 그런데 한일의 경우, 한국 역사에서는 일본이라는 외부 세력이 크게 관여했기 때문에 쉽게 망각할 수 없고 기억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억하는 것이 맞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집합적 기억’은 역사의 복합적 측면보다 ‘단적인 결과’만 기억하곤 합니다. 기억을 계속한다고 할 때, 뭔가 자세한 것을 기억해 가면 좋겠지만, 기억은 시간적 경과에 따라 망각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생산되어 위험한 것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새로운 한일공동선언을 만들어야 하는가’에 관해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좋다’는 조금 소극적인 입장입니다. 1998년 한일공동선언은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를 위해 한일의 역할을 명시한 매우 글로벌한 내용이었고, 훌륭했습니다. 이 내용을 넘어서는 것은 그리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 내용을 우리가 이행해 왔느냐는 물음이 나오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 2025년은 제2차 세계대전 및 아시아태평양전쟁 종결 80주년이고, 한국은 해방(광복), 일본은 패전(전후 시작)이라는 측면에서 ‘전후 80년 담화’가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이라는 점에서 상징적인, 매우 중요한 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998년 한일공동선언은 1990년대 초부터 나타난 역사문제인식의 새로운 조류 속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또 당시 한국은 일본보다 국력이 낮아, 외환위기 극복과정에 있었습니다. 현재의 한일 여론을 보면 새로운 공동선언이 적극 지지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정치 리더들이 제도화를 시도할 수 있고, 위에서 만들어진 제도화가 아래로 내려간다면 의의는 있습니다. 다만 한국에서 최근 총선이 있었고, 일본도 앞으로 자민당 총재 선거와 중의원 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국 분들은 총선 결과를 모두 알고 계실 텐데, 그런 의미에서 양국의 국내적 안정성이 앞으로 다시금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1부]
토론
2

이창민 선생님 발표에 대해

아베 마코토 아시아경제연구소

[원문은 일본어. 번역 윤재언(릿쿄대)]

시작하며

이창민 선생님(이하 발표자) 발표는 무역투자, 공급망, 첨단과학기술협력, 다자협력 틀 등 일한경제관계를 다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특히 2023년 일한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면서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는 공간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 이는 보다 수평적이고 상호적이며, 민간 주도로 협력과 경쟁의 중층적 관계가 될 것이라는 점, 다만 일한협력의 기본방향을 논의할 때는 다양한 정치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발표자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싶다. 발표에서 제시된 몇 가지 논점에 대해 보충 코멘트를 하고자 한다.

1. 무역

최근 일한관계 악화가 무역에 미친 영향은 한정적이라는 발표자 주장은 전적으로 맞다고 생각한다. 일한은 각각의 경제에서 차지하는 제조업 비율이 지금까지 높았고, 자동차나 가전제품 등 내구 소비재에서 일한 기업이 경합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자본재나 중간재, 이른바 소재·부품·장비 무역이 대부분을 차지해 왔다. 한국의 소재·부품·장비 국산화가 진행된 것, 일본에서 탈제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일한 간 소재·부품·장비의 거래가 부진하고, 이것이 일한 무역 전체의 침체를 초래하고 있다. 향후 경제안보상 공급망 강화 필요성으로 일한 사이 소재·부품·장비 무역이 다시 활성화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일한 경제가 함께 성숙해지고 사람들의 왕래가 전례 없이 이뤄지는 가운데, 보다 중요한 것은 소비재 무역이 활발해지는 것이다. 이는 예를 들어, 화장품이 한국의 대일 주요 수출품목으로 급부상한 데서도 나타난다. 더욱 중요해지는 것이 서비스 분야 무역이다. 서비스 무역은 이미 활발해지고 있음에도, 통계상 파악하기 어려워 과소평가되고 있다. 서비스 분야에는 인터넷 관련이나 콘텐츠 등 가장 주목받는 산업도 포함되어 있다. 일한 간 직접투자, 특히 발표자가 지적한 스타트업 투자에서도 서비스 분야는 중요하며, 향후 보다 활발히 조사·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2. 공급망

미중 대립과 디커플링 움직임 속에서 경제안전보장 관점에서 반도체 분야를 중심으로 일미한 협력 중요성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 일한 간 무역 투자가 다시 활성화될 가능성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미한 협력이라 해도, 일미한 사이 라이벌 관계에 있는 기업도 존재해 서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게다가 이들 나라는 미국 기술 패권을 현실로 받아들이면서도, 자국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반도체 산업 재부흥을 위해 삼성전자 경쟁 기업인 TSMC를 파격적 보조금으로 구마모토에 유치했고, IBM과 협력해 새로운 기업을 홋카이도에 설립하려 한다. 게다가 TSMC 유치를 기폭제로, 애초 반도체 관련 공정이 집적돼 있던 규슈를, 다시 '실리콘 아일랜드'로 부활시키려 한다.

발표자도 지적한 대로, 일본 키오시아와 미국 WD가 플래시메모리 사업을 통합하려다 SK하이닉스가 반대한 사례는 경제안보협력과 기업·국가 차원 이익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한국을 포함한 각국이 자국 반도체산업 강화를 추진하는 것은, 산업 저변이 확대돼 쌍방에 비즈니스 기회가 넓어질 가능성도 있는 한편, 상대국 제품 의존도를 줄이는 효과도 있어, 양자 간 무역·투자가 향후 어떻게 될지 간단히 전망하기는 어렵다. 다만, 일본 반도체 산업 강화는 아직 대부분 계획 단계이며, 향후 발전에 회의적 견해도 있다는 점은 지적해 둔다.

한편, 일본에게 중국은 반도체 제조장치 최대 수출 상대국이며, 한국 기업은 중국 국내에 반도체 대규모 생산거점을 보유하는 등, 중국과 경제 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일한 모두에 손실이 크다. 중국과 경제 관계의 본질적인 부분을 어떻게 구축해 갈지, 일한은 정부 차원에서도 협력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다.

3. 수소경제

발표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탈탄소를 위해 수소경제 분야에서 일한이 협력할 여지는 크다. 일한은 지리적·자연조건이나 산업구조가 유사하기 때문에 수소경제와 관련된 생산·운반·저장·이용 등 모든 단계에서 추진 방향이 같고, 막대한 투자가 필요해 기업 간 협력 메리트가 크다. 특히 중요한 주체가 일본의 종합상사다. 일한경제협력 관련해 최근 에너지 분야에서의 제3국 투자 실적이 있었는데, 일본 측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이 종합상사였다. 종합상사가 제3국 투자로 일한협력 경험을 쌓고 있는 데 더해, 수소경제는 새로운 분야인 만큼, 처음부터 일한협력을 전제로 한 산업 생태계(에코시스템) 구축도 가능할 것이다. 이미 정부 차원 협력이 시작됐지만 더 강화되기를 기대한다.

4. CPTPP

보호주의 움직임이 강화되는 가운데, 다자 간 무역 자유화 틀인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는 중요하다. 일한 양국

무역 자유화 등에 기여한다는 의미에서도 한국의 CPTPP 가입을 추진해야 한다. 한국의 CPTPP 가입과 관련해 최대 과제는 일본 수산물 수입 자유화라 생각된다. 이에 대해 현단계에서는 일한 모두 타협할 여지가 별로 없기에, 낙관적으로 보기는 솔직히 어렵다.

* * *

보충 의견 : ‘라인야후 문제’ 에 대해

포럼 개최 전 원고로 받은 이창민 선생님 발표에 대한 의견은 위에서 전해드린 바와 같습니다. 기본적 일한관계에 관해 제가 이론을 제기할 부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조금 전 이창민 선생님이 새롭게 제기한 ‘라인야후 문제’ 라는 중요한 논점에 대해, 아래에서 코멘트하겠습니다.

솔직한 감상을 말씀드리면, 한국 분들은 라인야후 문제와 관련해 생각을 조금 많이 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본 정부 이면의 의도를 읽으려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한 것이 정말 존재하는가’ 하는 것이 솔직한 생각입니다. 이번 사례 배경에 대해 제가 느끼는 것은 아시아 신문에 보도된 것처럼, 라인의 정보 보안이 허술했다는 점, 지적을 받고도 대응이 안 됐다는 점에 일본 총무성이 어찌됐든 화가 났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발표 문서를 통해서도 매우 잘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안전보장과의 관련성에 대한 지적을 보고, 그러한 해석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저도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까지 일본 정부가 깊이 생각하고 행동한다고는 솔직히 생각되지 않습니다. 라인야후는 통화나 메시지를 주고받는 수단이기에 법률상 전자통신사업자로 취급합니다. 통신에 관한 비밀을 확실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 비밀 유지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고, 그것이 오랫동안 계속됐다는 점에 대해, 어쨌든 총무성이 단단히 화가 났다는 것으로 사실이 수렴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왜 행정지도에서 자본에 관한 사항까지 언급됐는지 자세한 사정은 알 수 없어서 추측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만, 한국과 일본의 기업지배구조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한 기업에 대해 여러 기업이 출자하고, 출자 기업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해당 기업 경영자가 어느 정도 독립해 경영을 하는 형태는 일본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다르지만 민영화된 초기 일본의 민간통신사업자는 대기업이 복수 출자를 했었고, 외부에서 들어온 경영자가 경영을 하는 예가 꽤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업지배구조 형태, 그리고 규제가 많은 일본 정보통신업을 전제로 하면, 이번 케이스와 같이 업무 위탁처에 출자 기업이 있어 그 업무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도 개선할 수 없다는 것은 위탁처가 유력 주주이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다면 자본 관계를 재검토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고 정부가 경영자에게 지적하는 일은 물론 일반적이지 않을까도 모르지만, 이상하지 않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물론 이번 사안의 경우, 사실상 네이버 측과 소프트뱅크 측 지분이 50대 50이기 때문에, 자본관계에 간섭하는 것은 그 균형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하물며 상대가 외국 기업이기 때문에 신중한 대응이 본래는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앞으로 전개에 대해 조금 우려하고 있습니다. 애초 네이버가 어디까지 라인 사업을 계속할 생각이 있었는지 의문이기 때문입니다. 네이버는 라인야후를 만들 때 50대 50의 출자 비율이었고, 원래 시스템과 기술은 네이버가 담당하고, 경영을 소프트뱅크 측에 맡기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설립 당시 네이버가 이제 라인을 할 마음이 별로 없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도, 일본 측에 경영을 맡기고 향후 네이버 본사 사업과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그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은 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보안을 강화하지 않고 시스템을 사실상 방치한 것도 네이버가 라인에 대한 의욕을 잃었다는 증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라인야후는 네이버와 기술적 계약의 많은 부분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네이버 측 관여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 자본을 50%로 계속 유지하는 것에서 이점을 찾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네이버의 자본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해지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네이버에 도움이 될지 의문입니다. 어쨌든 이는 정치적으로 판단할 일이 아니라, 기업이 스스로의 경영 전략에 따라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주위 반응으로 오히려 네이버 측의 판단을 제약할 위험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본래 라인야후는 일한협력의 다양한 형태 중 모델 케이스 하나로 매우 기대했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일에 휘말려 안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면 안타깝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제1부】
토론
3



고하리 스스무 선생님 발표에 대해

정 미애 서울대 일본연구소

고하리 교수님과 저는 평소에도 SNS를 통해 한일관계에 대해 의견 교환을 하고 있는 막역한 사이입니다. 한일관계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도 많은 공감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발표문에 대해 특별히 제가 이론을 제기할 만한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고하리 교수님과 제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사회·문화 분야에서의 교류, 특히 인적 교류야말로 한일관계를 떠받치는 힘이라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는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 발표문에서도 고하리 교수님의 지론이 잘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1. 정치외교관계의 ‘복원’ 과 인적 교류, 문화교류의 상관성

그런데 다만 인적 교류의 중요성, 인적 교류에 대해 한일 간 정치외교 관계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즉 둘의 상관성은 어떠한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2019년 ‘한일 인적 교류 천만 시대’ 라고 많은 언론에서도 얘기를 했고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2019년이라는 시점을 우리가 살펴보면 2018년 대법원에 의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이 났고, 그 후속 조치로 2019년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조치가 이루어져, 미디어나 많은 학자들로부터 한일관계가 국교정상화 이래 최악이라 일컬어졌던 시기입니다. 그러나 인적 교류는 역사상 최다를 기록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때 저도 마찬가지로 “한일관계는 최악이 아니다. 국가 간 정치외교적 관계에 있어서 최악일지 몰라도, 이렇게 인적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최악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고 하면서 인적 교류 지표를 한일관계가 최악이 아니라는 근거로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로 들어와 한일관계가 많이 개선되었고, 방일 한국인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표를 이번 정부에서는 한일관계가 개선되었기 때문에 방일 한국인이 많이 늘었다며 인적 교류의 급증을 관계 개선의 결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9년의 인적 교류와 윤석열 정부 들어서의 인적 교류 급증은 같은 현상을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외교관계가 인적 교류를 활성화시킨 것인가, 아니면 인적 교류 활성화가 정치외교관계의

갈등마저 보완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상관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 고하리 교수님도 같은 문제의식을 과제 1에서 제기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 상호연관성, 상관성은 전혀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관점에 따라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국가 간 관계를 바라볼 때, 정부 간 관계, 지자체 간 관계, 시민 간 관계 등 다양한 층위가 있고, 정치외교분야, 경제분야, 사회문화분야처럼 다양한 층위의 다양한 분야가 있어서, 다양한 매트릭스가 존재하는데, 우리가 한일관계를 바라보는 입장은 언제나 너무 국가간 관계, 정치외교관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전체를 규정하게 내버려둬야 하는지 우리가 다원주의적으로 한일관계를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라인야후 사태가 블랙홀처럼 한일관계를 빨아들이고 있는데, 사실 저는 그러한 문제도, 예를 들면 대법원에 의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 같은 경우에도 사실 처음부터 민사소송에 정부가 개입하면서 국가 간 관계로 커져 갈등 사안이 돼 더 이상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게 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인 사태 같은 경우에도 기업 간 문제를 정부가 개입함으로써, 이제는 국가 간에 해결하지 않으면, 즉 국가가 개입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커져버린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행위자나 각 분야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고 자율성이 있는데, 이것을 인정하고 그에 따르는 역할과 기능을 하도록 하면 되는데, 거기에 자꾸 정부가 개입하면서 정부 주도 한일관계, 정부 주도 한일 갈등을 만들어버리는 측면이 매우 크지 않나 안타까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적 교류라는 측면도 생각해 보면, 국가 간 관계와 개인의 기호를 분리해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시민들이 그만큼 성숙해 있고 의식이 발전해 있는데, 그것을 '한일관계가 개선됐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일본에 관광하러 많이 간다' 고 정부 노력에 의한 관계 개선 결과로 해석하는 것은 아전인수고, 견강부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관광과 문화의 소비는 이제 개인의 기호와 선택의 시대가 아닌가 싶고, 너무 외교와 결부 지어서 해석하지 말자는 게 저의 관점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고하리 교수님 발표문에도 많이 드러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2. 새로운 한일공동선언은 필요한가?

갑자기 '새로운 한일공동선언이 필요한가' 라는 큰 문제로 넘어가게 되었는데, '과연 이 선언을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인가', '만약에 만든다면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하는가' 에 대해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사실 '김대중-오부치 선언' 이 나올 수 있었던 배경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1998년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과가 있었고, 그 다음으로 평화 헌법을 수호하려는 일본의 의지를 당시 오부치 총리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민주화와 경제 발전에 대한 한일 상호 간 인정,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

정책, 햇볕 정책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지지가 있었기에 1998년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선언’ 이라는 것이 지금 와서 과연 필요한지도 의문이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 1998년 당시 담았던 그 내용을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도 의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선언 몇 주년이 되었기 때문에 하자’, ‘윤석열 정부이기 때문에 하자’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한일관계를 얘기할 때 항상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 한일파트너십공동선언을 바이블처럼 얘기하듯, 미래 세대에게 다시 바이블이 될 수 있는 신선언을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내용을 담지 못한다면 단지 상징적 의미로서의 신선언은 필요 없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1998년 한국 정부에 의한 일본 대중문화 개방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상파 방송에서의 일본 방송은 여전히 미해금 상태로 마지막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신선언이 아니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한일관계 개선의 상징적 조치로 일본대중문화에 대한 지상파 방송도 허용하는 대중문화 전면 해금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다, 지금이라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하리 교수님께서 과제 세 가지를, 질문만 던지시고 거기에 대한 교수님의 생각은 말씀 안 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허락한다면 교수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1부] 질의응답

좌장 : 이 원덕 (국민대)

답변 : 니시노 준야 (게이오기주쿠대)
이 창민 (한국외대)
고하리 스스무 (시즈오카현립대)

[발언은 모국어]



이 원덕 정미애 선생님 감사합니다. 발표 같은 토론 잘 해주셨고요. 제가 일일이 세 분 발표자와 세 분 토론자에 대해 소개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한일관계 분야에 있어서 제 1인자를 자칭, 타칭할 수 있는 분들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소개해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플로우에 오픈해 여러 전문가 선생님들 의견과 질문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약 한 5분 정도 시간이 확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유롭게 거수를 해 주시고 발언을 해 주시겠습니다.

청중 1 저는 사실 오늘 회의를 준비한 입장이라 발언을 안 하려고 했는데, 다른 선생님들 발언 시간을 조금 벌어드리기 위해 사실관계 확인만 하나 하고 싶습니다. 조금 전 정미애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 중 의견은 차치하고, 제가 알기로 천만을 넘은 것은 2018년입니다. 2018년 1년 동안 통계가 2019년에 나온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2019년 수출 규제와 여러 가지 현상들은 천만과는 사실 관계가 없는 2018년 동안의 상황이었습니다. 저도 상당히 분석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의견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한일관계 악화 속에서 교류가 부족하다고 할까요? 꺼려했던 건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2019년도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불매운동이 있었고, 실제로 일본을 방문하지 않겠다는 운동도 일어났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사회적 분위기가 교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니까 미치지 않았던 건 아니었던 것 같고요.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한일관계 개선이 교류를 많이 늘게 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한일관계 개선 속에서, 이걸 통계로 잡기는 어렵겠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도 굉장히 많은 곳에서 한일관계를 안 하시는 분들도 “일본을 가자, 일본에 가서 회의하자” 이런 분위기가 적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정치, 경제에서 많은 교류들이 일어났고, 통계로 잡기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지만, 민간에서의 관광이나 교류뿐만 아니라 학자 간 교류나, 사업과 같이 본인의 이해관계와 관계된 분들 사이 교류가 상당히 많이 느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 의견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원덕 가능하면 좀 짧게 원포인트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중2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중요한 정책 제안 중 한일 신시대 미래지향적 김대중-오부치선언의 업그레이드 문제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미애 선생님께서 일본의 역사 반성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꼭 해야 될까 하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저 역시 일본이 소극적이라면, 한국이 적극적으로 나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접근법에 있어서 조금 다른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대중-오부치 선언은, 일본이 과거 반성을 해 조건을 제시하긴 했지만, 당시 IMF 사태, 그리고 북한 군사도발이라는 한일이 위기의식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큰 조건이었습니다.

지금 상황은 중국의 도발이라고 하는 부분은 민감하기는 하지만, 조금 더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국제 정세가 대단히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위기의식을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 봅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1998년 선언 그대로 사용해도 되지 않겠느냐고 하겠지만, 환경 자체가 변한 부분이 크게 두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한일 간 관계가 상하 관계에서 수평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대칭성이 커졌습니다. 기미야 교수님 표현을 빌면 그게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국제 환경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미중 간 인게이지 상황, 서로 이익을 공유하던 시기였죠. 당시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어떨습니까? 미국과 중국이 전략적 경쟁관계에 있고 한국은 어떨습니까? 일본과 같이 자유민주 시장경제라는 가치관에 있어서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커진 상태입니다. 이걸 반영해 업그레이드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러니 과거사를 사죄하지 않는 일본에 대해 새로운 것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은, 20년, 25년 전 시점에서 한일관계를 규정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에 관해서는 최은미 선생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완하는 발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원덕 한, 두분 더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청중 3 아까 양국 간, 한국과 일본에 대한 인식 말씀도 있었는데, 요새 일본 젊은 세대 사이에 인스타그램이나 틱톡 같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한국에 대해 알게 되는 경우가 많고, 50, 60대는 기본적으로 올드 미디어에 한정해서 외교 관계나 정치를 포함해 한국에 대한 나쁜 모습이나, 일본에 있어서는 세대 간 그 정보 격차가 큼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그것을 아주 크게 느낍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교수님들이 양국 간 국민 여론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인식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하면서 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원덕 감사합니다. 일단 여기서 종료할까요? 그러면 발표자 선생님들께서 3분 정도를 사용해 지금 제기된 질문과 토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니시노 선생님께 부탁드립니다?

니시노 준야 귀중한 토론 감사합니다. 주로 김승배 선생님 토론과 관련해 보충하고자 합니다.

‘일한 양국 간 안보협력 정체/미국 의존에서 일한 주도로’ 라는 문장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윤 대통령 리더십이 크다고는 하지만, 일미한 협력에 대해서는 역시 미국의 힘이 상당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승배 선생님은 빅터 차(Victor Cha) 선생님 연구를 염두에 두고, 일한이 미국으로부터 버림받을 우려를 가졌을 때 협력할 의의가 있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빅터 차 선생님의 또 다른 저작 ‘파워 플레이’ 는 미국의 힘에 의해 이 지역 안보질서가 만들어졌다고 설명합니다. 이 구조는 지금도 기본적으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미국의 힘이 쇠퇴하고, 앞으로 이 지역에서의 역할과 책임을 가능한 한 줄여가려는 가운데, 일한은 이 지역 안전보장을 비롯해 다양한 영역에서의 협력을 주도해 나가야 하며, 지금 그것이 가능한 큰 기회라 저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실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총리 시절에도 동아시아 지역협력을 일한이 주도한 경험이 있기에, 20여 년 전 경험을 살려 현재의 어려운 국제정세에 대응하는 형태로 일한이 함께 지역 협력을 주도해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포인트 중 하나가 다음으로 김승배 선생님이 지적하신 중국대만문제에 대한 대응입니다. 이는 이미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 때 이른바 세 번째 문서 ‘협의 공약’ 으로 이 지역 안보 위협에 대해 협의하겠다는 약속을 명기하고 합의했습니다. 실제로 공동 대응할지 여부를 떠나, 유사 시 문제가 일어나기 전, 해당 과제를 다룰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징용공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일한관계가 개선되는 가운데 가장 큰 과제는 현안인 징용공 문제입니다. 그러나 관계 개선의 긍정적 파급효과가 충분치 못하다는 점이 큰 과제입니다. 형식적으로는 이미 해결 방법이 제시되어 있고, 그에 따라 한국 측이 해결해가기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그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 1년간의 급속한 관계 개선이 현안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한일관계개선은 지속적일 수 없습니다.

아까 라인네이버 문제를 언급하셨는데, 이 문제는 결국 라인네이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 1년 동안 한국 분들이 일본에 대해 생각해

은 여러 가지 불만이 폭발하고 있거나, 혹은 폭발할 것 같은 상황이 표면화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한국 내 상황도 인식하며 향후 3년간의 윤석열 정권 임기 동안 일한 공동의 노력으로 양국 국민의 불만과 불안을 완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창민 예, 저는 아베 선생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본질은 기업 경영에 관한 이야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네이버는 지분을 팔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 기업’ 네이버를 지키자는 여론에 떠밀려 정부 압력으로 못 팔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 자체가 전부 블랙박스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도 해석의 영역이라 웬만하면 언급을 삼가려 했는데, 그럼에도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배경을 보면 언론에 많이 나와서 알고 계시겠지만, 2019년 ‘라인페이’와 소프트뱅크 ‘페이페이’가 출혈 경쟁을 너무 심하게 하다 보니 ‘이러다가 미국 빅테크한테만 좋은 일 시키겠다’고 해 ‘미중 빅테크 기업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제3지대를 만들자’고 해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통합 작업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통합해 보니 생각보다 시너지 효과가 크지 않았습니다. 메시지 기능 빼고 나머지 사업 영역이 다 겹칩니다.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 원래 인터넷 뱅크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라인뱅크’를 만들려고 했는데 소프트뱅크가 원래 페이페이은행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반대해 무산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부터 네이버는 손 떼는 작업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경영에서 손 떼려고 하던 차에 정보 유출 이슈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해도 지금 챗GPT 열풍이 불면서 손정의 사장 마음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원래는 소프트뱅크가, 네이버가 개발하는 AI에 공동 투자를 하기로 했는데 그것을 2022년 GPT 열풍을 보면서 접었습니다. 직접 개발하기로 하고, 그렇다 보니 네이버도 지금은 또 경영상 생각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픈 AI, 생성형 AI로 두 회사가 경쟁을 해야 되는 관계인데, 이 오픈 AI는 데이터 학습이 중요해 2억 명 이상 유저의 데이터가 굉장히 보물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네이버에게 있어서도, 소프트뱅크에 있어서도 동남아와 대만, 일본의 2억 명 유저 데이터는 포기할 수 없는 사안인데, 네이버는 받을 수도, 넣을 수도 없는 진퇴양난입니다.

다만 제가 아까 발표 때 말씀드린 것은 ‘라인 일병 구하기’에 매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과 일본은 디지털 우방국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이런 이슈는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사이에는 서로 데이터 센터를 만들 수 있지만, 한국에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고 하면 그게 경제안보 이슈가 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를 장기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한일 디지털 협정’의 형태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쪽이라, 이 점 말씀드리며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하리 스스무 이창민 선생님 감사합니다. 통계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략하겠지만, 이창민 선생님 말씀대로 다층화된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층화되고, 다양화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보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과거 일한 교류와는 달리 균질화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화장품이 왜 일본에서 팔리냐면 일본인들이 사용하고 싶어하는 품질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러한 다양성의 관점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우선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일한공동선언에서 무엇을 전달해야 하는가 하는 논의인데, 저도 사실 1998년 일한공동선언과, 지난해 캠프 데이비드의 일미한 합의 두 가지를 이행하는 것만으로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는 포괄적인 것보다 구체적인 조치, 예를 들어, 김포공항에서 일본 출국 수속을 할 수 있는 입국 관리 간소화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류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외교적 갈등이 있더라도 문화 교류에 일절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일본과의 정치·외교적 관계가 나빠질 때 교류를 일방적으로 중지한다는 통보를, 한국 지자체가 일본 지자체에 자주 보내옵니다. 이는 정말 한국 지자체 분들이나, 교류에 관여하고 있는 분들이 독자적으로 판단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국내 정치나 미디어를 신경 써 나타난 일이라면 곤란합니다. 양국 관계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분위기를 불식할 당국자의 선언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라인야후 문제에 대해서도 아까 아베 선생님 말씀대로, 특히 한국 미디어 논의는 극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정부가 뭔가 계획적으로 한다든가 하는 일은 없고, 유출된 정보가 굉장히 많았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일반적으로 일본의 관공서, 특히 총무성 등은 일본의 통신행정을 모두 장악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외국 기업이 관련되든 그렇지 않든, 그런 부분의 갈등이 일본 국내에는 꽤 있던 것 아닐까 싶습니다. 이 점도 나중에 토론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원덕 네, 감사합니다. 훌륭한 발표와 토론 잘 들었습니다. 저도 한마디 하고 싶은데 시간이 많지 않아 세 마디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개선된 한일관계를 보는 시각은, 일본 측에서는 '불안'이라는 키워드로 요약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정권 변동이나, 정치 상황 변화에 따라 개선된 한일관계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가지고 한일관계를 본다는 말씀입니다. 한국 측에서 보는 시각은 '불만'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 컵을 채울 일본 측 생각이 있는지에 대한 불만이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개선된 한일관계는 여전히 대단히 불안한 위치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닌가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저도 여기에 약간 의견을 덧붙이면 '신선언은 필요한가' 하는 것인데,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998년 당시 한일관계 상황과 지금은 굉장히 다르죠. 아까 말씀이 나왔듯이 국제 시스템도 크게 변화했습니다. 북한 위협의 내용도, 성격도 많이 변했습니다. 한일관계도 많이 대칭화됐습니다. 수평적으로 변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 제기되고 있는 이슈도 많이 있습니다. 아까 네이버 사태 얘기가 나왔지만, 지금 한일관계가 당면한 여러

과제들을 슬기롭게 풀어가고, 협력과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노력은 당연히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내용성에 관해, 무엇을 담보해야 하는지 여러 논의가 필요하겠습지만, 지금 한일관계가 처해 있는 상황을 생각하면 1998년 맺어진 ‘신파트너십선언’으로는 역시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형태의 제도화 노력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네이버 사태는 굉장히 여러 층위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비즈니스, 기업 이익 차원 문제이기도 하고, 또 국가 간 내셔널 바운더리와 얽힌 문제이기도 하고, 또 첨단과학기술 IT의 진보, AI라는 새로운 영역의 출현 같은 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국제 레짐 차원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 그리고 국민 여론에서 폭발적으로 제기되는 문제, 이런 다양한 요소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일관계를 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새로운 케이스 스터디의 아주 흥미진진한 주제가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1부는 시간 관계상 이것으로 종료하겠습니다. 제2부도 관련된 과제가 계속 제기되기 때문에 아마 연속으로 논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발표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 토론에 참여해 주신 선생님, 여러 선생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 2 부] 패널토론 한일관계의 새로운 비전과 협력방향

좌장 :
남 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패널리스트 :
니시노 준야 (게이오기주쿠대)
고하리 스스무 (시즈오카현립대)
아베 마코토 (아시아경제연구소)
최 희식 (국민대)

이 정환 (서울대)
정 지희 (서울대 일본연구소)
조 윤수 (동북아역사재단)

[발언은 모국어]



남 기정 바로 이어서 제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개회사를 통해 이진규 이사장님도 지적해 주셨고, 저도 언급했습니다만, 롤리코스터 상태의 한일관계라는 것을 주목하면서, 신기루, 무엇이 정상인가라는 질문을 내놓았습니다. 부제에 있는 것처럼 지난 1년 동안 회복을 하면서, ‘한일관계 복원’이라는 시점에서 1년을 돌아보고, 그 중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을 쟁점으로 짚고, 향후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것으로 정리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향후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이야기들이 조금씩 있었습니다만 제2부에서는 그 내용을 이어받아 미래 비전과 협력의 방향을 짚어보는 내용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패널리스트는 일곱 분을 모셨습니다. 한국 측에서 네 분이 먼저 제2부의 내용을 포함해, 이 주제에 대한 본인들의 생각을 전개해 주시고, 그 다음 혹시 세 분께서 추가적으로 해주실 말씀이 있으시면 앞에서 해주시고, 제1부에서 다 하지 못한 이야기로 조금 더 보완 설명을 해 주실 게 있으면 해 주신 다음,

플로우를 열어 여러 선생님들의 질문을 받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자 네 분께서는 10분을 넘기지 않는 시간 내에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희식 선생님부터 말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국민대 최희식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최희식 안녕하세요, 국민대 최희식입니다. 최근 한일관계를 보면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에 대해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처음에 적었던 대로 지금의 한일관계가 정말 새로운 한일관계의 시작점인지, 아니면 태풍이 불기 전 고요한 상황인지 말하기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주변에서 보면서 느끼는 것들은, 애써 외면하는 듯한 모습들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한일 간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그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니 애써 외면하면서 새로운 방향으로 가보자는 목소리들이 지금 지배적입니다. 과연 이게 반드시 좋은 것일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일관계가 이번 회의 타이틀이기도 한데, 롤러코스트를 여러 번 봤었습니다. 그런데 그 근원적인 문제들을 우리가 건드리지 않고 새로운 한일관계를 이야기한다는 게 얼마나 의미가 있을지가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것을 들여다보면 우선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같은 경우, 제3자 변제가 나왔습니다. 이 문제가 관심 속에서 사라진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제3자 변제를 위한 기금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느냐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약을 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소송의 결론은 어떻게 될 것인지, 또 제3자 변제를 수용하지 않으신 피해자분들은 현금화할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현금화됐을 때 어떻게 될 것인지도 문제입니다. 결국 아무리 들여다봐도 일본 측의 적극적인 호응 조치가 없으면 제3자 변제가 성공하기가 힘든 구조임에도, 지금 일본은 애써 외면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앞서 회의에서도 나왔지만 라인야후 문제도, 우리가 수출 규제에서 봤던 것처럼 역사 문제와 이익 문제가 결합됐을 때 파괴력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단순하게 경제적 문제로만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주목받지 못했지만 ‘레이와서적 교과서’는 선을 넘은 교과서입니다. 어느 정도 한일 간 역사인식의 공유가 이루어진 상황임에도, 그 선을 넘어선 교과서가 나왔다는 데 대해, 이번에는 넘어갔지만, 매년 반복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 문제를 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문제입니다.

내년에는 한일대륙붕협정 종료 통보를 하는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바다의 문제는 정체성의 바다였기 때문에, 아이덴티티, 프라이드, 이러한 마음의 문제가 갈등을 빚는 영역이었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익의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동개발구역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그 밑에 묻혀 있는 자원의 이용 방식도 달라집니다. 즉 이익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역사 문제와는 차원이 다른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공동개발구역 문제가 해소된다면, 서로 해양자원을 조사하려고 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왜 남의 땅에서 조사하느냐’고 하면서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가 떠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더 나쁜 것은 위기의식이 없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이 됐으니 협력 과제를 이야기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갈등을 외면하면서 협력 과제를 이야기해도 나중에 이 갈등의 근원적 문제들이 터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한일관계 역사를 봤을 때, 이익 문제와 역사 문제가 연동됐을 때는 그 이전에 쌓아왔던 한일관계 성과가 일시에 무너지는 현상들을 여러 번 목도했습니다. 정치 리더십적 측면에서 봤을 때도 부정적인 측면들이 많습니다. 한일 모두 정치적 리더십이 상당히 불안하고,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문제에 대해 쉽게 결단을 하기 힘든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미국 대선 문제도 걸려 있습니다. 트럼프가 재선할 경우, 트럼프의 동맹 정책을 우려하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은 위기의식에 바탕을 두고 협력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1기 트럼프 정부 때 그랬던 것처럼, 트럼프는 양자 관계를 '상인적 시각'에서 보기 때문에 한일 간 갈등을 이용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한일 갈등을 의도적으로 방치함으로써 한국과 일본에 대한 외교적 레버리지를 키우려고 했던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당선된다면 한일 간 갈등을 외면할 것이고, 그렇게 한일 갈등이 더 커지는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 바이든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한미일 협력 제도 같은 것들이 훨씬 더 제도화되겠죠. 한일 갈등 시 적극적으로 중재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볼 때, 문재인 정부 때 한일 갈등 사례를 보면, 미국 또한 중재하기 힘든 측면들이 많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워낙 힘이 세지다 보니, 미국이 중재하려고 해도 쉽사리 잘 안 되는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되든, 바이든 대통령이 되든 한일 갈등이 발생했을 때 미국의 중재 노력이 얼마만큼 유의미할 것인지 의문시됩니다.

최근 많은 논의들이 나온 것처럼 한일 간 민간 교류가 증대됐기 때문에 좋은 일이 있지 않겠느냐고 하지만, 이미 한일관계에서는 증명이 됐습니다. 한일 간 민간 교류가 증대되더라도 정치적 갈등을 완화하는 데 큰 기여를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 번 한일관계 역사 속에서 드러났기 때문에 한일 민간 교류를 증대한다고 한들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안정적인 한일관계 구축은 힘들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본질을 직시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60주년이라는 이유로 우리가 장밋빛 희망에서 협력하자고 제안하는 건 당연히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미래에 갈등이 일어났을 때, 갈등이 증폭되지 않도록 완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한일관계의 근본적 갈등 요인들을 우리가 직시하고 어느 정도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리 60주년이 오든, 공동선언을 발표하든 결국 예전처럼 다시 롤러코스터의 한일관계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위기의식을 우리가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애써 외면하지 말고 본질적인 문제를 바라보자. 제일 중요한 게 제3자 변제의 성공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는 기금을 확보하려고 당연히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소송에서 판결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받고자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하면 제3자 변제는 그 순간

실패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는 기금 확보를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고, 일본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찬스’ 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본 기업들이 굳이 민간과 기업 간, 즉 피해자와 민간 기업의 소송인데, 일본 정부가 굳이 관여할 필요가 없는 측면입니다. 제3자 변제 이후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견해는 ‘이제는 민간의 문제다’ 이기 때문에, 일본 기업이 좀 더 적극적으로 피해자분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최악의 상황도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국은 의지는 있는데 능력이 없고, 일본은 의지 자체가 없기 때문에, 현금화가 현실적으로 가능성 있어 보인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경우, 한국 측이 기금 확보를 해놓고 받겠다는 분들에 대한 제3자 변제를 했음에도, 결국 공탁이 인정되지 않고 수용하지 않았던 피해자분들의 현금화가 이루어진다면, 한국과 일본이 먼저 해야 되는 생각은 ‘누구의 잘못이냐’ 라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할 건 다 했으니까, 즉 기금을 확보했고 받고자 하신 모든 분들께 주었는데도 현금화됐다면 일본 측에도 잘못이 있기 때문에, 현금화를 둘러싸고 과도한 경제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자제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흐름들을 지금부터 꼼꼼이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공론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기에, 이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이 감정적 상호 확대 조치를 하는 게 아니라 적절한 선에서 대응하며 현금화됐을 때 한일관계가 파국을 맞지 않도록 논리를 개발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과서 문제에 관해서는, 근린제국 조항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저는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보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안 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가 이익 문제와 연동되지 않도록 잘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1부에서도 여러 이야기들이 나왔지만, 정치적으로 판단한다면 라인야후 자본 관계에 대한 언급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기업과 기업이 알아서 하는 건데, 굳이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뭘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의 언행에 있어서의 신중함이 요구됩니다.

대륙붕협정 같은 경우 일본 측은 협정을 종료하겠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결국 종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시아 지역 공통점이지만, 인포멀한 질서가 여러 가지 갈등들을 조율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협정이 없어도, 그 협정의 질서를 암묵적으로 유지하는 노력들이 필요한 것이고, 일본 정부가 내년에 “대륙붕협정을 종료하겠다” 고 통보하더라도, 반드시 당분간은 현행 질서가 변경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한국에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익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갈등 구조로 넘어가기 때문에, 종료한다고 통보하더라도 지금의 공동개발 혹은 단독개발 저지와 같은 체제는 반드시 유지돼야 된다고 봅니다.

공동 개발을 하지 않더라도, 단독 개발도 하지 않는 구조가 지금 대륙붕협정의 기본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상변경이 당분간 없고, 한국과 일본의 협의 하에 그 지역을 어떻게 관리할 건지 논의하겠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한국에

던지지 않는다면 대륙붕협정 문제, 특히 바다의 문제는 후쿠시마 오염수 혹은 처리수 문제와 연동돼 엄청난 갈등을 유발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토론문을 5월 5일까지 써달라고 부탁을 받아 5월 5일에 썼습니다. 라인야후 사태는 그때 별로 큰 문제가 아니었던고, 제가 고민했던 게 그래도 60주년을 향한 협력 과제를 논의하는 곳인데, 괜히 슬픈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봐도, 지금 한국과 일본의 분위기가 현실을 외면하는 모습들이 너무 많이 보이니 “그러지 말고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협력 과제를 찾아내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는 말씀을 드리며,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 기정

감사합니다. 한일관계의 현상적인 개선에도 기본적으로 갈등적 측면이 있고, 그게 상당히 본질적인 부분일 수도 있다. 그래서 새로운 비전을 얘기할 때, 그 본질을 간과하거나 회피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협력 방안을 논의할 때도 그러한 문제들을 풀기 위한 노력들을 함께 해나가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한일관계를 논의하는 그 분위기가 마치 일본어로 ‘하레모노니 사와루요나(腫れ物に触るような)(편집자주: 위험한 것을 만지는 것 같은)’ 이런 분위기를 조금 불식해야 하는 건 아닌가, 이러한 문제 제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한국어로 ‘너무 조심스럽고 눈치 보는 분위기가 있다’ 고 하는데 대해 많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정환 서울대 교수님께서 이어 주시겠습니다.

이 정환

이정환입니다. 제가 원래 토크 포인트를 의뢰받았을 때 꼭 분야가 있는 건 아니지만, 경제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주최 측 말씀을 듣고 경제협력 분야 쪽으로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최희식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라인 문제가 심각할 때가 아니어서 라인이라는 단어가 아예 없습니다. 관련해 이따 언급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저의 시작 포인트는 작년 두 정상의 두 번의 만남, 그리고 8월 캠프 데이비스 만남에서 보면, 나온 문서들이 안보와 경제 두 분야로 나뉘져 있습니다.

경제와 산업 부문 협력은 상당히 자연스럽게 흘러갈 듯한 뉘앙스가 있고, 즉 어떤 난관이 있고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에 대해, 저는 양국이 지혜를 짜내고 노력이 많이 필요한 분야가 경제협력증진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서 협력이 가능할 것인가, 또는 제약 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한일 간 경제관계에 대한 양국 상호 인식은 역사적으로 보면, 한국에게 일본과의 경제관계는 압도적 중요성이 있었습니다. 아까 이원덕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비대칭적 관계,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로의 전환이라는 게 양국의 경제관계를 의미하는 핵심입니다만, 이 부분에서 역사적으로 한국과 일본 사회의 상호 간 경제 중요성에 대해서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전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에게 일본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존재로 인식되어 왔고, 당위적인 일본과의 경제협력 필요성은 지금도 수치적으로 높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동아시아연구원이 일본의 켄론(言論)NPO와 한 공동

조사, 여기 계신 몇몇 분들도 같이 참여한 공동 연구를 보면 한국인들에게 일본과의 경제협력은 당위적으로 ‘필요하다’, ‘중요하다’ 는 인식이 매우 높습니다. 역사적 과정을 볼 때 일본에서 한국과 유사한 인식이 기대된다고 할 수 있겠죠. 결국 한일 간 경제협력은, 일본의 입장보다 한국에게 어젠다로서 더 중요했고, 지금도 그런 의미를 꽤 갖고 있는 측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를 정책집행자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은 ‘지경학의 시대’ 입니다. 지경학의 시대에 있어서 일본의 ‘신산업 전략’, 그리고 그것을 통한 ‘경제안보’, 경제외교 전략에서 외무성보다 경제산업성 중심 지경학 전략에서의 세계 지도는 외교안보차원의 지도와는 상이할 수 있다, 즉 연동이 되지만 똑같은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의 경제적인 세계 지도와 외교안보 세계지도에서 한국의 위치가 상이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 차이에서 보면, 일본이 지경학의 시대에 G7 국가들 아니면, 글로벌 사우스, 동남아하고 어떤 관계를 맺는지, 경쟁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더 잘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더불어 대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경학 전략에서 한국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에 대해 일본 사이드에 정확한 비전이 있는가는 물음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측에서는 일본 측 구미를 당길 수 있는 그런 비전 제시가 있는가, 그러니까 양국의 지경학 차원에서 상호 협력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국이 견인할 수 있는 어젠다가 구체화됐는가, 저는 당위론에서 별로 나아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경학 시대 한일 경제협력들에 대한 논의를 좀 더 구체화하고 어떤 부분에서 더 현실적이고, 어떤 부분에서 좀 더 유보적이어야 되는지 적극적으로 이야기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포인트를 몇 가지 적었습니다만, 정상들 간에 나왔던 논의들을 보면 대부분 기본적으로 분야별 방향성을 다 제시하셨던 것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경제안보추진법이 있습니다. 경제안보추진법이 2022년 나와 네 가지 분야입니다. 글로벌 공급망 대응이 있고, 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이 있고, 아까 이창민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인프라에 대한 확보가 있고요. 특허에 대한 비밀, 이렇게 네 가지 사안이 있는데, 한일 간 네 가지 사안 중 크게 몇몇 부분이 정상 간 경제협력 논의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제안보 시대에 한일 협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논의가 구체화될 필요성이 있다는 분명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서플라이 체인 쪽 협력은 구체화가 더 빨리 될 가능성이 있고, 지금 이미 수소 암모니아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한국과 일본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위상의 유사성이 있는 게 배경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문제는 경제안보를 일본만 추진하거나, 한국만 추진하는 게 아니고 미국도 하고 유럽도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중국도 합니다만, 결국 ‘라이크 마인디드 컨트리 (like-minded country)’ 들 사이에서도 다 경제안보를 하는데, 기존 자유무역 질서가 아니라 모두 추구하는 경제안보는 국제적 규범이 아직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안보를 둘러싼 국제 규범이 없는 상태는 결국 기존에 있던 투자와 무역이라는 기업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던 질서와, 안보라는 이유로 그것을 규제할 수 있는 사이의 딜레마를 이러한 라이크 마인디드 컨트리들

사이에서 조정할 수 있는 룰 세팅이 아직 없다는 점입니다.

이건 한일관계 문제만은 아니죠. 글로벌 차원 문제고, 이게 라인 문제하고 직결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인 사태는 한일 간 문제가 아니고, 아까 이창민 교수님 말씀해 주셨다시피, 저는 총무성이 경제산업성과 내각부 경제안보담당대신과 달리 언어를 잘못 썼던 것 같아요. 2019년 경제산업성은 엄격한 법의 언어를 사용해왔다면, 이번 총무성의 언어는 전혀 법적 언어가 아니어서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히려 총무성의 조치가 됐든, 경제안보로 해서 결국 투자가 안보적으로 규제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게 우리가 앞으로 볼 수 있는 미래일 수 있는데, 어떻게 룰 세팅할 거냐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업 간 이익과 관련해, 글로벌 규범을 짜는 데 있어서 한일 간 협력을 어떻게 만드느냐, 저는 꼭 양자 협력을 극대화만 하는 게 필요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히려 이걸 “국제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자”, 이게 지금 오히려 한일 간 갈등 사안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일본과 유럽이나, 일본과 미국보다 한국과 일본 사이 다툼의 소지가 나올 수 있는데, 그러면 무역 투자와 안보가 충돌할 때 어떻게 국가가 하는 것을 규범화할지, 사실 지금 일본은 규범화에서 EU를 핵심 파트너로서 삼을 생각이 있습니다.

한국은 솔직히 룰 세팅에 대한 인식이 조금 없지만, 일본과 협력이라는 단어가 매칭이 안 될 수 있는데, 싸우면서 룰 세팅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싸운다는 게, ‘그냥 관계를 끊자’가 아니라 국제법적으로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당장 라인 사태만 해도 2003년 발효된 한일투자협정과 충돌되는 지점이 있다면 어떻게 조정할 건지, 그리고 경제안보라는 새로운 룰에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종합시킬 것인지라는 논의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IPEF(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라든지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들을 G7이나 유럽과 같이 할 수 있는, 미국은 좋은 파트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당장은. 그런 것들도 한일 간 협력의 지평을 글로벌하게 확대할 수 있는 지점으로 양자 갈등 상황을 바라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정상 간 얘기했던 신기술개발협력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과연 얼마나 기업들이 상호 간 이익 조율이 됐는지, 결국은 지금까지 경합성이 높은 기업들, 그리고 그 부분들을 어떻게 링크시킬지에 대해, 각 섹터마다 양국 간 기업들의 이해관계가 상이할 수 있으니, 기업들의 의견과 대학에 있는 이공계 쪽 의견을 많이 접수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이 요즘 인프라 투자 쪽으로 ODA 관련해 한일 협력 얘기도 합니다만, 한국이 일본에 비해 확연하게 능력이 떨어지는 분야라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한일 사이 대등한 협력은 어렵겠지만, 일본의 실질적인 서브 파트너가 될 수도 있고, 이걸 잘하면 한중일 3국 협력의 중요한 아이템화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 부분은 우리가 과제 대응 한일 협력 이야기를 많이들 하는데, 미래에 대한 한일 협력 필요성을 얘기할 때 요즘 글로벌 트렌드는 미래 인구감소시대,

기술혁신시대에 어떤 식으로 대응하느냐는 부분은 글로벌 과제가 되고, 과제 선진국으로서 일본이 있고 만만치 않게 빨리 과제를 부담하고 있는 한국, 이 두 나라가 협력하자는 것은 중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저는 과제를 대응하는 데서 현재 한국은 아이디어가 빈곤하다고 보거든요. 빈곤하다고 보는 포인트는, 과제를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지에 대해 영어로 ‘문샷(moon-shot) 프로그램’ 이라고 그러죠. 과제 개척을 하려는 국가의 적극적 노력이라는 차원에서 그러합니다. 일본의 미래 개척을 요즘 경제산업성이 다 계획을 짜는 것처럼 되고 있지만, 결국 경제산업성, 그리고 과학기술 쪽에서 나오는 문샷 프로그램이나, 이노베이션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지금까지 성과가 높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런 부분을 벤치마킹하는 것도 한국이 볼 부분이 있겠습니다. 이것을 한일 협력의 한 부분으로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만 잘 찾아 나가야 되고, 그래서 경제 부분에서 자연스러운 협력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얘기하고 싶었는데, 어차피 라인 사태로 인해 말할 필요가 없게 된 것 같긴 합니다. 이것들을 가져다 좀 더 구체화하고 세분화해서, 양자 간 관심을 더 증대시킬 방안을 찾을 필요성을 언급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 기정 과거에 비해 한일 경제협력의 메리트라 해야 될까요? 그런 것이 가시적으로 줄어드는 상황이어서, 새로운 진영화 시대에 한일 경제협력이 필요하다는 답론은 있지만, 아직 구체적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고 현상 분석을 해 주셨고, 네 가지 정도 협력 분야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안전망 확보, 경제안보를 위한 새로운 글로벌 규범을 만드는 데서의 협력, 신형기술개발을 위한 협력 고대, 인프라 투자에 대한 협력, 인구 감소 시대의 양국 공동 과제에 대한 공동 연구와 같은 것들을 구체적으로 새로운 분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세 번째로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정지희 선생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정 지희 예,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정지희입니다. 저는 역사학 전공자여서, 한일관계 미래비전을 이야기해야 하는데, 제가 최근 한 연구들, 2000년대 ICT 연구도 하고, 미디어 연구도 해서, 아마 그쪽을 염두에 두셨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고민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까 최희식 선생님께서 “근본적인 문제들을 외면하지 않고 이야기해볼 타이밍 아니냐” 는 말씀을 해 주신 데 용기를 얻어 준비해온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말씀해 주신 학술회의 주제 자체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해, 이 자리에 결국 거절 못하고 나왔습니다. ‘한일관계에서 무엇이 정상인가, 무엇이 노멀이고 어떤 것이 신기루인가’ 이렇게 늘 롤러코스터를 타는 한일관계라는 질문에 대해, 역사학을 하다 보니 고민을 안 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다만 저희가 1945년 이후까지 거슬러 올라가 생각한다면, 식민지 문제가 있어서 역사는 늘 문제가 됩니다만, 21세기나 현재 문제만이 아니라 장기적 역사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롤러코스터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굉장히 멀리 떨어진 두 나라 사이에서 일어나는 관계하고는 이야기할 수 있는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한일관계가 계속 지속되고 ‘불안’ 이나 ‘불만’ 이라고 하는 부분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라는 고민을 했었습니다.

‘동아시아 장기냉전문제’ 가 1945년 이후 한일관계에서 상수로 작용하면서, 한일관계의 정상성에 대한 인식을 더욱 부정해 온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1부에서 많은 선생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만, 현재까지도 북한 위협이 크다고 느낄수록 한일관계는 우호적이어야 한다, 한일관계는 미래 지향적이어야 한다는 데에 찬성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고, 북한, 중국의 위협이 크다고 느낄수록 한미일 삼각 군사안보협력 강화에 대해 찬성하는 비율이 높은 상황을 장기적으로 봐야 하지 않나 하는 고민을 늘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965년 한일협정에 의해 미국의 안전보장이나, 경제적 이익을 우선한 한일 양국 정부에 따라 여러 과거 청산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정치적으로 한번 봉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탈냉전 구조와 함께 1990년대 ‘증언의 시대’ 를 열었던 식민지배와 전쟁피해의 ‘기억의 귀환’ 을 저희가 목도했습니다. ‘자유진영의 동맹’ 이라는 이유로 묻어두었던 과거가, 미국 패권 아래에서도 파열음을 냈고, 냉전 체제 하 한일관계의 어떤 정상성이라는 부분에 균열을 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탈냉전 도래와 함께 일본 내에서는 신국가주의나 역사수정주의가 대두하면서 ‘전후 레짐으로부터의 탈각’ 이라는 움직임들이 생겨났습니다. 한국에서는 정치적인 민주화와 사회문화적 다원화 경험이 생기면서 그 안에서 보수, 진보 진영 사이 진영 논리로 다투고, 한일관계를 끌고 들어가는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한일 양국 정부 간 정치적 함의로 쉽게 과거사 문제를 봉합하기는 정말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한국 국내 정치 상황 변동이 한일관계를 결정짓는 경향이 커진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최희식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최근 국제 정세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신냉전’ 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신냉전 시대 해법으로 자유동맹 강화논리에 기초해 한일 간 해결 못했던 과거 문제들을 또 다시 서둘러 봉합하면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 한일 간 대립이 완화되긴 했습니다. 여러 선생님들이 인용하신 동아시아연구원과 켄론NPO의 2023년 한일국민상호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양국 시민 모두 당연히 ‘한일관계가 개선됐다고 느낀다’ 고 응답을 했습니다.

다만 니시노 선생님이 지적해 주셨듯, 지도자 간 신뢰 구축은 분명히 되었지만, 한일관계가 개선됐다고 일반 국민들이 받아들여더라도 일련의 외교적 합의나 자국 정부 결정에 대한 한일 양국 시민 모두 정치적 효능감이 크지 않다. 우리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된 결정은 아니었다는 소외감이 크다는 연구들이 나와 있고, 자국 정부 정책의 수월성에 대한 평가도 굉장히 낮은 편이고, 또 자국 정치에 대한 신뢰도도 굉장히 높지 않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국내에서는 다들 인기가 없는데, 양쪽 대통령이나 총리가 오히려 상대방 나라 시민들이 보기에 ‘그냥 좀 더 낫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대국이나 한일관계에 대한 정보를 주로 얻는 출처는 자국 미디어인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자국 미디어를 통해 대부분 한일관계 상대국에 대한

정보를 얻지만, 한일관계나 자국 언론의 보도공정성에 대한 신뢰도조차 높지 않습니다. 양국 시민들이 보기에 한일관계와 관련해 정치인들에 대한 신뢰도는 낮고, 언론에 대한 신뢰도는 더 낮고, 어찌 보면 회의감과 불신감이 가득한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일관계에서 뭐가 해결되어야 하냐고 물어보면, 한일이 모두 역사 문제를 든다고 합니다. 퍼센티지가 높았는데도, 여러 번 합의와 그에 대한 불인정이나 해석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한일 시민 사회의 역사 문제에 대한 인식이 판이하게 다릅니다. 역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하지만, 한국에서 생각하는 해결과 일본에서 생각하는 해결이 완전히 판이하게 다른 상황이 고착화된 현실에서, 한일 간 대립을 미래지향적으로 극복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공동의 안보이익을 의식해 ‘적어도 전체적인 대립은 피했으면 좋겠다’ 는 답이 더 높은 상황입니다. 이런 게 현실을 반영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안보 이익이 전면화하고, 물론 청산되지 않은 과거 문제가 다시 후경화하는 것이 지금 ‘포스트 탈냉전 시대’ 이긴 하지만, 냉전 시대적인 한일관계의 정상성에 한 번 난 균열이 그렇게 쉽게 봉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한일 외교 측면에서 자국 시민 신뢰를 얻지 못하는 한국 보수 정권과 일본 자민당 정부 사이 안보나 경제협력을 이유로, 역사 문제에 대한 성급한 해법을 내리는 시도가 자국 시민들의 피로감이나 소외감을 자아낼 수 있을뿐더러, 저희가 1990년대에 봤던 것 같은 억압됐던 기억의 귀환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저는 하긴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3자 변제 이후, 한국 여론이 좋아지고 양국 간 미래지향적 관계를 만들어가면 역사 문제도 서서히 해결될 것이라는 것을 봤는데, 생각보다 한국에서는 오히려 하락했더라고요.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만들면, 한일관계 문제가 해결될까라 했을 때 ‘그렇지 않을 것’ 이라는 응답이 오히려 늘어났고, 한일공동선언 필요 여부에 대해 니시노 선생님이 보여주셨을 때, 생각보다 한국에서 ‘필요하다’ 는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제 예상보다 높았는데, 그럴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 뭐냐 하면, 1번은 식민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가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래지향적인 관계구축’ 이고, 세 번째가 ‘독도 같은 영토 문제’ 언급을 했습니다.

일본 쪽에서는 ‘미래지향적 관계구축’ 이 1등이었고, ‘아시아 평화발전에 대한 협력 자세’ 가 2등이어서 사실상 양국 간 인식 차이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고려를 하며 미래 이야기를 하더라도, 여기서부터 출발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지나고 생각하니 기대하신 분야, 사회·문화적 이야기를 못하고 지나갔나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정환 선생님과 고하리 선생님께서도 언급해 주신 것처럼, 양국 간 공동으로 안고 있는 과제에 대한 관심은 정말 큰 것 같습니다. 관련해 젠더 불평등, 저출생 고령화와 같은 문제에 대해 언급을 해 주셨는데, 저는 일본연구소에 있다 보니 저희가 강연도 굉장히 많이 하고 학술 행사도 많이 합니다. 보통은 해당 분야 전문가 선생님들이 많이 보러 오시지만, 그렇지 않고 굉장히 다양한 선생님들이 갑자기 몰려 들어오신다 할 때, 일본에 대해 다른 분야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은 도대체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를 보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사회적인 과제들에 대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저출생 고령화 문제를 다루거나 지방 소외 문제, 청년 문제를 다룰 때 큰 관심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 젠더 불평등이 굉장히 심각한 나라잖아요? 일본과 한국은 월드이코노미포럼(WEC)에서 발표하는 '젠더 갭 랭킹' 에서 2023년에 한국이 105위고 일본은 125위인데 각자 전화에서 6단계, 9단계 떨어졌으니 계속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그래도 한국의 최근 페미니즘 운동이 왕성했기 때문에 한국이 젠더 문제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냐 큰 관심이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남 기정

감사합니다. 역사의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한일관계의 거시사적인 구조의 존재를 고려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른바 '1965년 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리는데요.

저는 일본에서 이어지고 있는, 좀처럼 끝나지 않는 긴 냉전 구조, 그리고 동아시아를 지배하고 있는 장기냉전의 구조를 너무 가볍게 볼 수는 없을 것 같다. 마지막에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켜켜이 중층적으로 쌓여 있는 역사 문제를 고민하지 않고, 역사 문제에 대해 성급한 해법을 내리는 시도는 다른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도 있다는 취지의 토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토론의 마지막, 동북아역사재단 조윤수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조 윤수

안녕하세요, 동북아역사재단 조윤수입니다. 마지막에 토론을 하게 되면 굉장히 부담스럽고 빨리 끝내야 되니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희식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일관계가 요소요소마다 굉장히 위험한 것들,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이 많은데, 지금은 일단 잘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를 관리하려고 하는 어떤 사람들, 집단의 노력이 있다는 것의 예를 들면, 3월 24일 검정교과서 발표가 있을 때 레이와 교과서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봐도 누군가는 끊임없이 한일관계의 위험 요소를 관리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는 이제 국내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법원에 계류된 판결은 거의 다 끝났습니다. 원고 수계인에 대해 제가 조사한 시점은 2022년말, 2023년 말, 2024년초였기 때문에 수계인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성격이 급해요. 뭔가 딱 결정이 나면, 바로 뭔가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님이 계시지만, 이 원고 수계인의 숫자가 미쓰비시 중공업만 봐도 60명입니다. 60명을 만나 동의를 얻고, 실제로는 60명 이상이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보통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을 줘서, 공개적으로 완성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히타치조선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히타치조선 측은 부인을 했지만, 히타치조선이 제공한 금액이 피해 회복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에 의의를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히타치조선은 강제집행을 당하지 않기 위해 한 것에 불과하다고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분은 원고인 동시에 본인이 변호사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교과서 문제는, 레이와 교과서에 관해 저희가 무사히 지나가긴 했지만 지금 보고 있는 건 채택율입니다. 이런 교과서를 누가 채택하겠냐고 하지만, 사립 중학교에서는 조금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민감하게 보고 있고요. 사도광산 문제에 관해서는 2015년 같은 결과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일관계가 좋아지긴 했지만 역사인식문제는 점점 더 벌어지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조선인에 대해 강제노동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2015년 같은 결과는 나오지 않을 것 같지만 7월말에 유네스코 등재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한국 정부가 반대하면, 보통 유네스코에서는 만장일치가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등재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지금 일본 정부에서 문제제기를 표면적으로 하고 있지 않지만, 한국 대법원에서 반인권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국가면제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국가면제가 영원하지 않다는 게 우리 대법원 판결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사실 이슈는 안 나왔지만 화해치유재단에 남은 60억원 통장, 그리고 우리 정부와 100억원의 관계, ‘양성평등기금’ 이라는 것을 만들었지만, 저도 정부는 아니지만 공공기관에 있을 때 예산을 사용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예산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에 관해 지금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아닌지에 대해 거의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무리를 지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항상 일본 분들을 만나면 제가 일본에 살았을 때, 저는 후쿠시마 쌀, 후쿠시마 복숭아를 너무 좋아해서 매년 먹었습니다. 제가 도호쿠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후쿠시마를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후쿠시마 문제가, 거꾸로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과연 일본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지금 해양 쓰레기 문제도 해양백서에 매번 들어가고 있거든요.

제가 이 문제에 대해 이렇게 얘기하면 일본에서 전문가답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데, 약간 서운한 감, 그러니까 신뢰성이 우리 국민들한테 전달되지 않은 점에 대해 조금 서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22년까지 일본 내에서도 법원에 손해배상청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3건 정도 했습니다. 이 문제도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있을 경우, 저희도 도쿄전력이나 일본 정부에, 또 법원에 배상을 청구하느냐,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만약 입증 가능한 피해가 나오면, 이것은 그렇게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일대륙붕 문제에 대해, 얼마 전 해양경계 획정 다음은 해저자원문제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 언론에서도 자원문제 많이 다루잖아요?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대한석유공사에서 연락을 받아 간담회를 간 적이 있는데, 사실 저는 자원문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만약 여기에 정말 석유가 매장돼 있다면, 일본의 에네오스, 브리티시 페트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저는 이 문제는 거꾸로 해양경계협정으로 들어가서 한일이 공동으로 협력을 해야 되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해양경계협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독도 문제가 있고, 동중국해 문제도 독도 문제만큼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해양대륙붕 공동개발과 관련해 협정을 종료시켰을 때 양국 다 현상을 변경하게 되면, 굉장히 복잡한 수순에 접어들기 때문에, 위안부 문제나 강제동원 문제와 달리 한일이 협력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문제는 아니고, 중국을 일본도 한국도 각각 혼자서 대응해도 저는 별로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해양경계협정 차원에서 2012년 이후 종료된 상황에서, 어업협정도 경계협정이 없기 때문에 어업협정으로 갔는데, 저는 이 문제를 협력해 연장을 계속 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라인야후 문제도 있었는데, 저도 라인야후 문제에 관해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넷마블이나 NC소프트에 소프트뱅크가 투자를 했을 때 항상 50대 50입니다. 보통 50대 50은 안 하잖아요. 49대 51이 많은데, 왜 손정의 사장님은 50대 50을 좋아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개인 취향인 것 같아요. 50대 50을 가져가는 게, 이창민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 사이버 보안협력 차원에서 협력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남 기정

감사합니다. 새로운 미래로 나가기 위해 각오를 해야 되는데, 처리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 현안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집합이 있습니다. 발제문에 있는 말로 표현하자면 '목에 걸린 가시를 어떻게 빼낼 것인가' 를 함께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2부 주제가 '새로운 미래' 였는데 오히려 1부보다 조금 더 친근한 느낌이 듭니다. 경제협력 분야에서 굉장히 많은 과제들이 있다는 것을 던져주시기도 했지만, 세 분이 말씀하신 것은, 그래도 미래로 가기 위해서는 풀지 않으면 안 될 과제들이 있다. 그리고 주로 역사와 관련한 과제들이 있다. 이것을 결코 가볍게 보지 말아야 된다는 방향에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즉, 슬기로운 문제 풀이가 필요하다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세 분께서, 지금 네 분의 토론자 이야기를 듣고 혹시 반영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반론해야 되는 부분이나 보완적으로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3분에서 5분 정도로 정리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니시노 선생님부터 말씀을 들어볼까요?

■ 니시노 준야

감사합니다. 상당히 어려운 주제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진지하게 말씀드리기 위해 한국어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우리가 과거 10년 동안 나름 배웠던 학습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일관계 현안들을 너무 전체화시키면 안 된다, 그리고 아무리 어려운 현안이 있다 해도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은 협력해야 된다는 게 최악의 10년 동안 배웠던 학습이었습니다. 그것을 잘 살려야 된다는 게 저의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취지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기 위해 제가 정치외교안보를 주로 전공하다 보니 국가 혹은

행정부의 역할이 확실히 있어야 하고, 행정부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10년 동안 악화됐던 관계를 윤 정부가 잡아준 것에 대한 저의 개인적 평가는 높습니다. 행정부가 역할을 해야 할 부분이 있고, 윤 정부는 그런 관점에서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는 것과 동시에, 국내적으로 다스려야 하는 부분, 이해를 구해야 하는 부분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 이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시다 정부도 아직 일본 내 이해를 구하는데 있어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건 맞습니다. 다만 그래도 행정부가 역할을 할 때는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는, 내년 (편집자주: 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합니다만, 60년을 돌이켜보면 저는 다르게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상대 측 선생님들은 상당히 냉철하고, 엄격한 평가를 하셨는데, 저도 기본적으로 현대사를 배우는 입장에서 많은 부분 동의하지만, 그래도 1990년대, 적어도 2000년대 초반까지 한일관계를 본다면 나름의 노력이 있었던 것 같고, 오늘 한국 측 선생님들 말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던 것은 일본 관점에서 조금 아쉽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한국 측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미숙한 노력이었고, 또 정부가 나서는 것보다 여성기금이 나서서 했다는 것은 상당히 불충분했다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당시 분위기나 환경에서는 일본 정부가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한 거 아닌가, 이 부분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는 점을 포함한다면, 60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에 한일관계에 조금 더 객관적이라고 해야 할까요? 냉철한 평가가 있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것을 바탕으로, 내년 60주년을 어떻게 맞이하고 앞으로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는지 고민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바람직하다면 공동성명, 선언 같은 것이 나오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지만, 그게 어렵다 하더라도, 아까 고타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국민들의, 시민들의 기억에 남는 조치가 하나라도 있으면 좋겠다. 김포-하네다가 그랬던 것 같고, 앞으로 출입국절차 간소화 같은 것 하나라도 앞으로의 한일관계에 많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베 마코토 지금까지 여러분의 말씀을 들으며 여러 반성할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까 한국이 라인야후 문제로 너무 시끄러운 것이 아닌가 말씀드렸는데, 니시노 선생님으로부터 그 배경에 “한국의 일본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작년(2023년) 4월 정도 일한협력에 관한 온라인 세미나에 참석했을 때, 한국 선생님들은 일한관계 개선에 매우 적극적이었는데, 3월 일한정상회담 바로 뒤였기에 일본에서는 아직 회의적이고 협력을 추진할 분위기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지금, 일본이 일한관계 개선에 이상할 정도로 안심하게 돼, 관계 개선의 추가 추진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닐까 이번에 강하게 느끼게 됐습니다.

경제에 관해, 최근의 경제안전보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일한은 안전보장의 관점에서 다양한 형태로 굳건하게 협력할 수 있다고 상상할

수 있어도, 경제안보는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본래 디커플링이 진행되는 가운데,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의 협력이나,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는 일한 모두 미국의 기술패권 혹은 에코시스템 안에 있으며, 무엇보다 미국과의 안전보장이 중요하다는 점을 생각하면, 본래는 일한이 좀 더 협력을 할 수 있는 분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제안보 측면에서 협력이 좀처럼 진행되지 않는 이유는, 조금 전 이정환 선생님에게 지적을 해주셨지만 원래 경제안보 자체의 한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미한 기업은 서로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 주도 경제안보에서 결국 미국은 자국중심주의를 내걸고, 미국 내 생산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제로 생각해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미국은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 어떻게 자국 내 생산을 완결할 것인가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기에, 결국 일본과 한국 모두 미국과 협력하면서도 여러 제약이 생겨난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일한에 한정해 말씀드리면, 산업구조가 매우 유사하고 경쟁관계가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비슷한 산업이 있으면, 수평적 관계에서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있는 반면, 경쟁 분야도 많이 있습니다.

아까 일본 안에서 한국과 경제협력을 원하는 분위기가 별로 없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산업구조가 비슷한 가운데, 일본 산업이나 기업들은 점점 한국에 추월당하고 있습니다. 주목받던 기업이 경쟁에서 지거나, 지금도 치열하게 경쟁하는 상황이 주목받기에 좀처럼 협력을 원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반도체 분야에서처럼, 한국 기업에 부품을 공급하는 일본 기업은 매우 많고 거래도 활발하지만, 그것보다 눈에 띄는 일한 기업 경쟁 승패에 초점이 맞춰져, 좀처럼 협력을 원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어, 수소경제 분야에서 일한 간 조건이 매우 유사하지만, 아직 양국 모두 관련 생태계가 마련되지 않았기에 협력에 대한 기대가 커집니다.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분야별 유망 사례를 하나하나 따져, 일한 정부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꾸준히 지원을 이어나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잠정적인 제언이 되었지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하리 스스무

남 선생님 말씀대로, 어느 쪽인가 하면 역시 과거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어제 비행기 안에서 네 분의 코멘트를 읽었는데 롤러코스터라고 할까, 난기류에 시달리는 비행기 안에서 읽은 탓인지, 매우 불안한 마음을 안고 서울에 왔습니다.

지금 제가 '불안' 이라는 말을 썼는데, 저는 일본과 한국이 어떻게 '서로 바라보고' 있는지, 상대국이 서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아까 이원덕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과 관련이 있는데, 일본에는, '현재 비교적 일본과 한국 관계가 좋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 '(한국에서 여당이) 선거에서 졌으니 어떻게 될까' 하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또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최희식 선생님이 지적한 대로,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2019년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바라보기' 는 (일본인의 한국관에 있어서) 역시 상당히 결정적 부분이 있었습니다.

2015년 박근혜 정권과 아베 정권의 ‘위안부합의’가 결국 지켜지지 않은 채 화해·치유재단이 해산됐고, 징용공 문제 판결을 포함해 한국에 대해 ‘(정해진 일을) 뒤엎는 나라’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러한 ‘바라보기’가 결정적인 영향을 줘, 오늘 이 자리에서 거론된 문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해 일본 국내에서 어느 정도 새로운 합의를 이룰 수 있는가 묻는다면 매우 어려울 것이고, 합의를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더 불안하게 느껴집니다.

한편 한국 측 불만도 굉장히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지난 2년은 윤 대통령뿐만 아니라 언론도 포함해, 상당히 평가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측 지도자는 어느 정도 리더십을 바탕으로 양보했지만, 일본 측 지도자가 그다지 호응해 주지 않는다는 ‘불만’입니다. ‘불안’이 아닌 ‘불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일본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지만, 일본 기업이 할 수 있는 일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지금 한국 정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지원재단’의 자금이 바닥나는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일본 기업이 무언가를 재단에 출연하는 데 대해, 일본 정부가 ‘알지 못한다’는 식으로 묵인하는 발언이 나와도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국 측 ‘불만’을 해결할 정도가 아닐지 모르지만, 즉 해결이라 할 수는 없지만, 좋은 분위기를 조성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측 ‘불안’과 한국 측 ‘불만’이 그대로 변하지 않으면 좋겠으나, 2019년의 교훈을 고려하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불신’일 것입니다. 커다란 ‘불신’이 싹트게 된 것입니다. ‘불안’과 ‘불만’은 있어도 되겠지만, ‘불신’을 갖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점이 중요합니다. 저는 지금 솔직히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불신을 불신하지 않으려면 이러한 대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인야후 문제에 관해서, 저도 일본이 계획적으로 뭔가 꾸미고 있는 것은 아니라 생각하고, 언론이 좀 더 냉정한 보도를 해 주었으면 합니다.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역시 언론 영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교과서 문제도 최희석 선생님이 지적했지만, 규탄하는 듯한 보도의 논조가 불신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향후에도 다양한 문제에서 의견이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럴 것이기에, 그 경우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저희 연구자들도 생각해야 합니다. 특히 양국 정치인들이 자기 진영 논리에 맞게 편리하게 해석하거나 어필하는 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것을 저희들이 ‘감시’해야 하지 않을까, 오늘 토론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의 문제제기에 대해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면 된다’는 제언은 아니지만, 지금 막 생각난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남기정 감사합니다. 시간이 한 5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플로어에서 특별히 질문을 받는 것은 시간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이 아니라 원 포인트로 지금까지 나오지 않은 얘기에 대해 보충해 코멘트를 하시거나 자기 의견을 얘기해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때도 너무 길지 않게 1, 2분 정도로

정리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중 A 모든 문제를 ‘재난’ 으로 보고 있어서, 저는 한일관계도 재난에 빠져 있다, 그래서 어떻게 안전한 길로 이끌어낼 것인가라는 부분을 늘 보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롤러코스터라는 제목 자체가 1977년 미국 영화를, 일본에서는 ‘제트롤러코스터’ 로 번역을 하고, 한국에서는 2013년 한국영화를 ‘롤러코스터’ 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역시 일본에서 ‘제트코스터’ 라는 말로 번역을 하지 않으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미국 영화는 ‘제트롤러코스터’, 한국 영화는 ‘롤러코스터’ 라는 것에서, 역시 어떤 입장에서 바라보는 게 나올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정환 교수님이 지적하셨듯, 한일 간 문제를 양자가 아니라 국제적인 한일관계, 그러니까 미니 멀티라터럴리즘 같은 다국적 다자주의 관점에서 보는 시각 자체에 대해, 원래는 니시노 준야 교수님한테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베 마코토 선생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것은, 한일관계, 특히 경제통상분야에서 봤을 때 세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계속해서 일본을 한국이 캐치업하고 있다, 즉 ‘캐치업ing’ 이고, 두 번째는 수평화된 한일관계라는 요코하마시립대 국중호 교수님이 편찬했던 책들, 세 번째는 한일 간 역전이라는 것으로 보는데, 이 세 가지 시각에 한일 경제관계가 어느 시점에 있는지에 따라, 해법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과거의 처리 문제에 주목하기보다, 미래 리스크, 이것을 제가 ‘미제학’ 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 미래 리스크를 관리한다면, 목에 가시가 걸리지 않게 어떻게 생선을 발라먹을 것인가라는, 다가올 미래를 생각한다면 관리 방법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제 의견을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중 B 두 번이나 발언을 신청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도 관대하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까 우울하다고 하셨잖아요. 왜 우울한가? 목에 가시가 있어서, 그런데 아무도 가시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다. 가시가 있었을 때 어떻게 대응할까에 대한 어프로치를 하는 것 같아요. ‘신시대 공동선언’ 을 보면 과거 직시와 미래 협력을 같이 한다고 했습니다. 주일한국대사를 지내신 오재희 대사님께서 과거에 꽃이 아름답게 피어서 그걸 보고 우리는 “봄이 되어서 꽃이 피었다” 고 보는데, 저 형제는 “매일 조금씩 기온과 습도가 오르면서 꽃이 피었다” 고 한다고 합니다. 과거사 문제에 대해 역사 문제가 100% 완료되고 나서 한일 협력을 하려고 하는 발상도 있고, 과거사 문제가 남아 있지만 미래 협력을 하면서 과거사 문제를 다뤄가는 방법도 있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했습니다.

우리가 미래 협력을 하다 보면,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커질 때 일본의 역사 도발을 지체시키는 효과가 있고, 또 일본에게 과거사와 화해를 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그만큼 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외교는 G7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거기 들어가고, 한일 양자 관계 외에 지역, 글로벌 차원의 역할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100년 전 역사 문제에 대한

우리의 집착이라고 할까요? 그게 너무 과도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중요한데 그 외 문제, 안보나 경제분야에 있어서 일본과의 협력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한미가 협력하는 데 있어서, 원활한 한일관계는 베이스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접근을 한다면 과거성에 남아 우울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독일과 프랑스도 역사를 100% 다 하고 협력했던 건 아닙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얘기입니다.

남 기정 감사합니다. 제가 마무리 발언으로 하고 싶었던 얘기를 먼저 하셔서, 저희 쪽에 좀 또 말씀하실 분 계실까요? 그럼 오늘 마지막 발언으로 하겠습니다.

정 미애 조운수 박사님께서 도호쿠대를 나오셔서 후쿠시마를 사랑한다고 하셨는데, 저도 전직 주니가타총영사로서 니가타를 매우 사랑한다는 걸 전제로, 사도 광산에 대한 조운수 박사님 발표문에서 일본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데 대해 ‘우리는?’ 하고 질문으로 끝났는데 답이 없어서 보충설명과 사실관계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5월 11일 산케이신문이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한국의 태도 윤 정권 출범 후 변화’ 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이것을 받아 한국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보면 4월 4일과 4월 5일 윤덕민 주일대사께서 니가타현 지사를 만나 사도 광산에 한국이 반대할 의사가 없다는 언급을 이미 하셨습니다. 사도시장과 면담에서는 사도 광산이 세계유산에 등재해도 좋을 만큼 훌륭한 곳이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한국 언론에서는 이런 보도가 거의 나오지 않았고, 이제 찾아보면 보실 수 있는데 주일 대사는 것은 ‘특명전권대사’ 죠. 우리가 그냥 ‘대사, 대사’ 이렇게 줄여 부르지만, 전권을 위임받은 대사가 니가타현지사나 사도시장을 만나 한 발언이 개인적 발언일 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정부 입장은 이미 찬성으로 정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인도 뉴델리에서 7월 21일부터 열리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가 결정될 예정인데, 아마 확실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남 기정 감사합니다. 지금 전개되고 있는 사항 한 가지를 조금 더 확인해 주셨습니다.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얘기들이 나왔는데, 내년이 60주년이라는 것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동선언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억에 남는 국민들의 마음에 남는 일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60이 돼서 보니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까라는 걸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일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변을 보면 나이 들어 더 고집이 세지고 목소리가 높아지는 분들도 계십니다. 60살을 슬기롭게 지내는 사람은 조금 더 너그러워지고 포근해지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한일관계도 그럴 수 있어야 되겠죠. 조금 더 어렵고 편안하고 그런 한일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러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 얘기도, 조금 더 편안하게 하고, 조금 더 밝은 분위기에서 하는 관계가 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게 없다’ 는 식으로

덮어버리지 말고, 얘기를 하고 싶은 분위기가 있는데 이틀마다 하지 않고, 한편으로는 그것을 고집해 '그게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된다' 고 하는 식으로 모든 관계를 부정해 버리지 않고, 함께 논의하면서 편안하게 웃으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관계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2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태봉 그러면 오늘 열렸던 '롤러코스터 한일관계, 무엇이 신기루인가' 라는 주제로 한 학술대회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폐회사는 이마니시 준코 아쓰미국제교류재단 상무님, 그리고 김웅희 현대일본학회 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이마니시 준코 상무님, 마지막으로 김웅희 현대일본학회 회장님의 폐회사가 있겠습니다.

폐회사

이마니시 준코

아쓰미국제교류재단 · SGRA



[원문은 일본어. 번역 윤재연(릿쿄대)]

아쓰미재단 상무이사 이마니시 준코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훌륭한 발표와 활발한 토론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롤러코스터와 같은 일한관계지만, 덕분에 일한아시아미래포럼은 23년 동안 차질 없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본 사업은 ‘일한의 젊은 연구자들이 상호 방문하는 프로젝트를 매칭 펀드로 개최하자’ 라는 미래재단 이진규 선생님의 제안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첫회는 2001년 10월 서울 교외 양평에 있는 미래재단 교류관에서, 미래재단과 아쓰미재단의 젊은 연구자들이 모여 세미나를 개최한 후, 삼겹살과 이원덕 선생님이 주도한 폭탄주 회식으로, 처음부터 매우 농밀한 교류 사업이 되었습니다.

제2회는 다음 해인 2002년 여름 미래재단 여러분을 가루이자와로 초대해, 아쓰미 장학생들과의 내부 연구회와 함께 ‘글로벌화 속 동아시아’ 라는 포럼을 일반인에게도 공개하는 형태로 개최하여, 미야자와 기이치 전 총리께서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후에는 나라와 경주에서 고대 문화 교류에 대해 생각해 보거나, 2008년에는 광, 2013년에는 호주에서 외부에서 본 일한관계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2020년은 중단되었지만, 2021년과 2022년 온라인으로 개최하였고, 작년 4월에는 미래재단 여러분을 도쿄로 초대하여 아쓰미재단홀과 온라인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이렇게 고정된 형식 없이, 매년 다양한 가능성을 모색하며 23년 동안 일한아시아미래포럼을 실시해 왔습니다. 이 기간 많은 일이 있었지만 계속할 수 있었던 주역은 명 코디네이터 김웅희 선생님이었습니다.

이번 포럼은 미래인력연구원뿐만 아니라, 한국의 현대일본학회 및 서울대 일본연구소와의 공동 주최로, 아마도 한국에서 개최하는 일한아시아미래회의 중 최대 규모일 것입니다. 서울대 일본연구소는 장소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쓰미국제교류재단은 원래 일본 대학원에서 박사 논문을 집필 중인 젊은 연구자를 지원하는 장학 재단입니다. 현대일본학회 김웅희 회장님, 서울대 일본연구소 남기정 소장님은 1996년도 저희가 지원해드린 인연으로, 그 후 30년간 계속해 교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매우 드문 일로, 오늘은 정말 장학 재단으로서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일한아시아미래포럼이 23년 동안 끊임없이 계속돼 온 것에 대해, 이진규 선생님을 비롯한 미래재단 여러분, 그리고 이를 지원해주신 일본과 한국의 많은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이 프로젝트도 슬슬 다음 세대로의 계승을 고민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한관계도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것일지 모릅니다. 이 혼란한 세계 속에서 일한이 협력하여 더 평화로운 세상을 향해 나아가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모여 이렇게 충실한 말씀을 들을 수 있어, 정말 감사했습니다.

폐회사

김 옹희

현대일본학회



현대일본학회 회장 김옹희입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통 학회 세미나를 가면, 참석자가 발표자, 토론자, 후에 두세 명, 이게 일반적인 현상인데 오늘은 아주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열띤 토론에 참가해 주셨습니다. 온라인으로도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 이게 저는 신기루가 아닐 것이라고 믿습니다.

롤러코스터는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즐겨하는 사람도 있고, 또 좋아하진 않지만 타지 않는 사람도, 보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한 동력이 유지되는 한, 롤러코스터는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을 것이고, 출발점으로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일관계도 ‘야마아리, 타니아리(山あり谷あり)’ (편집자주: 우여곡절) 롤러코스터 같은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동력을 유지하는 한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동력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한국과 일본은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국가이고, 경제적 상호의존이 굉장히 심화되어 왔고, 거기에 국민 교류의 성과가 매우 큰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한 동력이 유지되는 한, 롤러코스터를 두려워하지 않고 즐길 수 있지 않을까, 두려워할 대상만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고받은 말씀들, 제시된 여러 좋은 아이디어들이 정책 서클이나 실천적인 자리에서 잘 활용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 이번 학회는 한국 미래인력연구원과 일본 아쓰미국제교류재단의 공동 주최로 전개가 됐습니다. 말씀 많이 하셨기 때문에 부연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진규 교수님과 이마니시 준코 상 사이 흔들리지 않는 신뢰, 그리고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20여년 이어져 왔습니다. 사실 민간 재단이 이런 모임을 이어오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모임을 통해 여기에 계신 상당수 학자들께서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포럼에서 활동해 주셨고 네트워킹에도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두 분의 신뢰와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 같은 풍요로운, 풍성한 네 기관 공동주최 학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 조금 좀 뿌듯한 마음입니다.

오늘 이 모임을 위해 빈틈없이 준비해 주신 서울대 일본연구소 스태프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까지 좁은 부스 안에서 고통스러운 통역을 해주신 이해리 통역사, 안영희 통역사에게도 감사의 말씀드리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자 약력

■ 니시노 준야 (西野純也) / NISHINO Junya

게이오기주쿠대 법학부 정치학과 교수, 동대학 동아시아연구소장, 한반도연구센터장. 게이오기주쿠대 대학원 법학연구과 정치학전공 석사과정 졸업, 동박사과정 학점취득퇴학. 연세대 대학원 정치학과 박사과정 졸업(정치학 박사). 전문은 동아시아 국제정치, 현대 한국 북한정치, 한일관계. 공편저로 『한국에서의 시민의식 동태Ⅱ』, 『전환기 동아시아와 북한 문제』, 『조선반도 질서 재편』, 『격동의 한반도 읽기』(모두 게이오기주쿠대학 출판회) 등.

■ 이 창민 (李昌旻) / LEE Chang Min

고려대에서 경제학 학사 및 석사 학위 취득 뒤, 일본에 건너가 도쿄대에서 경제학 석사 및 박사 학위 취득. 도쿄공업대 사회공학과(현재의 경영공학계)에서 교편을 잡았다. 동일본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경험했고, 10년 가까운 일본에서의 생활을 마치고, 2014년부터 한국외대로 옮겨 융합지역일본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저서 및 역서로는 『지금 다시, 일본 정독』(2022), 『아베노믹스와 저온 호황』(2021), 『제도와 조직의 경제사』(2017) 등이 있다.

■ 고히리 스스무 (小針進) / KOHARI Susumu

시즈오카현립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1963 년생. 전공은 현대한국·조선사회론, 동북아시아 지역연구. 도쿄외대 조선어과 졸업,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사과정 중퇴. 특수법인 국제관광진흥회 도쿄본부 직원, 동 서울사무소 차장, 외무성 전문조사원(주한일본대사관 근무) 등을 거쳐 현직. 게이오대학 강사 등 겸무. 저서로 『일한의 미래도 문화에 대한 열광과 외교의 흠』(공저, 集英社, 2024년), 『최서면과 한일의 정재관학 인맥—한국 지일파 지식인의 오렐 히스토리』(편저, 同時代社, 2022년), 『문재인 정권기의 한국사회·정치와 한일관계』(柘植書房新社, 2021년), 『한중일의 상호 이미지와 포퓰러문화—국가 브랜딩정책의 전개』(공편저, 明石書店, 2019년), 『한일관계의 쟁점』(공편저, 藤原書店, 2014년), 『한류핸드북』(공편저, 新書館, 2007년), 『한국인은 이렇게 생각한다』(新潮新書, 2004년) 등.

후기를
대신하여

하라다 켄

아쓰미국제교류재단 사무국장

푸른 나뭇잎이 아름답고, 불어오는 바람이 상쾌했던 2024년 5월 18일(토) 오후, 서울대 국제대학원 회의실에 일한 양국 연구자 50명 이상이 모여, 온라인 회의를 병행한 제22회 일한아시아미래포럼 ‘‘롤러코스터’ 한일관계, 무엇이 신기루인가?’ 가 열렸다.

2023년 3월 징용공 문제의 제3차 지원 해결방안을 계기로, 7차례 정상회담을 거쳐 일한관계는 급속히 정상화 궤도에 올랐다. 지난 1년간 성과와 과제, 그리고 일한 협력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정치·안보, 경제·통상, 사회·문화 세 분야에서 논의가 이루어졌다.

먼저 미래인력연구원(미래재단) 이진규 이사장은 “아쓰미재단과 미래재단은 한일 양국이 롤러코스터처럼 엇박자 관계에 있을 때도 변함없이 우호 관계를 유지해왔다. 마치 평탄한 길을 달리는 롤러스케이트와 같다. 두 재단이 30주년을 맞았는데, 앞으로 40주년, 50주년까지 협력해 공동 사업을 계속 이어가기를 바란다” 고 인사말을 전했다.

서울대 일본연구소 남기정 소장은 “나가사키현 쓰시마로 가는 배를 탔을 때 ‘한일 관계’ 를 느꼈다. 바깥 경치를 보고 싶어 창가에 앉았지만 파도가 거세서 심하게 배멀미를 했고, 가운데서 균형을 잡고 앉은 사람들은 멀쩡해 보였다. 정신이 흐릿한 가운데 육지로 보였던 신기루는 높은 파도였다. 그때 빨리 육지에 도착하고 싶다는 생각보다 포기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느꼈다. 화해는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한일관계는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당신이 생각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라는 점을 생각하게 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고 말했다.

제1부 ‘한일관계 복원 1년, 평가와 과제’ 에서는 먼저 니시노 준야 게이오대 교수가 정치·안보 분야 성과로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협력파트너로서의 관계 재확인, 지도자 간 신뢰 구축, 정부 간 대화·협의 채널 복원 및 신설, 정치인 간 네트워크 활성화 등을 언급했다. 또 과제로는 협력 파트너로서 국민적 이해와 공감대 형성, 이를 위한 제도적 조치의 실시, 유럽연합(EU)의 역사적 경험, 국내 정치의 부정적 영향 관리 및 감소, 상호 정책·전략에 대한 이해 등을 꼽았으며, 남은 3년 동안 윤석열 정권이 국민적 지지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지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창민 한국외대 교수는, 일본이 방침을 발표한 후 4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한국을 안보상 문제가 없는 국가로 수출 절차를 간소화한 ‘그룹 A(구 화이트국)’ 에 재지정한 것은 일본 행정 절차상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2023년을 기점으로 일한관계가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경제 안보는

‘큰 정부의 시대’의 도래를 의미하지만, 일한 양국 모두 기업의 동기 부여와 인센티브를 고려하지 않으면 정책적 연대가 지체될 수 있으며, 총선 이후 한국의 ‘여소야대’ 상황, 일본의 리더십 상황,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복귀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협력 시나리오가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마지막으로 고하리 스스무 시즈오카현립대 교수는, 지난 5년간 음악 동향을 요약한 ‘오리콘 랭킹’에서 한국 BTS가 일본에서 가장 많이 팔린 것, 일본의 수입 화장품 1위가 한국 제품이며, 일본 여성들이 패션에서 가장 참고하는 나라도 한국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사회·문화 모든 분야가 지난 1년간 완전히 ‘복원’된 것은 아니지만, 정치·외교 관계의 ‘복원’이 일한 간 인적 교류를 증폭시켜, 문화 교류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양국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새로운 일한공동선언이 필요한가, 새로운 비전(젠더, 저출산 고령화, 환경, 재난, 국제 협력, 대북문제 등)은 무엇인가, 그리고 애당초 선언을 발표할 수 있는 정치적 환경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세 명의 발표에 대해 세 명의 토론자의 코멘트가 있었다. 김승배 부경대 조교수는 니시노 교수의 발표(관계 복원을 향한 움직임, 1년의 성과, 과제)에 대해 세심하게 논평했다. 아베 마코토 아시아경제연구소 상석주임조사연구원은 이 교수의 “2023년 일한관계가 새로운 단계에 진입한 가운데, 새로운 협력과 경쟁의 중층적 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지만, 일한협력의 방향을 논의할 때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동의하며 보충적 논평을 했다. 정미애 서울대 일본연구소 객원연구원은 고하리 교수의 관점에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토론자라는 입장에서 “선언을 발표할 수 있는 정치적 환경”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휴식 후 제2부 ‘한일관계의 새로운 비전과 협력방향’에서는 패널 토론이 진행되었다. 국민대 최희식 교수, 서울대 이정환 교수, 서울대 일본연구소 정지희 교수, 동북아역사재단 조윤수 선생, 니시노 교수, 고하리 교수, 아베 연구원 등 7명이 차례로 발언했다. 고하리 교수는 “일한양국이 각각 상대국을 어떻게 인식하는가라는 측면에서 불안해졌다. 앞으로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될 것인가? 2019년 당시 일본이 한국을 보는 시각에서는 위안부, 징용공 문제를 다시 꺼내는 나라라는 인식이 있었다. 한편, 한국이 가진 불안도 이해할 수 있다. 일본에 대한 불만도 있을 것이다. 불안과 불만이 있더라도 불신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언론에는 정확한 보도를 부탁드린다. 규탄하는 보도는 ‘불신’을 초래한다”는 코멘트가 인상적이었다.

폐회에 앞서 아쓰미국제교류재단 이마니시 준코 상무이사는 “이번 포럼은 미래인력연구원뿐만 아니라 한국의 현대일본학회, 서울대 일본연구소와 공동으로 주최하여, 한국에서 열린 일한아시아미래포럼 중 최대 규모였다. 아쓰미재단은 일본 대학원에서 박사 논문을 작성 중인 젊은 연구자들을 지원하는 장학 재단으로, 현대일본학회 김웅희 회장, 서울대 일본연구소 남기정 소장은 1996년도 지원을 받았던 인연으로 그 후 30년간 교류를 지속해왔다. 이런 일은 매우 드물며, 오늘은 정말로 장학 재단으로서 보람을 느낀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일한아시아미래포럼의 존속에 중요한 역할을 한 인하대 김웅희

교수는 “한일관계는 격렬하게 오르락내리락하는 롤러코스터 같다. 일정한 동력이 있으면 롤러코스터는 탈선하지 않는다. 한일관계에도 그 동력이 작용하여 ‘산도 있고 골짜기도 있는’ 굴곡 있는 상황을 즐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고 인사했다.

포럼이 끝난 후, 참가자들은 서울대 인근의 학생 거리에서 삼겹살과 ‘폭탄주’ 를 즐겼다.

(하라다 켄 「第22回日韓アジア未来フォーラム『ジェットコースターの日韓関係——何が正常で何が蜚気楼なのか』報告」에서 전재)



■ 하라다 켄 (原田 健) / HARADA Ken
 아쓰미국제교류재단 사무국장. 가시마건설 (주), 일본건설업연합회 등을 거쳐 2023 년부터 아쓰미재단에서 근무.

SGRA レポート バックナンバーのご案内 (보고서 지난호 안내)

- SGRA レポート01 設立記念講演録 「21世紀の日本とアジア」 船橋洋一 2001. 1. 30 発行
- SGRA レポート02 CISV 国際シンポジウム講演録 「グローバル化への挑戦：多様性の中に調和を求めて」
今西淳子、高 偉俊、F. マキト、金 雄熙、李 來賛 2001. 1. 15 発行
- SGRA レポート03 渥美奨学生の集い講演録 「技術の創造」 畑村洋太郎 2001. 3. 15 発行
- SGRA レポート04 第1回フォーラム講演録 「地球市民の皆さんへ」 関 啓子、L. ビッヒラー、高 熙卓 2001. 5. 10 発行
- SGRA レポート05 第2回フォーラム講演録 「グローバル化のなかの新しい東アジア：経済協力をどう考えるべきか」
平川 均、F. マキト、李 鋼哲 2001. 5. 10 発行
- SGRA レポート06 投稿 「今日の留学」「はじめの一步」 工藤正司 今西淳子 2001. 8. 30 発行
- SGRA レポート07 第3回フォーラム講演録 「共生時代のエネルギーを考える：ライフスタイルからの工夫」
木村建一、D. バート、高 偉俊 2001. 10. 10 発行
- SGRA レポート08 第4回フォーラム講演録 「IT 教育革命：ITは教育をどう変えるか」
臼井建彦、西野篤夫、V. コストブ、F. マキト、J. スリスマンティオ、蔣 恵玲、楊 接期、
李 來賛、斎藤信男 2002. 1. 20 発行
- SGRA レポート09 第5回フォーラム講演録 「グローバル化と民族主義：対話と共生をキーワードに」
ペマ・ギャルポ、林 泉忠 2002. 2. 28 発行
- SGRA レポート10 第6回フォーラム講演録 「日本とイスラーム：文明間の対話のために」
S. ギュレチ、板垣雄三 2002. 6. 15 発行
- SGRA レポート11 投稿 「中国はなぜWTOに加盟したのか」 金香海 2002. 7. 8 発行
- SGRA レポート12 第7回フォーラム講演録 「地球環境診断：地球の砂漠化を考える」
建石隆太郎、B. プレンサイン 2002. 10. 25 発行
- SGRA レポート13 投稿 「経済特区：フィリピンの視点から」 F. マキト 2002. 12. 12 発行
- SGRA レポート14 第8回フォーラム講演録 「グローバル化の中の新しい東アジア」 + 宮澤喜一元総理大臣をお迎えして
フリーディスカッション
平川 均、李 鎮奎、ガト・アルヤ・プートゥラ、孟 健軍、B. ヴィリエガス 日本語版2003. 1. 31 発行、
韓国語版2003. 3. 31 発行、中国語版2003. 5. 30 発行、英語版2003. 3. 6 発行
- SGRA レポート15 投稿 「中国における行政訴訟—請求と処理状況に対する考察—」 呉東鎬 2003. 1. 31 発行
- SGRA レポート16 第9回フォーラム講演録 「情報化と教育」 苑 復傑、遊間和子 2003. 5. 30 発行
- SGRA レポート17 第10回フォーラム講演録 「21世紀の世界安全保障と東アジア」
白石 隆、南 基正、李 恩民、村田晃嗣 日本語版2003. 3. 30 発行、英語版2003. 6. 6 発行
- SGRA レポート18 第11回フォーラム講演録 「地球市民研究：国境を越える取り組み」 高橋 甫、貫戸朋子 2003. 8. 30 発行
- SGRA レポート19 投稿 「海軍の誕生と近代日本—幕末期海軍建設の再検討と『海軍革命』の仮説」 朴 栄濬
2003. 12. 4 発行
- SGRA レポート20 第12回フォーラム講演録 「環境問題と国際協力：COP3の目標は実現可能か」
外岡豊、李海峰、鄭成春、高偉俊 2004. 3. 10 発行

-
- SGRA レポート21 日韓アジア未来フォーラム 「アジア共同体構築に向けての日本及び韓国の役割について」2004. 6. 30 発行
- SGRA レポート22 渥美奨学生の集い講演録 「民族紛争－どうして起こるのか どう解決するか」 明石康 2004. 4. 20 発行
- SGRA レポート23 第13回フォーラム講演録 「日本は外国人をどう受け入れるべきか」
宮島喬、イコ・プラムティオノ 2004. 2. 25 発行
- SGRA レポート24 投稿 「1945年のモンゴル人民共和国の中国に対する援助：その評価の歴史」 フスレ 2004. 10. 25 発行
- SGRA レポート25 第14回フォーラム講演録 「国境を越えるE-Learning」
斎藤信男、福田収一、渡辺吉裕、F. マキト、金 雄熙 2005. 3. 31 発行
- SGRA レポート26 第15回フォーラム講演録 「この夏、東京の電気は大丈夫？」 中上英俊、高 偉俊 2005. 1. 24 発行
- SGRA レポート27 第16回フォーラム講演録 「東アジア軍事同盟の過去・現在・未来」
竹田いさみ、R. エルドリッチ、朴 榮濬、渡辺 剛、伊藤裕子 2005. 7. 30 発行
- SGRA レポート28 第17回フォーラム講演録 「日本は外国人をどう受け入れるべきか- 地球市民の義務教育-」
宮島 喬、ヤマグチ・アナ・エリーザ、朴 校熙、小林宏美 2005. 7. 30 発行
- SGRA レポート29 第18回フォーラム・第4回日韓アジア未来フォーラム講演録 「韓流・日流：東アジア地域協力におけるソフトパワー」 李 鎮奎、林 夏生、金 智龍、道上尚史、木宮正史、李 元徳、金 雄熙 2005. 5. 20 発行
- SGRA レポート30 第19回フォーラム講演録 「東アジア文化再考－自由と市民社会をキーワードに－」
宮崎法子、東島 誠 2005. 12. 20 発行
- SGRA レポート31 第20回フォーラム講演録 「東アジアの経済統合：雁はまだ飛んでいるか」
平川 均、渡辺利夫、トラン・ヴァン・トウ、範 建亭、白 寅秀、エンクバヤル・シャグダル、F. マキト
2006. 2. 20 発行
- SGRA レポート32 第21回フォーラム講演録 「日本人は外国人をどう受け入れるべきか－留学生－」
横田雅弘、白石勝己、鄭仁豪、カンピラパーブ・スネート、王雪萍、黒田一雄、大塚晶、徐向東、
角田英一 2006. 4. 10 発行
- SGRA レポート33 第22回フォーラム講演録 「戦後和解プロセスの研究」 小菅信子、李 恩民 2006. 7. 10 発行
- SGRA レポート34 第23回フォーラム講演録 「日本人と宗教：宗教って何なの？」
島蘭 進、ノルマン・ヘイヴンズ、ランジャンナ・ムコパディヤーヤ、ミラ・ゾンターク、
セリム・ユジェル・ギュレチ 2006. 11. 10 発行
- SGRA レポート35 第24回フォーラム講演録 「ごみ処理と国境を越える資源循環～私が分別したごみはどこへ行くの？～」
鈴木進一、間宮 尚、李 海峰、中西 徹、外岡 豊 2007. 3. 20 発行
- SGRA レポート36 第25回フォーラム講演録 「ITは教育を強化できるか」
高橋富士信、藤谷哲、楊接期、江蘇蘇 2007. 4. 20 発行
- SGRA レポート37 第1回チャイナ・フォーラム in 北京講演録 「パネルディスカッション『若者の未来と日本語』」
池崎美代子、武田春仁、張 潤北、徐 向東、孫 建軍、朴 貞姫 2007. 6. 10 発行
- SGRA レポート38 第6回日韓フォーラム in 葉山講演録 「親日・反日・克日：多様化する韓国の対日観」
金 範洙、趙 寛子、玄 大松、小針 進、南 基正 2007. 8. 31 発行

- SGRA レポート 39 第26回フォーラム講演録 「東アジアにおける日本思想史～私たちの出会いと将来～」
黒住 真、韓 東育、趙 寛子、林 少陽、孫 軍悦 2007. 11. 30 発行
- SGRA レポート 40 第27回フォーラム講演録 「アジアにおける外来種問題～ひとの生活との関わりを考える～」
多紀保彦、加納光樹、プラチャヤー・ムシカシントン、今西淳子 2008. 5. 30 発行
- SGRA レポート 41 第28回フォーラム講演録 「いのちの尊厳と宗教の役割」
島蘭進、秋葉悦子、井上ウイマラ、大谷いづみ、ランジャンナ・ムコパディヤヤ 2008. 3. 15 発行
- SGRA レポート 42 第2回チャイナ・フォーラム in 北京&新疆講演録 「黄土高原緑化協力の15年—無理解と失敗から相互理解と信頼へ—」 高見邦雄 日本語版、中国語版 2008. 1. 30 発行
- SGRA レポート 43 渥美奨学生の集い講演録 「鹿島守之助とパン・アジア主義」 平川均 2008. 3. 1 発行
- SGRA レポート 44 第29回フォーラム講演録「広告と社会の複雑な関係」 関沢 英彦、徐 向東、オリガ・ホメンコ
2008. 6. 25 発行
- SGRA レポート 45 第30回フォーラム講演録 「教育における『負け組』をどう考えるか～
日本、中国、シンガポール～」 佐藤香、山口真美、シム・チュン・キャット 2008. 9. 20 発行
- SGRA レポート 46 第31回フォーラム講演録 「水田から油田へ：日本のエネルギー供給、食糧安全と地域の活性化」
東城清秀、田村啓二、外岡 豊 2009. 1. 10 発行
- SGRA レポート 47 第32回フォーラム講演録 「オリンピックと東アジアの平和繁栄」
清水 諭、池田慎太郎、朴 榮濬、劉傑、南 基正 2008. 8. 8 発行
- SGRA レポート 48 第3回チャイナ・フォーラム in 延辺&北京講演録 「一燈やがて万燈となる如く—
アジアの留学生と生活を共にした協会の50年」 工藤正司 日本語版、中国語版 2009. 4. 15 発行
- SGRA レポート 49 第33回フォーラム講演録 「東アジアの経済統合が格差を縮めるか」
東 茂樹、平川 均、ド・マン・ホーン、フェルディナンド・C・マキト 2009. 6. 30 発行
- SGRA レポート 50 第8回韓国アジア未来フォーラム講演録 「日韓の東アジア地域構想と中国観」
平川 均、孫 洌、川島 真、金 湘培、李 鋼哲 日本語版、韓国語 Web 版 2009. 9. 25 発行
- SGRA レポート 51 第35回フォーラム講演録 「テレビゲームが子どもの成長に与える影響を考える」
大多和直樹、佐々木 敏、渋谷明子、ユ・ティ・ルイン、江 蘇蘇 2009. 11. 15 発行
- SGRA レポート 52 第36回フォーラム講演録 「東アジアの市民社会と21世紀の課題」
宮島 喬、都築 勉、高 熙卓、中西 徹、林 泉忠、ブ・ティ・ミン・チイ、
劉 傑、孫 軍悦 2010. 3. 25 発行
- SGRA レポート 53 第4回チャイナ・フォーラム in 北京&上海講演録 「世界的課題に向けていま若者ができること～
TABLE FOR TWO～」 近藤正晃ジェームス 2010. 4. 30 発行
- SGRA レポート 54 第37回フォーラム講演録 「エリート教育は国に『希望』をもたらすか：
東アジアのエリート高校教育の現状と課題」 玄田有史 シム・チュンキャット
金 範洙 張 健 2010. 5. 10 発行
- SGRA レポート 55 第38回フォーラム講演録 「Better City, Better Life ～東アジアにおける都市・
建築のエネルギー事情とライフスタイル～」 木村建一、高 偉俊、
Mochamad Donny Koerniawan, Max Maquito, Pham Van Quan、
葉 文昌、Supreedee Rittironk、郭 榮珠、王 劍宏、福田展淳 2010. 12. 15 発行
- SGRA レポート 56 第5回チャイナ・フォーラム in 北京&フフホト講演録 「中国の環境問題と日中民間協力」
第一部 (北京)：「北京の水問題を中心に」 高見邦雄、汪 敏、張 昌玉
第二部 (フフホト)：「地下資源開発を中心に」 高見邦雄、オンドロナ、ブレンサイン
2011. 5. 10 発行

- SGRA レポート 57 第39回フォーラム講演録「ポスト社会主義時代における宗教の復興」井上まどか、ティムール・ダダバエフ、ゾンターク・ミラ、エリック・シッケタンツ、島蘭進、陳継東 2011. 12. 30 発行
- SGRA レポート 58 投稿 「鹿島守之助とパン・アジア論への一試論」平川均 2011. 2. 15 発行
- SGRA レポート 59 第10回日韓アジア未来フォーラム講演録「1300年前の東アジア地域交流」朴亨國、金尚泰、胡潔、李成制、陸載和、清水重敦、林慶澤 2012. 1. 10 発行
- SGRA レポート 60 第40回フォーラム講演録「東アジアの少子高齢化問題と福祉」田多英範、李蓮花、羅仁淑、平川均、シム・チュンキャット、F・マキト 2011. 11. 30 発行
- SGRA レポート 61 第41回SGRAフォーラム講演録「東アジア共同体の現状と展望」恒川恵市、黒柳米司、朴榮濬、劉傑、林泉忠、プレンスイン、李成日、南基正、平川均 2012. 6. 18 発行
- SGRA レポート 62 第6回チャイナ・フォーラム in 北京&フフホト講演録「Sound Economy ～私がミナマタから学んだこと～」柳田耕一
「内モンゴル草原の生態系：鉱山採掘がもたらしている生態系破壊と環境汚染問題」郭偉 2012. 6. 15 発行
- SGRA レポート 64 第43回SGRAフォーラム in 蓼科講演録「東アジア軍事同盟の課題と展望」朴榮濬、渡辺剛、伊藤裕子、南基正、林泉忠、竹田いさみ 2012. 11. 20 発行
- SGRA レポート 65 第44回SGRAフォーラム in 蓼科講演録「21世紀型学力を育むフューチャースクールの戦略と課題」赤堀侃司、影戸誠、曹圭福、シム・チュンキャット、石澤紀雄 2013. 2. 1 発行
- SGRA レポート 66 渥美奨学生の集い講演録「日英戦後和解（1994-1998年）」(日本語・英語・中国語) 沼田貞昭 2013. 10. 20 発行
- SGRA レポート 67 第12回日韓アジア未来フォーラム講演録「アジア太平洋時代における東アジア新秩序の模索」平川均、加茂具樹、金雄熙、木宮正史、李元徳、金敬黙 2014. 2. 25 発行
- SGRA レポート 68 第7回SGRAチャイナ・フォーラム in 北京講演録「ボランティア・志願者論」(日本語・中国語・英語) 宮崎幸雄 2014. 5. 15 発行
- SGRA レポート 69 第45回SGRAフォーラム講演録「紛争の海から平和の海へー東アジア海洋秩序の現状と展望ー」村瀬信也、南基正、李成日、林泉忠、福原裕二、朴榮濬 2014. 10. 20 発行
- SGRA レポート 70 第46回SGRAフォーラム講演録「インクルーシブ教育：子どもの多様なニーズにどう応えるか」荒川智、上原芳枝、ヴィラグ ヴィクトル、中村ノーマン、崔佳英 2015. 4. 20 発行
- SGRA レポート 71 第47回SGRAフォーラム講演録「科学技術とリスク社会ー福島第一原発事故から考える科学技術と倫理ー」崔勝媛、島蘭進、平川秀幸 2015. 5. 25 発行
- SGRA レポート 72 第8回チャイナ・フォーラム講演録「近代日本美術史と近代中国」佐藤道信、木田拓也 2015. 10. 20 発行
- SGRA レポート 73 第14回日韓アジア未来フォーラム、第48回SGRAフォーラム講演録「アジア経済のダイナミズムー物流を中心に」李鎮奎、金雄熙、榊原英資、安秉民、ドマンホーン、李鋼哲 2015. 11. 10 発行
- SGRA レポート 74 第49回SGRAフォーラム講演録：円卓会議「日本研究の新しいパラダイムを求めて」劉傑、平野健一郎、南基正 他15名 2016. 6. 20 発行
- SGRA レポート 75 第50回SGRAフォーラム in 北九州講演録「青空、水、くらしー環境と女性と未来に向けて」神崎智子、斉藤淳子、李允淑、小林直子、田村慶子 2016. 6. 27 発行
- SGRA レポート 76 第9回SGRAチャイナ・フォーラム in フフホト&北京講演録「日中200年ー文化史からの再検討」劉建輝 2020. 6. 18 発行

- SGRA レポート77 第15回日韓アジア未来フォーラム講演録「これからの日韓の国際開発協力—共進化アーキテクチャの模索」孫赫相、深川由紀子、平川均、フェルディナンド・C・マキト 2016. 11. 10 発行
- SGRA レポート78 第51回SGRAフォーラム講演録「今、再び平和について—平和のための東アジア知識人連帯を考える—」南基正、木宮正史、朴栄濬、宋均宮、林泉忠、都築勉 2017. 3. 27 発行
- SGRA レポート79 第52回SGRAフォーラム講演録「日本・中国・韓国における国史たちの対話の可能性(1)」劉傑、趙珧、葛兆光、三谷博、八百啓介、橋本雄、松田麻美子、徐静波、鄭淳一、金キョンテ 2017. 6. 9 発行
- SGRA レポート80 第16回日韓アジア未来フォーラム講演録「日中韓の国際開発協力—新たなアジア型モデルの模索—」金雄熙、李恩民、孫赫相、李鋼哲 2017. 5. 16 発行
- SGRA レポート81 第56回SGRAフォーラム講演録「人を幸せにするロボット—人とロボットの共生社会をめざして第2回—」稲葉雅幸、李周浩、文景楠、瀬戸文美 2017. 11. 20 発行
- SGRA レポート82 第57回SGRAフォーラム講演録「第2回 日本・中国・韓国における国史たちの対話の可能性—蒙古襲来と13世紀モンゴル帝国のグローバル化」葛兆光、四日市康博、チョグト、橋本雄、エルデニバートル、向正樹、孫衛国、金甫杫、李命美、ツェレンドルジ、趙阮、張佳 2018. 5. 10 発行
- SGRA レポート83 第58回SGRAフォーラム講演録「アジアを結ぶ? 『一带一路』の地政学」朱建栄、李彦銘、朴栄濬、古賀慶、朴准儀 2018. 11. 16 発行
- SGRA レポート84 第11回SGRAチャイナフォーラム講演録「東アジアからみた中国美術史学」塚本磨充、呉孟晋 2019. 5. 17 発行
- SGRA レポート85 第17回日韓アジア未来フォーラム講演録「北朝鮮開発協力：各アクターから現状と今後を聞く」孫赫相、朱建栄、文昊鍊 2019. 11. 22 発行
- SGRA レポート86 第59回SGRAフォーラム講演録「第3回 日本・中国・韓国における国史たちの対話の可能性：17世紀東アジアの国際関係—戦乱から安定へ—」三谷博、劉傑、趙珧、崔永昌、鄭潔西、荒木和憲、許泰玖、鈴木開、祁美琴、牧原成征、崔姪姫、趙軼峰 2019. 9. 20 発行
- SGRA レポート87 第61回SGRAフォーラム講演録「日本の高等教育のグローバル化!？」沈雨香、吉田文、シン・ジョンチョル、関沢和泉、ムラット・チャクル、金範洙 2019. 3. 26 発行
- SGRA レポート88 第12回SGRAチャイナ・フォーラム講演録「日中映画交流の可能性」刈間文俊、王衆一 2020. 9. 25 発行
- SGRA レポート89 第62回SGRAフォーラム講演録「再生可能エネルギーが世界を変える時…? —不都合な真実を超えて」ルウェリン・ヒューズ、ハンス＝ヨゼフ・フェル、朴准儀、高偉俊、葉文昌、佐藤健太、近藤恵 2019. 11. 1 発行
- SGRA レポート90 第63回SGRAフォーラム講演録「第4回 日本・中国・韓国における国史たちの対話の可能性：『東アジア』の誕生—19世紀における国際秩序の転換—」三谷博、大久保健晴、韓承勳、孫青、大川真、南基玄、郭衛東、塩出浩之、韓成敏、秦方 2020. 11. 20 発行
- SGRA レポート91 第13回SGRA-Vカフェ講演録「ポスト・コロナ時代の東アジア」林 泉忠 2020. 11. 20 発行
- SGRA レポート92 第13回SGRAチャイナ・フォーラム講演録「国際日本学としてのアニメ研究」大塚英志、秦 剛、古市雅子、陳 龔 2021. 6. 18 発行
- SGRA レポート93 第14回SGRAチャイナ・フォーラム講演録「東西思想の接触圏としての日本近代美術史再考」稲賀繁美、劉 曉峰、塚本磨充、王 中忱、林 少陽 2021. 6. 18 発行
- SGRA レポート94 第65回SGRA-Vフォーラム講演録「第5回日本・中国・韓国における国史たちの対話の可能性：19世紀東アジアにおける感染症の流行と社会的対応」朴 漢珉、市川智生、余 新忠 2021. 10. 05 発行

- SGRA レポート 95 第19回日韓アジア未来フォーラム講演録「岐路に立つ日韓関係：これからどうすればいいか」
小此木 政夫、李 元徳、沈 揆先、伊集院 敦、金 志英、小針 進、朴 栄濬、西野 純也
2021. 11. 17 発行
- SGRA レポート 96 第66回 SGRA フォーラム講演録「第 6 回日本・中国・韓国における国史たちの対話の可能性
人の移動と境界・権力・民族」塩出浩之、趙 阮、張 佳、榎本 渉、韓 成敏、秦 方、大久保健晴
2022. 6. 9 発行
- SGRA レポート 97 第67回 SGRA フォーラム講演録「『誰一人取り残さない』如何にパンデミックを乗り越えSDGs実現
に向かうか—世界各地からの現状報告—」佐渡友 哲、フェルディナンド・C・マキト、杜 世鑫、
ダルウィッシュ ホサム、李 鋼哲、モハメド・オマル・アブディン 2022. 2. 10 発行
- SGRA レポート 98 第15回 SGRA チャイナ・フォーラム講演録「アジアはいかに作られ、モダンはいかなる変化を生ん
だのか?—空間アジアの形成と生活世界の近代・現代—」山室信一 2022. 6. 9 発行
- SGRA レポート 99 第68回 SGRA フォーラム講演録「夢・希望・嘘—メディアとジェンダー・セクシュアリティの関係性
を探る—」ハンブルトン・アレクサンドラ、バラニャク平田ズザンナ、于寧、洪ユン伸 2022. 11. 1 発行
- SGRA レポート 100 第20回日韓アジア未来フォーラム講演録「進撃のKカルチャー——新韓流現象とその影響力」
小針 進、韓 準、チュ・スワン・ザオ 2022. 11. 16 発行
- SGRA レポート 101 第69回 SGRA フォーラム講演録「第 7 回日本・中国・韓国における国史たちの対話の可能性：『歴史
大衆化』と東アジアの歴史学」韓 成敏 2023. 3. 22 発行
- SGRA レポート 102 第16回 SGRA チャイナ・フォーラム講演録「モダンの衝撃とアジアの百年—異中同あり、通底・反転
するグローバリゼーション—」山室信一 2023. 6. 14 発行
- SGRA レポート 103 第70回 SGRA フォーラム講演録「木造建築文化財の修復・保存について考える」竹口泰生、姜 璿慧、
永 昕群、アレハンドロ・マルティネス、塩原フローニ・フリデリケ 2023. 11. 10 発行
- SGRA レポート 104 第21回日韓アジア未来フォーラム講演録「新たな脅威（エマージングリスク）・新たな安全保障（エ
マージングセキュリティ）—これからの政策への挑戦—」金 湘培、鈴木一人 2023. 11. 15 発行
- SGRA レポート 105 第71回 SGRA フォーラム講演録「20世紀前半、北東アジアに現れた『緑のウクライナ』という特別
な空間」オリガ・ホメンコ、塚瀬 進、ナヒヤ、グロリア・ヤンユー、マグダレナ・コウオジェイ
2023. 10. 30 発行
- SGRA レポート 106 第72回 SGRA フォーラム講演録「第 8 回日本・中国・韓国における国史たちの対話の可能性：20世
紀の戦争・植民地支配と和解はどのように語られてきたのか—教育・メディア・研究—」金 泰雄、
唐 小兵、塩出浩之、江 沛、福間良明、李 基勳、安岡健一、梁 知恵、陳 紅民 2024. 4. 12 発行
- SGRA レポート 107 第17回 SGRA チャイナ・フォーラム講演録「東南アジアにおける近代〈美術〉の誕生」後小路雅弘
2024. 6. 13 発行

■ レポートご希望の方は、SGRA 事務局 (Tel : 03-3943-7612 Email : sgra@aisf.or.jp) へご連絡ください。

SGRAレポート No. 0108

第22回日韓アジア未来フォーラム・2024 現代日本学会春季国際学術大会

ジェットコースターの日韓関係
——何が正常で何が蜚気楼なのか

제 22 회 한일아시아미래포럼・2024 현대일본학회 춘계국제학술대회

‘몰러코스터’ 한일관계, 무엇이 신기루인가?

編集・発行 (公財)渥美国際交流財団関口グローバル研究会 (SGRA)

〒112-0014 東京都文京区関口3-5-8

Tel: 03-3943-7612 Fax: 03-3943-1512

SGRA ホームページ: <http://www.aisf.or.jp/sgra/>

電子メール: sgra@aisf.or.jp

発行日 2024年11月14日

発行責任者 今西淳子

韓国語版監修 尹在彦

印刷 (株)平河工業社

©関口グローバル研究会 禁無断転載 本誌記事のお尋ねならびに引用の場合はご連絡ください。

©Sekiguchi Global Research Association Copying is Prohibited. For inquiries or quotes, please contact us.

第22回 日韓アジア未来フォーラム・2024 現代日本学会春季国際学術大会
ジエツトコースターの日韓関係——何が正常で何が蜃気楼なのか

